

#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2017. 12.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 제 2회 학봉상 수상작으로, 1년간 학봉  
상의 연구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 홍백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원 : 은 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함선유(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승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차

|                                     |     |
|-------------------------------------|-----|
| <b>I. 서론</b>                        | 3   |
| 1. 연구의 필요성                          | 3   |
| 2. 연구개요                             | 6   |
| <b>II. 이론적 배경: 한·일 양국의 세대 담론 비교</b> | 11  |
| 1. 세대의 의미와 규정                       | 11  |
| 2. 한국의 세대 구분                        | 14  |
| 3. 일본의 세대 구분                        | 18  |
| 4. 소결                               | 21  |
| <b>III. 연구방법</b>                    | 25  |
| 1. 세대갈등과 가족가치관                      | 25  |
| 2. 비교 지표의 선정                        | 27  |
| 3. 연구방법                             | 33  |
| <b>IV. 연구결과</b>                     | 37  |
| 1. 한·일 가족가치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 37  |
| 2. 한국 일본 세대 균열 현상의 실재성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 81  |
| <b>V. 결론</b>                        | 149 |
| 1. 연구요약                             | 149 |
| 2. 제언                               | 152 |
| <b>참고문헌 및 부록</b>                    | 161 |

# 표 목 차

|                                                       |     |
|-------------------------------------------------------|-----|
| [표 2-1] 세대 명칭의 유형별 특성 .....                           | 15  |
| [표 2-2] 한국의 세대구분 .....                                | 17  |
| [표 2-3] 일본의 세대구분 .....                                | 19  |
| [표 3-1] 도구주의적 가족관에 관한 세부 문항 .....                     | 29  |
| [표 3-2] 정부의 복지책임에 관한 세부 문항 .....                      | 30  |
| [표 3-3]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세부 문항 .....                    | 33  |
| [표 4-1] 조사대상 .....                                    | 38  |
| [표 4-2] 조사문항 .....                                    | 39  |
| [표 4-3]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3  |
| [표 4-4]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4  |
| [표 4-5]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5  |
| [표 4-6]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7  |
| [표 4-7]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8  |
| [표 4-8]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0  |
| [표 4-9]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1  |
| [표 4-10]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4  |
| [표 4-11]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5  |
| [표 4-12]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6  |
| [표 4-13]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7  |
| [표 4-14]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8  |
| [표 4-15]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0 |
| [표 4-16] ① 동질혼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1 |
| [표 4-17]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2 |
| [표 4-18]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3 |
| [표 4-19]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5 |
| [표 4-20]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6 |

|                                                   |     |
|---------------------------------------------------|-----|
| [표 4-21]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07 |
| [표 4-22]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08 |
| [표 4-23]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0 |
| [표 4-24]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1 |
| [표 4-25] 도구적 가족관 관련 요약표                           | 111 |
| [표 4-26]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3 |
| [표 4-27]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4 |
| [표 4-28]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5 |
| [표 4-29]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6 |
| [표 4-30] 정부의 복지책임에 관한 세부 문항                       | 117 |
| [표 4-31]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8 |
| [표 4-32]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19 |
| [표 4-33]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1 |
| [표 4-34]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2 |
| [표 4-35]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3 |
| [표 4-36]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4 |
| [표 4-37]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5 |
| [표 4-38]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6 |
| [표 4-39]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8 |
| [표 4-40]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129 |
| [표 4-41]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세부 문항                     | 129 |
| [표 4-42] 한국: 도구주의적 가족관 관련 회귀분석 결과                 | 132 |
| [표 4-43] 일본: 도구주의적 가족관관련 문항 회귀분석 결과               | 135 |
| [표 4-44] 한국: 정부 책임성 관련 문항 회귀분석 결과                 | 139 |
| [표 4-45] 일본: 정부 책임성 관련 문항 회귀분석 결과                 | 140 |
| [표 4-46] 한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관련 회귀분석 결과            | 142 |
| [표 4-47] 일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관련 회귀분석 결과            | 144 |
| [표 5-1] 한국 회귀분석 결과 요약                             | 150 |
| [표 5-2] 일본 회귀분석 결과 요약                             | 151 |
| [표 5-3] 한국과 일본의 영유아 보육 제도                         | 153 |
| [표 5-4] 한국과 일본의 노후소득보장현황                          | 154 |
| [표 5-5] 노후 준비 여부(2017)                            | 155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1] 조사개요 .....                           | 7  |
| [그림 1-2] 연구개요 .....                           | 8  |
| [그림 3-1] 가족과 세대 갈등 조성지점 .....                 | 27 |
| [그림3-2] 혼인 외 자녀의 비율(2014년) .....              | 32 |
| [그림3-3]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1990, 2014) .....        | 32 |
| [그림 4-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 .....        | 42 |
| [그림 4-2] 동질혼에 대한 동의 수준 .....                  | 42 |
| [그림 4-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수준 .....      | 43 |
| [그림 4-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수준 ..... | 44 |
| [그림 4-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 .....       | 44 |
| [그림 4-6] 자녀 입양 의향에 대한 동의 수준 .....             | 45 |
| [그림 4-7] 유자녀 이혼에 대한 동의 수준 .....               | 46 |
| [그림 4-8]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동의 수준 .....             | 46 |
| [그림 4-9] 결혼 전 동거에 대한 동의 수준 .....              | 47 |
| [그림 4-10] 결혼 전 출산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          | 48 |
| [그림 4-11] 결혼보다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수준 ..... | 48 |
| [그림 4-12] 결혼을 하면 생활이 구속 받는다에 대한 동의수준 .....    | 49 |
| [그림 4-13]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의 중요도에 대한 동의수준 .....     | 50 |
| [그림 4-14]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 .....   | 50 |
| [그림 4-15] 자식은 부모의 명예에 노력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수준 .....  | 51 |
| [그림 4-16] 가족 우선에 대한 동의 수준 .....               | 52 |
| [그림 4-17] 남녀분업에 대한 동의 수준 .....                | 53 |
| [그림 4-18] 여성취업과 부부평등에 대한 동의 수준 .....          | 53 |
| [그림 4-19] 자녀 취학 전 여성의 취업 영향에 대한 동의 수준 .....   | 54 |
| [그림 4-20] 맞벌이 부부의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 .....    | 55 |
| [그림 4-21] 부부 수입 개별 관리에 대한 동의 수준 .....         | 55 |
| [그림 4-22] 주택 부부공동명의로에 대한 동의 수준 .....          | 56 |
| [그림 4-23] 여성 취업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동의 수준 .....   | 57 |



|                                                                    |    |
|--------------------------------------------------------------------|----|
| [그림 4-24] 여성이 원하는 것은 취업보다는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는 데<br>에 대한 동의 수준 ..... | 58 |
| [그림 4-25] 맞벌이에 대한 동의 수준 .....                                      | 58 |
| [그림 4-26]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                                  | 59 |
| [그림 4-27] 동성 여성 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                             | 60 |
| [그림 4-28] 동성 남성 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                             | 60 |
| [그림 4-29] 노부모 부양(동거)에 대한 동의 수준 .....                               | 61 |
| [그림 4-30]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관한 동의 수준 .....                               | 62 |
| [그림 4-31] 자식의 성별에 따른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수준 .....                        | 63 |
| [그림 4-32] 대학교육비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4 |
| [그림 4-33] 결혼준비 비용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4 |
| [그림 4-34] 결혼 후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5 |
| [그림 4-35] 아동 돌봄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6 |
| [그림 4-36] 자녀교육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7 |
| [그림 4-37] 일자리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7 |
| [그림 4-38] 노후소득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8 |
| [그림 4-39] 노인 돌봄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9 |
| [그림 4-40] 보건의료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69 |
| [그림 4-41] 장애인복지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0 |
| [그림 4-42] 주거지 마련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1 |
| [그림 4-43] 최소생활보장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1 |
| [그림 4-44] 아동 돌봄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2 |
| [그림 4-45] 자녀교육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3 |
| [그림 4-46] 일자리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4 |
| [그림 4-47] 노후소득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4 |
| [그림 4-48] 노인 돌봄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5 |
| [그림 4-49] 보건의료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6 |
| [그림 4-50] 장애인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7 |
| [그림 4-51] 주거지마련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7 |
| [그림 4-52] 최소생활보장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 78 |
| [그림 4-53]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2 |
| [그림 4-54]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4 |
| [그림 4-55]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85 |
| [그림 4-56]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7 |

|                                                         |     |
|---------------------------------------------------------|-----|
| [그림 4-57]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88  |
| [그림 4-58]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90  |
| [그림 4-59]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1  |
| [그림 4-60]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3  |
| [그림 4-61]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4  |
| [그림 4-62]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6  |
| [그림 4-63]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7  |
| [그림 4-64]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98  |
| [그림 4-65]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99  |
| [그림 4-66] ① 동질혼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0 |
| [그림 4-67]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2 |
| [그림 4-68]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3 |
| [그림 4-69]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4 |
| [그림 4-70]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5 |
| [그림 4-71]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7 |
| [그림 4-72]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8 |
| [그림 4-73]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09 |
| [그림 4-74]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0 |
| [그림 4-75]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2 |
| [그림 4-76]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3 |
| [그림 4-77]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5 |
| [그림 4-78]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6 |
| [그림 4-79]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8 |
| [그림 4-80]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19 |
| [그림 4-81]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0 |
| [그림 4-82]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1 |
| [그림 4-83]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3 |
| [그림 4-84]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4 |
| [그림 4-85]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5 |
| [그림 4-86]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6 |
| [그림 4-87]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7 |
| [그림 4-88]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 · 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 128 |
| [그림 5-1] 각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 및 남성 비율 .....                   | 159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개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계층별로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양국의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대담론’으로 압축한 88만원 세대론과 사토리(さとり) 세대론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청년 세대의 문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 있다는 진단에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기가 지나가고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양국 모두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직위를 누리는 기성세대와 ‘취업난과 저임금에 내몰린 청년 세대’ 사이의 간극은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세대론’이 양국의 사회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단층선으로 언론과 연구자, 정치인들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 담론’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각 세대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파악하여 세대를 정의하는 작업은 상당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세대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동질성을 특정 코호트가 가지고 있는지, 즉, 그 세대가 ‘실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하다. 또한, 어느 세대가 ‘더 받고/덜 받았는지’를 밝히려면 해당 연령 코호트(cohort) 별로 ‘생애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분석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정확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가족 내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이루어지는, 즉, 계보학적인 의미에서의 세대 간 사적이전을 고려한다면 세대 간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가 내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계급·계층 간 불평등의 한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 (Attias-Donfut and Arber, 2002).

그래서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범람하고 있는 ‘세대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한·일 양국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지수준은 가족과 시장, 정부에 의해 구성되며 이 세 주체간의 역할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다(Esping-Andersen, 2009). 그렇기에 가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가용한 복지 자원으로써의 가족, 그리고 책임 대상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생애주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각 개인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각 구성원들의 선호가 집약·반영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적 영역의 복지 발달수준과도 조응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후 근대화와 탈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2011) -일본의 경우 ‘준-압축적 근대화’(Ochiai, 2011)-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구성원은 변화의 파고를 제도화된 복지가 아닌 가족에 의존하며 생존해왔다. 양국 모두 전후 급작스럽게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각 개인은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적응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자원은 가족의 지원 관계뿐이었다(장경섭, 2001). 즉, 가족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지지를 공급하고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으로써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경쟁과정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 간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배한 후 성취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기본단위로 작동해 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생활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아 주기도 한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연기한다. 어른을 공경하고 노부모

를 부양하는 유교 문화의 특성 역시 아직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이 바로 미약한 공적영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애주기적인 위험을 가용가능한 가족자원을 통해 극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가족주의 전략’의 사례들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정부는 부족한 공적영역의 확충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족 중심의 규범을 재생산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기금식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한정적이었기에 가족의 자원 수준에 의해 각 개인이 누리는 복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은석, 2007;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이런 현실에서 ‘세대론’에만 집중하는 것은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각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각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청년 세대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의 동거를 지속한다는 김수정과 김영 (2013)의 연구는 세대론의 이면에 있는 계층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라는 틀로만 확인하는 것은 계층이라는 큰 틀을 누락하고 세대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를 세대 문제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김선기, 2014).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세대 중심 접근법의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칼 만하임의 ‘역사·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세대’ 정의 방식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경험의 성층화’ 과정을 통하여 해당 세대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한 코호트를 동일 세대로 간주하였다. 양국의 세대 구분 방식은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에 기반하여 가설적으로 명명하되, 그 세대가 고유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치관 조사문항들에 대한 코호트별 평균과 분산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그 이후, 세대 간의 차이가 실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계층 등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특이성이 발견되는 몇몇 세대 집단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대 담론에 대하여 세밀한 논증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잠정적인 세대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 연구개요

한국과 일본의 세대 간, 계층 간 가족 가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통해 사회의 갈등 양상과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대 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칼 만하임의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세대’ 개념을 차용하여 만 20세에서 만59세에 이르는 조사대상을 세대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한국의 경우 유신세대와 386세대, IMF 세대, 88만원 세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신진루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 잃어버린 세대, 사토리 세대 로 구분하였다.

둘째, 3장에서는 가족가치관을 통해서 양국의 세대 갈등양상을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비교지표를 설명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처럼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을 거쳐 온 사회의 경우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세대 별로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부양이나 돌봄 등 부담이 수반되는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가족 내에서,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세대 별 대립을 야기할 수 있기에 가족가치관은 세대 별 인식차이를 검증하는 타당한 도구이다.

셋째, 4장에서는 가족가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후, 한국과 일본의 세대 간 가족가치의 차이가 세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갈등선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세대 간 차이와 세대 간 동질성의 정도를 확인하여 각 세대의 실재성에 대해 살펴본 후, 계층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갈등이 실재하는 것인지 검토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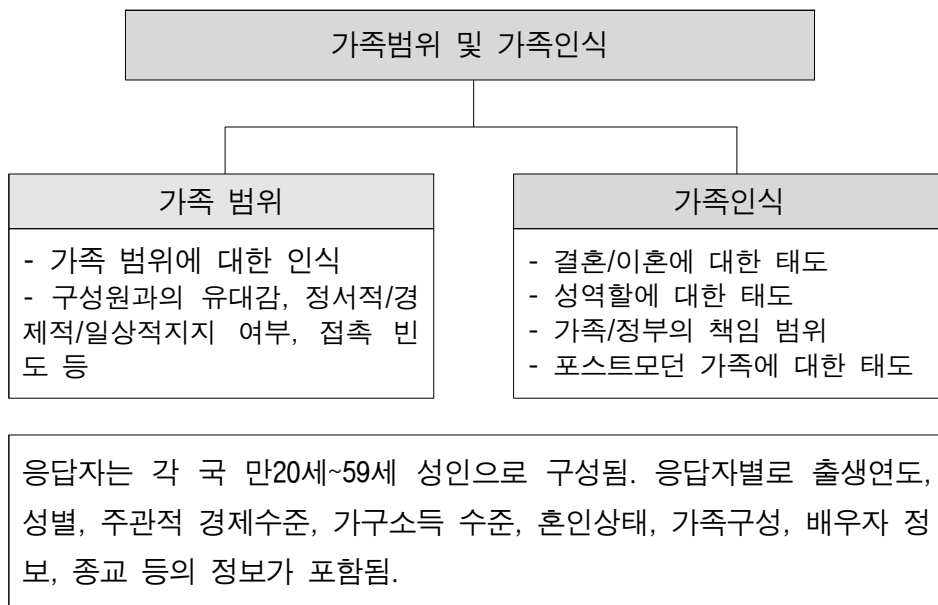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양국에서의 세대 간 갈등 양상의 특성을 밝히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작업이다.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가족 범위와 인식에 대한 국제 조사>결과와 함께 일본에 대해서도 동일



한 조사를 수행하여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족 범위와 인식에 대한 국제 조사>는 world value survey, ISSP 등의 문항을 참조하여 가족의식을 다차원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본 설문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그림 1-1] 조사개요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세대 간, 계층 간 가족의식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조사에 활용된 표본은 지역, 성, 연령에 따라 층화비례할당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7년 8월~9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가족의식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문항이 세대(계층) 간 차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 중 세대갈등이 예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세대갈등이 주요 분열의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세대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를 구분 짓는 일이 필요하다. 세대의 구분은 세대 간 차이와 함께 세대 내 동질성도 확인해야 하는 작

업이므로 이를 위하여 세대 간, 세대 내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문항별 세대(계층)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동질성 및 세대(계층) 간 차이를 확인한다. 아울러 ANOVA 등 통계방법을 활용해 세대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수행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2] 연구개요



## Ⅱ.이론적 배경

### 한 · 일 양국의 세대 담론 비교

1. 세대의 의미와 규정
2. 한국의 세대구분
3. 일본의 세대구분
4. 소결



## II. 이론적 배경

### 한·일 양국의 세대 담론 비교

본 장에서는 ‘세대’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살펴본 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세대’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떠한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 1. 세대의 의미와 규정

세대 문제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이며 동시에 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처럼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차의 문제에서부터 단순히 다름을 넘어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는 취업난, 주거난, 5포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의 불안과 연관된 세대 갈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세대의 의미를 규정하고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세대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연령, 생애주기, 코호트, 세대적 특성 등 연령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사용되고 혼동되고 있으며 이들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경숙 외, 2013).

세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연령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동일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성향이나 행위방식의 원인이 연령에 있다고 본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으로 비슷한 사회적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컫는 코호트가 변화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령이라는 개념은 시

간과 동의어이다. 시간 그 자체는 삶의 기능, 행위 혹은 다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시간은 어떠한 것도 일으키지 않는다”(Botwinick, 1978; 박경숙 외, 2013에서 재인용) 는 보트위닉의 비판처럼 연령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코호트의 차이인 것인지 세대의 차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의 인식은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르며 시간의 의미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던 경험을 다르게 인식하고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성찰하기 더욱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연령, 코호트뿐만 아니라 세대의 구분 및 파악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세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세대’는 명확하게 정의되기 보다는 상업적 목적 등 다양한 목적과 시간, 노화, 연령집단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로서 활용되어 왔다(박재홍, 2005). 이러한 세대에 대한 이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가 변화해온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변동이 느리고 개인의 수명이 짧았던 근대이전의 세계에서 세대에 대한 이해와 사회변동이 빠르고 개인의 수명이 길고 다양한 사회적 세대가 형성되는 현대에서의 세대에 대한 이해는 큰 차이를 보인다<sup>1)</sup>. 즉, 세대에 대한 인식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자 역사적인 구성물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어(박경숙 외, 2013; 사사노 미사에, 2017) 세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변동 및 갈등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해 줄 것이다.

현재 세대 연구에서 사회적 의미의 세대 연구자들은 만하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만하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세대위치) 이들이 모두 다 의미 있는 하나의 ‘실제 세대 또는 세대 단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 시기가 다른 이들은 성장하면서 당연히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하임은 이를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경험의 여러 층위가 겹겹이 쌓이면서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각 코호트의

---

1) 사회변동과 시간, 생애주기, 세대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박경숙 외(2013)를 참조.

사고와 의식이 달라지지만, 이러한 성층화는 여전히 세대 출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들 집단이 상호 간의 연계와 유사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동의 연대를 만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세대(실제 세대 혹은 세대 단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하임은 세대 형성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역사학적 접근방식과 사회학적 접근방식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17세에서 25세 사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Mannheim, 1952).

이러한 ‘진짜 세대’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핵심요인은 ‘사회변동의 속도’이다.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며 고유한 엔텔레키(entelechy)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후 근대화와 탈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2011) -일본의 경우 ‘준-압축적 근대화’(Ochiai, 2011)-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구성원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은 급작스러운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적응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자원은 가족 구성원의 지원 관계뿐이었다(장경섭, 2001). 만하임의 논의를 고려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세대의 성층화’ 과정을 겪은 집단인 ‘진짜 세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세대의 구분과 함께 세대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구분하는 일이다(전상진, 2004; 박명호, 2008; 허석재, 2014). 세대 효과는 각각의 세대가 세대 내에서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에 있을 때 그 동질감에 기반하여 해당 세대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을, 연령 효과는 인간이 생애주기 안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보수화)를 일컫는다. 많은 연구들이 세대연구에 출생코호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출생코호트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경우 그것이 연령의 효과인지 세대의 효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두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장기간 추적 조사한 자료가 부재하기에 자료의 해석과정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는 횡단면 값이므로, 연령효과

와 코호트 효과, 시기효과를 구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통계적 처리 과정상의 난점과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대별 구분방식과 명칭<sup>2)</sup>은 선행연구에 의존하되, 선형적으로 구분된 각 세대가 얼마나 동질적이고, 이질적인지를 각 가치관 영역에 대한 응답 수준과 표준편차를 집단별로 비교하여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각 세대의 실재성을 ANOVA 등 간단한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세대 구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2. 한국의 세대 구분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범주화하여 표적화(targeting)하려는 상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세대 구분을 시도할 때는 주로 문화적·행태적 차이에 기반한 세대 구분 방식을 시도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한 세대 명칭을 신조어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방식은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그러한 세대 구분은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적 변화와 조응하기 보다는, 특정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집단에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세대론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연구들이 10년 단위로 연령대를 끊어서 세대를 구분하거나, 특정한 생애단계에 속한 집단을 하나의 세대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며, 이러한 방식은 학술연구와 상업 영역 양쪽에서 활용된다. 상업 영역에서의 경우, 특정 생애단계나 연령대에 속한 집단(특히, 학령인구)을 여타 집단과 구분하여 타겟팅하기 위한 목적(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제의 주 고객 집단인 청소년집단을 1318 세대로 명명)으로 사용한다. 또한, 연령효과

---

2)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박재홍(2009)에 따르면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은 ① 역사적 경험 ②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③ 문화적·행태적 특성 등인데,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코호트(birth cohort)의 역사적 경험이나 시대 특성을 세대 구분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학술적인 사용에도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세대 구분에 대해서는 박재홍(2009:25)의 구분방식, 일본의 세대구분에 대해서는 Takase et al(2009:958-960)와 Kei et al(2010:58), 사사노 미사에(2017) 등을 참고하여 출생 코호트별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와 코호트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술 영역에서도 나이 및 생애단계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대구분방식은 각 연령집단이 역사적 경험을 누적하면서 실제세대로 발현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표 2-1] 세대 명칭의 유형별 특성 (박재홍, 2009: p.15 일부 수정)

| 구성기준             |                | 세대명칭                                                 | 특성                                                              |
|------------------|----------------|------------------------------------------------------|-----------------------------------------------------------------|
| 역사적<br>경험        | 역사적<br>사건      | 한국전쟁세대, 419 세대, 유신<br>세대, IMF 세대, W세대, 광장<br>세대 등    | 코호트 시작 잘<br>반영<br>정치 경제 문화<br>적 사건과 상황,<br>경험 중시, 상업<br>적활용도 낮음 |
|                  | 시대특성           |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탈냉<br>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br>대, 88만원 세대 |                                                                 |
| 나이/<br>생애<br>단계  | 10년 단위         | 2030세대, 5060세대, 1020세대                               | 연령/코호트효과<br>혼재, 상업적 목<br>적의 차별화                                 |
|                  | 생애단계           | 청년세대, 대학생세대, 노년세<br>대, 실버세대                          |                                                                 |
| 문화적<br>행태적<br>특성 | 문화적 ·<br>행태적특성 | 신세대, X세대, N세대, 디지<br>털세대, 실크세대, 웹2.0 세대              | 문화 및 행태적<br>특성                                                  |
|                  | 소비행태           | P세대, WINE세대, MOSAIC 세<br>대                           | 상업적 목적의<br>차별화                                                  |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경험과 시대특성에 기반하여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정적 집단 경험’에 의해 실제 세대의 정립이 이루어진다는 만하임의 이론에 근거하여 세대 구분을 시도한 박재홍(2009, 2017)은 한국인들의 세대를 구분하기 위한 ‘결정적 집단 경험’으로 일제 식민지 경험여부, 한국전쟁 경험여부,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민주화운동과 국내외 정치 상황 경험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 가운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집단인 1957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경험을 고려하여 이 인구집단을 ‘유신세대’(박명호, 2009; 노환희 외, 2013, 박재홍, 2009, 윤상철, 2009; 조중빈, 2003), ‘386세대’(노환희 외, 2013; 어수영, 2006; 윤상철,

2009; 박명호, 2009; 박재홍, 2017)와 ‘IMF 세대’(김혜경, 2013; 박재홍, 2009; 노환희 외, 2013), 그리고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 박재홍, 2009) 등 총 4개 세대집단으로 잠정적으로 구분하였다. 세대 명칭이나 구분방식은 연구관점과 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학교나 군대, 직장 등의 단체생활을 통해 17세에서 25세 사이에 실재 세대가 출현하게 된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다면 대체로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신세대와 386세대, IMF 세대, 88만원 세대는 세대의식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유신세대의 경우, 72년 유신 개헌 이후 독재정권에 의한 통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초기 성년기를 보낸 집단이다. 이들 세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사회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제개발에 의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 역시 계속되었지만, 대학진학률이 20%대에 머물러 높지 않았고, 전국 단위의 대학생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인지라 학생운동 경험이 386세대만큼 세대의 엔텔레키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386세대의 경우 반미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변역이론에 기반하여 대학생활을 보내며 역사적으로 성공한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정치적 진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박병영, 2007; 박재홍, 2017)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세대의 대학진학률이 36.4%에 불과한데, 대학에 진학한 일부 명문대학 출신 엘리트 운동권이 이들 코호트를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나, 3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약하지만, 소득재분배 등의 전통적인 좌/우 인식에 있어서는 다른 코호트와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박병영, 2007) 역시 이들 세대의 실재성 검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2] 한국의 세대구분

|                | 유신세대                  | 386세대                 | IMF세대                  | 88만원세대                                   |
|----------------|-----------------------|-----------------------|------------------------|------------------------------------------|
| 출생연도           | 57~61년생               | 62~71년생               | 72~82년생                | 83~94년생                                  |
| 1인당 GNI<br>증가율 | 173.3%<br>(1976~1980) | 181.7%<br>(1986~1990) | -3.4%<br>(1996~2000)   | 19.8%<br>(2006~2010)                     |
| 대학진학률          | 25.8% (1975)          | 36.4% (1985)          | 51.4% (1995)           | 82.1% (2005)                             |
| 초기성년기<br>역사적사건 | 1차 베이비붐<br>72년 유신     | 80년 광주항쟁<br>87년 민주항쟁  | 91년 동구권 붕괴<br>97년 외환위기 | 02년 월드컵,<br>노무현 당선<br>08년 금융위<br>기, 촛불집회 |

IMF 세대는 1970년생부터 82년생으로 이루어진 코호트로, 17~25세 사이에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2004년의 사회조사 자료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집합기억을 분석한 허석재(2014)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한국인이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97년 IMF 외환위기(28.84%)를 꼽았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평생고용에 근거해 있던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으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부계 가족주의 역시 해체되었다(김혜경, 2013). 70~82년생 코호트에 대해서는 사실 386세대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들 집단이 실제 세대로 발현되었는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75년생 50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외환위기로 강제적 개인화의 양상을 이들 코호트가 경험하고 있고, 가족책임과 역할인식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김혜경(2013)의 지적을 고려할 때, 이들 코호트의 실제 세대화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88만원세대는 1983년생부터 96년생으로 이루어진 코호트이다. 우석훈 · 박권일(2007)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대 간 경쟁, 세대 간 착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 전반에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가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세대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회 내 각 영역에서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386세대의 경우, 세대 내부의 응집력이 강고하기에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세대를 착취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세대로의 전환 경험 없이 신자유주의적 압력에 대하여 ‘스펙 쌓기’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책만을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계급 문제를 세대 내의 불평등 문제로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신광영, 2009, 신광영 문수연, 2014), 이해찬 세대, 광역화 1세대로 불리며 청소년기에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는 이들 집단의 성장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 코호트가 실제 세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 3. 일본의 세대 구분

세대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정 세대를 구분하고 이름을 부여 한다는 것은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과 함께 세대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세대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세대 내의 다양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과정이다. 또한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어떠한 시기에 겪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세대를 구분한 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세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왔다. 일본의 연구에서 역시 세대구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정 연령대, 코호트가 세대를 대신하기도 했고 상업적 영역에서부터 고령화의 예측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세대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횡단적으로 정리한 사사노 미사에(2017), Takase et al(2009) 등의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본의 세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일본의 세대 구분에서 전후 일본의 세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세대는 단카이 세대이다(사사노 미사에, 2017). 전후 첫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이기도 한 단카이 세대는 일본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대가족의 모습인 성별분업에 따른 핵가족이 대중화되었고, 생애과정 등 현재 일본 사회에서 표준적인 모습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습들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사사노 미사에, 2017). 전전의 교육과 다른 교육을 받고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 지상주의

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전의 세대와는 다른 일본세대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일본의 세대구분

| 출생 시기                    | 세대명                                       | 주요 역사적 이벤트 <sup>3)</sup>                                                  | 설명                                                                                                                     |
|--------------------------|-------------------------------------------|---------------------------------------------------------------------------|------------------------------------------------------------------------------------------------------------------------|
| 1944~1953<br>(1947~1949) | <b>단카이 세대</b>                             | 닉슨쇼크(1971)<br>아사마 산장 사건(1972)                                             | 회사의 성장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회사 인간적, 일 지상주의적 가치관 지님, 근대가족형성                                                                     |
| 1954~1968                | <b>신진루이</b><br>모라토리움 세대<br>시라케 세대<br>버블세대 | 오일쇼크 (1973, 1976)<br>록히드 사건(1976)                                         | 탈회사인간화, 일은 여가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냄.                                                                                        |
| 1969~1974                | <b>단카이 주니어 세대</b><br>(제2차 베이비붐세대)         | 해외여행 붐(1982)<br>남녀 고용평등법 강화(1986)<br>Black Monday(1987)<br>베를린장벽 붕괴(1989) | 버블 경기 붕괴의 여파로 취업난에 부딪친 첫 세대이며 세대 내에서 취업이 갈라진 세대의 시작<br>기업이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형 복지의 틀에 들어갈 수 없는 층 증가.                      |
| 1975~1982                | <b>잃어버린 세대</b>                            | 1955 정치 시스템 붕괴(1993)<br>지하철 사린 가스 사건(1995)<br>은행과 기업의 도산(1998)            | 패러사이트 싱글, 후리타족, 히키코모리족 등 독립된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그 이전에 베이비 붐 세대와 같은 유형의 표준화된 생활을 포기하고 혼자 살거나, 동거, 부모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해 생활함. |
| 1983~1994                | <b>사토리 세대</b><br>유토리 세대                   | 장기요양보험출범 (2000)<br>인구감소시작(2005)<br>서브프라임모기지 (2007)                        |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돈벌이나 출세에는 관심이 없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함.                                                                |

자료: Takase et al(2009), 사사노 미사에(2017), Kono et al(2010) 을 재구성

포스트 단카이 세대를 아우르는 말은 신진루이, 모라토리움, 시라케 세대, 버블 세대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세대는 서양의 x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로 주로 일본의 60년대에 학창시절을 부낸 세대의 구분에 사용되고 있다. 이 시기의 일본은 6%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로 일본경제의 절정기<sup>4)</sup>에 청년세대를 보낸 이 세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이다. 신진루이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3무주의(무기력, 무감동, 무관심)나 5무주의(3무+무책임, 무례함)로 불리기도하며 소비 욕구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Takase, 2009).

1970년대 이후 80년대 초에 태어난 일본의 세대들은 앞서의 세대와 다르게 고도 성장이 끝난 후의 세대들이다. 저성장시대를 아우르는 세대 담론은 단카이 주니어, 로스트제너레이션, 사토리, 후토리세대 등이 있다. 버블경제가 끝난 후 일본은 오일쇼크를 겪으며 경제성장의 속도가 감소하고 역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먼저 단카이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 주니어세대는 단카이세대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 세대가 20대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대학진학률은 증가하여 앞선 세대와는 달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난을 겪게 된 세대이다. 버블 경기 붕괴의 여파로 취업난에 부딪친 첫 세대이며 세대 내에서 취업이 갈라진 세대의 시작이 된 세대이기도 한다. 또한 기존세대와 다르게 기업이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형 복지의 틀에 들어갈 수 없는 층이 증가하게 된 첫 세대이기도 하다(사사노 미사에, 2017).

잃어버린 세대는 풍족한 경제성장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버블 경기가 붕괴되어 취업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동세대 내에서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 세대이다. 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과 대학을 졸업해도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고 니트, 프리터 등 비정규직 종사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임금격차가 커지며 중산계층의 사회라고 인식했던 일본에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었고 윗세대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자아찾기에 몰두한 청년들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

3) 주요 역사적 이벤트는 구분세대가 20대에 겪었을 이벤트임.

4) 신진루이세대가 20대이던 1985년~1990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6.2~6.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고 있다. 사사노 미사에(2017)에 의하면 이는 일본이 후기 근대로 진입하여 거대 담론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앞선 세대의 표준적인 삶의 궤적을 따르기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애쓰는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를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 이 세대는 교육제도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잃어버린 세대와는 달리 심한 경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취업이 이전세대보다 더욱 어려워진 세대이다. 한국의 88만원세대와 같이 흔히 이 세대를 탈존주의의 세대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토리 세대의 경우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소소한 삶의 의미를 찾는 낙관적 탈존주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관찰되기도 한다(김홍중, 2015).

#### 4. 소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세대구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대를 구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연령, 코호트와의 구분도 사실 힘들며 만하임이 이야기한 역사적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도 이견이 많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세대를 구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세대구분의 목적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며 세대 간 경험이 극명하게 갈리는 국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세대 간 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공동체에서의 경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재홍(2009)이 언급한 것처럼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대북인식이 다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저항의 경험을 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만성적 빈곤과 사회이동을 경험한 세대와 풍요를 경험한 세대는 근본적으로 의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체화한 세대와 근대적 교육, 나아가 정보화 수준이 높고 접근성이 다른 세대와 가치관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박경숙 외, 2013).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세대 간 차이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갈등양상을 확인하고 문제의 해결을 모색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급증하는 최근의 세대 갈등에 대한 관심은 지역갈등 등 기존의 갈등을 뛰어넘는 정치적 분열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연대의 기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가족의식,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세대 균열 현상이 실재하는지 단초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1. 세대갈등과 가족가치관
2. 비교지표의 선정
3. 연구방법



### III. 연구방법

#### 1. 세대갈등과 가족가치관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한국과 일본의 사회구성원들은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세대 간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처럼 통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양국의 세대 구분이 적절한 것인지, 실제로 같은 세대들은 동질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가족가치관과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서도 가족가치관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향성은 구성원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다영, 2005). 또한 가족은 양육, 돌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의 각 분야와 상호작용하며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다(안호용 외, 2000). 따라서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가족 경험이 있으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가족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치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개인의 정치 문화적 성향, 경제적 삶의 조건 등이 세대라는 집합적인 특성으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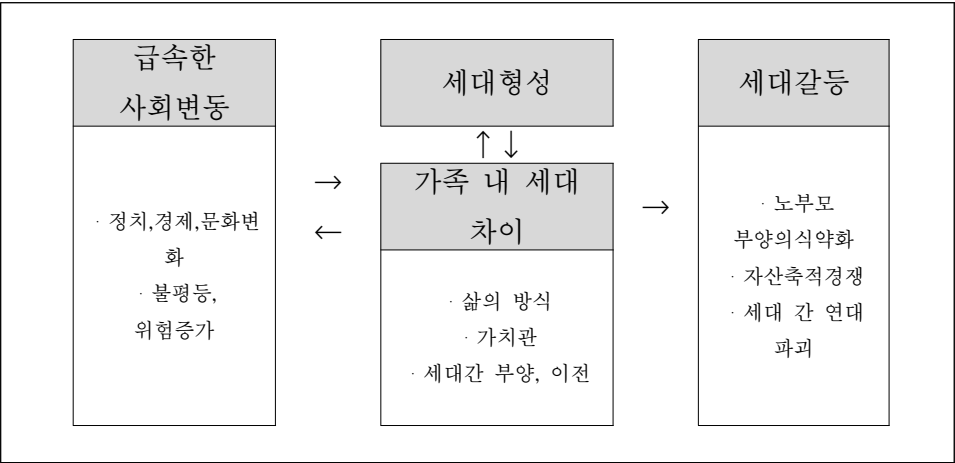
하게 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박경숙 외, 2013). 한국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었다. 또한, 가족분야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복합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었다. 식민통치, 전쟁, 급격한 산업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나가는 가족주의 전략이 사용되어왔다(장경섭, 2001). 관련 제도도 이러한 가족 중심의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즉, 안호용 외(2000)의 지적처럼 한국의 경우 한국적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변화 내용은 광범위하고 변화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속도가 빨라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보이는 혼동의 상황이라 할 것이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여러 제도의 도입과 성장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혼재를 가져왔고 가족과 사회 사이에 긴장과 세대 간 차이를 유발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동시에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세대 간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다른 가치관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들이 가장 빈번히 상호작용하는 장(場) 역시 가족(박경숙 외, 2013)이라는 점에서 가족가치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는 앞으로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세대별 차이는 가족 내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살아가면서 특정한 형태로 조율을 하게 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가치관에 대한 세대 간 동질성 차이성을 밝히고 갈등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양성평등적 역할관 등을 가족가치관으로 구분하고 있다(김홍규 외, 2003; 김혜영, 2001; 정옥분 외, 2007; 권복순, 김태자, 2008, 김경신, 1998; 김예희, 2010; 옥선화 외, 2000). 다양하게 구성된 가족가치관은 세대 간 가치와 목표, 태도, 이데올로기, 기여와 분배 등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관념적 갈등과 배분적 갈등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양상 및 사회문제의 예상을 위하여 인식의 차이가

복지제도와 의 조응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도구주의적 가족관(부양 및 효의식 포함), 정부의 복지책임(보육, 노후소득) 부분을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한 차이를 통하여 미래의 문제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그림 3-1] 가족과 세대 갈등 조성지점



## 2. 비교 지표의 선정

다음에서는 본 장에서 다룰 비교 지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족에 대한 의식은 다양하며 세대, 성별,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도구주의적 가족관, 정부의 복지책임, 다양한 가족의 수용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도구주의적 가족관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복합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었다. 식민통치, 전쟁, 급격한 산업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나가는 가족주의 전략이 사용되어왔다(장경섭, 2001). 가령, 한국에서 자본주의로 이행 과정은 일제와 미군정, 자유주의 정권의 수립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통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적응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대중들에게 가족은 유일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도구주의적 가족관(instrumental familism)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한다. 장경섭(2001)은 세대 내 계층이동(intra-generational class mobility)의 어려움을 실감한 한국인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 사업, 혼인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세대 간 계층이동(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의 기회를 노리는 현상이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이 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경쟁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고 그 본질을 상실하는 현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단순히 가족의 규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 중심의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가족을 보편적인 사회부양기제로 보고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명시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나, 장기요양보험의 세부 규정들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축적인 근대화와 가족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목격된다. 일본 역시 준(semi)-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며 가족주의적인 구조를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사회규범과 제도가 발전해왔다(Ochiai, 2011).

본 연구에서는 도구주의적 가족관을 가늠하기 위하여 아래 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우선 동질혼을 시사하는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부부관계를 애정적 동반자로 보는 서정적 가족주의와 대비되는 도구주의적 가족관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즉, 결혼의 조건을 애정에 두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보는 점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②~③ 문항의 경우 교육과 결혼 등을 통하여 세대간 계층 이동의 기회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④~⑤ 문항의 경우 가족을 보편적인 부양기제로 보는 가족관을 살펴보는 문항으로 보았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일반적이고 공고히 자리잡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직접 겪거나 가까이 경험한 세대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신세대, 신진루이 세대 등이 88만원세대나 사토리 세대에 비하여 도구주의적 가족관에 동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사회 변화가 줄어들고, 계급이동이 줄어들면서 ‘금수저론’과 같이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기회가 단절되었다고 인식되는 최근래에 이르러서 도구주의적 가족관의 의미는 다소 퇴색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표 3-1] 도구주의적 가족관에 관한 세부 문항

| 번호 | 분류           | 문항                                    | 척도                  |
|----|--------------|---------------------------------------|---------------------|
| ①  | 동질혼          |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 끼리 해야 한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②  |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  |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③  |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 |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④  | 노부모 경제적 부양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⑤  | 노부모와 동거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나. 정부의 복지책임

최근의 세대 갈등에 대한 언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회를 둘러싼 세대 간 이해관계의 대립현상이다. 일자리, 복지 등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세대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배분에 있어 형평성의 논의가 나타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차이와 부담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가족주의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래 후기 산업화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족의 실패”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다(Yamashita, Soma, &

Chan, 2013). 가족의 역량은 줄어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시장의 위험은 증가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가족과 정부 중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시사한다(양옥경, 2002). 즉,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지수준은 가족과 시장, 정부에 의해 구성되며 이 세 주체간의 역할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기에 (Esping-Andersen, 2009), 노후소득보장이나 돌봄에 대한 정부의 역할, 책임 범위, 가족의 역할이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 개인의 인식과 전략, 대응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은 흔히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관계를 보인다(최근·류진석, 2000). 일반적으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책임은 국가책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각기 다른 산업 환경과 사회문제를 경험한 각 세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의 해결책은 상이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책임에 관한 문항은 복지 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관한 세대 간 견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만약 이러한 문항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실재한다면 이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욕구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 돌봄과 노후 소득 등 이질적인 생애주기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 정부의 복지책임에 관한 세부 문항

| 번호 | 분류           | 문항        | 척도                  |
|----|--------------|-----------|---------------------|
| ⑥  |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 아동 돌봄(양육)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⑦  |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  | 노후 소득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관련한 문항을 비교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결혼 혹은 자녀양육의 규범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새로운 인식의 경우 세대별로 이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극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결혼관에 대한 인식이 각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안정적이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 가족관 역시 세대별로 이질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즉, 비전형적인 가족관에 관한 문항들은 세대 간 인식의 실제성을 검토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가족관을 토대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거하며 서로 성적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생활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정윤경·김경희·배진아·김찬아, 1997). 서구 사회에서 동거(cohabitation)가 결혼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낼 정도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 된<sup>5)</sup>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가족관을 이탈한 사례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유입되었다. 가령 OECD 34개국 중 28개 국가에서 동거 비율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5년 간통죄가 논쟁 속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결혼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최근 들어서 변화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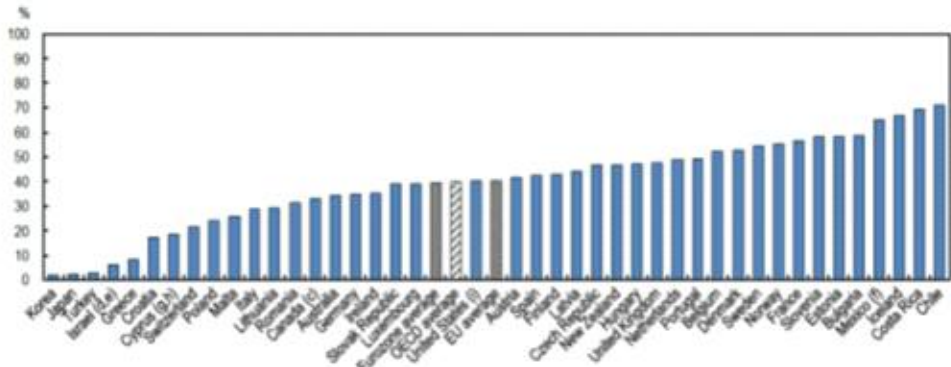
더불어 동성과의 결혼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부모 가정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혼인 외 자녀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그림1), 혼인율과 이혼율 역시 그 비율이 1990년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혼인율과 가장 낮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2)<sup>6)</sup>. 이처럼 관련한 의식이 한국과 일본

5) OECD Family Database에 공표된 2011년 기준 자료를 보면, 에스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20-34세 청년들은 결혼보다 동거의 비율이 더 높았다.

6) 여기서 일본의 이혼율과 혼인율의 변화는 한국에 비하여 그 변화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볼 때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인식은 한국보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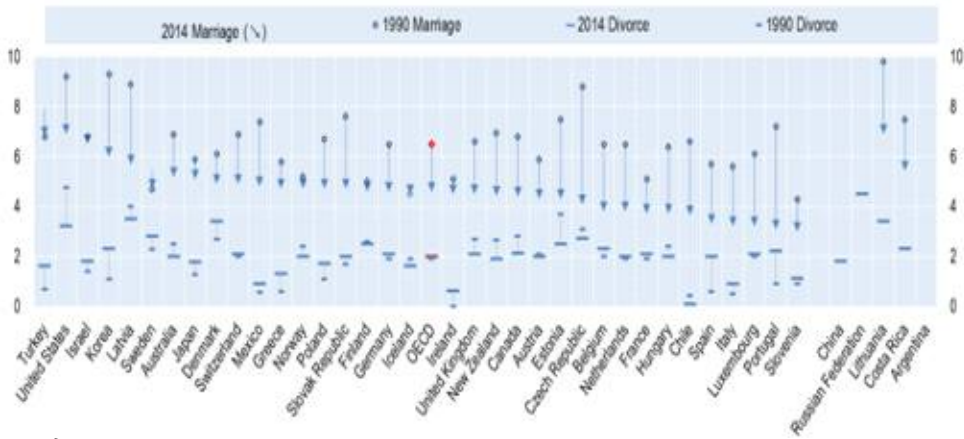
에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가족에 관한 문항의 세대 간 이질성은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2] 혼인 외 자녀의 비율(2014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SF2.4), 출생 시 어머니의 결혼 상태를 바탕으로 함

[그림3-3]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1990, 2014)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에서 세대 간에 이질성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표 3-3]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세부 문항

| 번호 | 분류              | 문항                                             | 척도                  |
|----|-----------------|------------------------------------------------|---------------------|
| ⑧  | 혼인 외 성관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⑨  | 혼인 외 동거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⑩  |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⑪  |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⑫  | 한부모의 자녀 양육      |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 |

### 3.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세대가 실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세대 별로 인식차이의 수준이 어떠한지, 세대 내에서 인식의 공유 정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대의 인식 차이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다르게 관측된다 하더라도, 세대 내의 인식의 편차가 크다면 이는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세대 간 차이와 함께 세대 내의 차이, 다시 말해 세대 내 다양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사노 미사에, 2017). 세대 간 차이도 명확하고 세대 내 차이가 적어야 세대로서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를 활용한다. 세대 간 차이는 세대 간 상이한 평균을 통하여 확인하고 세대 내 다양성은 세대 내의 동의정도의 밀집정도인 표준편차를 통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이런 차이가 세대를 구분할 정도인지 세대를 요인으로 하는 일원분산분석과 본페로니 검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절에서는 한 사회의 균열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에 비하여 세대 간의 이질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격차에 비하여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더 크고 선명하게 나타난다면 세대 균열이 계급의 균열에 비하여 더 공고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균열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통계로 살펴본 결과들이 통계적 검정으로도 증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측되는 차이들이 세대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령의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을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요한 사회 균열로 여겨지는 계층 역시 통제할 계획이다.

## IV. 연구결과

1. 한·일 가족가치와 가족역할, 책임에 관한 조사 결과
2. 세대 균열 현상의 실재성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 IV. 연구결과

다음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역할 그리고 가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와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 후 앞서 선정한 비교지표들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 1. 한 · 일 가족가치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조사대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조사대상은 성별,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비례할당 추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먼저 한국이 남성이 50.5%, 여성 49.5%, 일본은 남성, 여성 50%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대로 구분해보았을 경우 한국의 경우 20대 22.7%, 30대 26.8%, 40대 28%, 50대 2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20대가 20.8%, 30대 27.8%, 40대 26%, 50대 25.4%로 일본이 한국보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9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40%이상이 미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과 일본의 20대 30대 인구가 약 5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만혼, 비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하, 중하 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중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

| 구분            |             | 한국<br>(n=1,000) | 일본<br>(n=500) |
|---------------|-------------|-----------------|---------------|
| 성별            | 남성          | 50.5            | 50.0          |
|               | 여성          | 49.5            | 50.0          |
| 연령대           | 20~29세      | 22.7            | 20.8          |
|               | 30~39세      | 26.8            | 27.8          |
|               | 40~49세      | 28.0            | 26.0          |
|               | 50~59세      | 22.5            | 25.4          |
| 거주 지역         | 도시          | 94.1            | 97.4          |
|               | 농어촌         | 5.9             | 2.6           |
| 결혼 여부         | 미혼          | 41.8            | 42.2          |
|               | 기혼&배우자와 동거  | 53.9            | 49.8          |
|               | 기혼&배우자와 비동거 | 1.6             | .6            |
|               | 동거          | .1              | .4            |
|               | 이혼          | 2.5             | 5.4           |
|               | 사별          | .1              | 1.6           |
| 주관적 경제적<br>수준 | 하           | 12.3            | 18.0          |
|               | 중하          | 41.7            | 26.6          |
|               | 중           | 37.9            | 45.0          |
|               | 중상          | 7.9             | 9.8           |
|               | 상           | .2              | .6            |

## 가. 조사항목

가족가치는 가족가치관의 동의정도(16문항), 가족 내 역할 동의정도(12문항), 노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동의 정도(6문항)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족가치관의 동의정도에서는 가족의 형성 및 확대, 해체 등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족 내 역할 동의정도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동의 정도에서는 부모의 부양(경제적, 비경제적) 및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족(국가)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 자녀교육, 일자리, 노후소득, 노인 돌봄,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주거지마련, 최소생활보장 등 9개의 영역에 대하여 책임에 동의하는 정도



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4-2] 조사문항

| 구분                         | 문항                                                       | 측정    |
|----------------------------|----------------------------------------------------------|-------|
| 가족<br>가치<br>관의<br>동의<br>정도 |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2)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 5점 척도 |
|                            | 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 5점 척도 |
|                            | 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5점 척도 |
|                            | 6)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                                       | 5점 척도 |
|                            | 7)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 5점 척도 |
|                            | 8)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5점 척도 |
|                            | 9)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 5점 척도 |
|                            | 10)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 5점 척도 |
|                            | 11)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 5점 척도 |
|                            | 12)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 5점 척도 |
|                            | 13)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 5점 척도 |
|                            | 14)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15)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16)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평안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 5점 척도 |
| 가족<br>내<br>역할<br>동의<br>정도  | 1)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5점 척도 |
|                            |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 5점 척도 |
|                            |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5점 척도 |
|                            |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6)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7)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일을 하는 것이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 5점 척도 |
|                            | 8)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 5점 척도 |

| 구분                                        | 문항                                                        | 측정    |
|-------------------------------------------|-----------------------------------------------------------|-------|
|                                           | 것이다.                                                      |       |
|                                           | 9)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 5점 척도 |
|                                           | 10)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5점 척도 |
|                                           | 11)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5점 척도 |
|                                           | 12)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5점 척도 |
| 노부<br>모<br>부양<br>및<br>부모<br>의<br>책임<br>정도 | 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5점 척도 |
|                                           | 2)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5점 척도 |
|                                           | 3)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 5점 척도 |
|                                           | 4)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5점 척도 |
|                                           | 5)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5점 척도 |
|                                           | 6)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필요하다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 5점 척도 |
| 가족<br>책임<br>영역<br>동의<br>정도                | 1) 아동 돌봄                                                  | 5점 척도 |
|                                           | 2) 자녀교육                                                   | 5점 척도 |
|                                           | 3) 일자리                                                    | 5점 척도 |
|                                           | 4) 노후소득                                                   | 5점 척도 |
|                                           | 5) 노인 돌봄                                                  | 5점 척도 |
|                                           | 6) 보건의료                                                   | 5점 척도 |
|                                           | 7) 장애인복지                                                  | 5점 척도 |
|                                           | 8) 주거지 마련                                                 | 5점 척도 |
|                                           | 9) 최소생활보장                                                 | 5점 척도 |
| 정부<br>책임<br>영역<br>동의<br>정도                | 1) 아동 돌봄                                                  | 5점 척도 |
|                                           | 2) 자녀교육                                                   | 5점 척도 |
|                                           | 3) 일자리                                                    | 5점 척도 |
|                                           | 4) 노후소득                                                   | 5점 척도 |
|                                           | 5) 노인 돌봄                                                  | 5점 척도 |
|                                           | 6) 보건의료                                                   | 5점 척도 |
|                                           | 7) 장애인복지                                                  | 5점 척도 |
|                                           | 8) 주거지 마련                                                 | 5점 척도 |
|                                           | 9) 최소생활보장                                                 | 5점 척도 |

## 나. 조사결과

다음으로 가족가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조사결과는 가족가치관의 동의 정도,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부양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조사결과는 동의 정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과 5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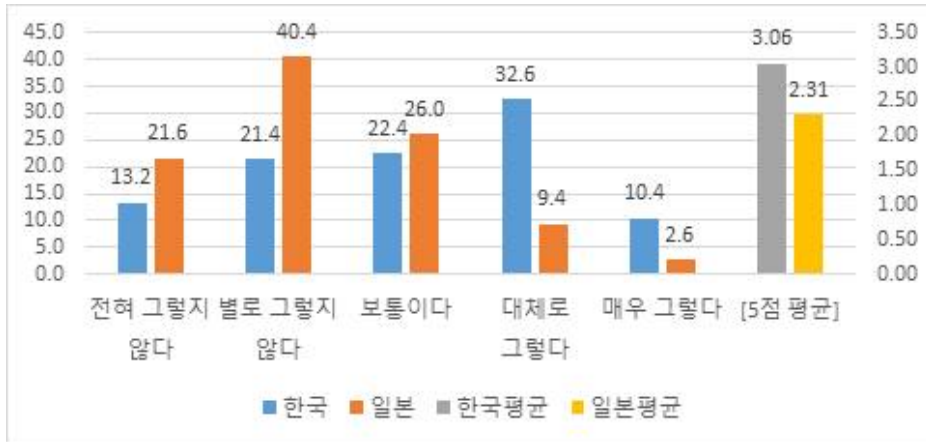
### 1) 가족가치관 동의 정도

####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음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동의정도가 3.06으로 2.31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분포 역시 한국의 경우 위 의견에 동의(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한 비율이 약 4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들은 가족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데 만혼과 비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본 결과는 한국도 비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비혼이 상당히 진행된 일본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림 4-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가에 대한 동의 수준



## (2)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다음은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평균이 3.54점으로 2.29점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약 62%에 이르지만 일본은 약 10%에 미치고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큰 문항으로 동의 비율 차이가 50%p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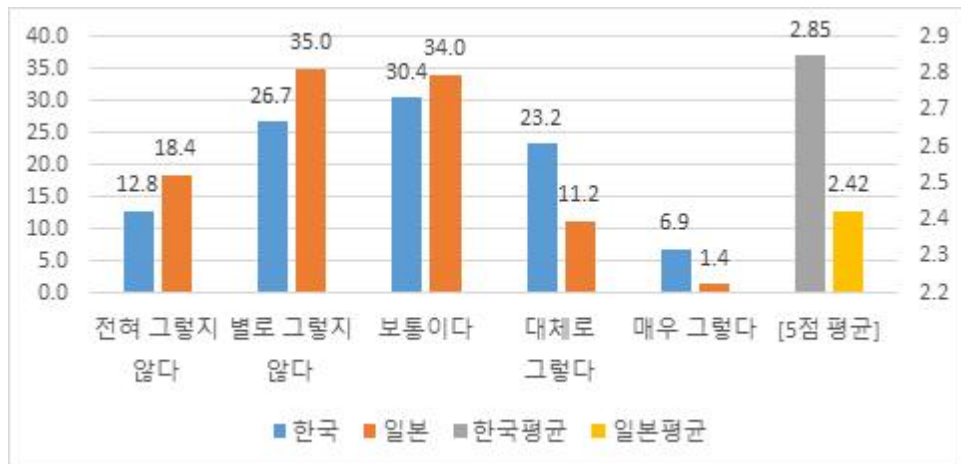
[그림 4-2] 동질혼에 대한 동의 수준



### (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정도이다.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동의 정도는 다른 문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85의 수준을 보이고 일본은 그보다 낮은 2.42로 나타나고 있다. 동의수준 역시 한국의 경우 약 30%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12.6%에 그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문항과 함께 비혼과 만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며 문항(2)를 통하여 살펴본 동질혼의 경향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도 찾아볼 수 있어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4-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



### (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다음은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3.26으로 2.61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항에 동의한 비율 역시 한국의 경우 48%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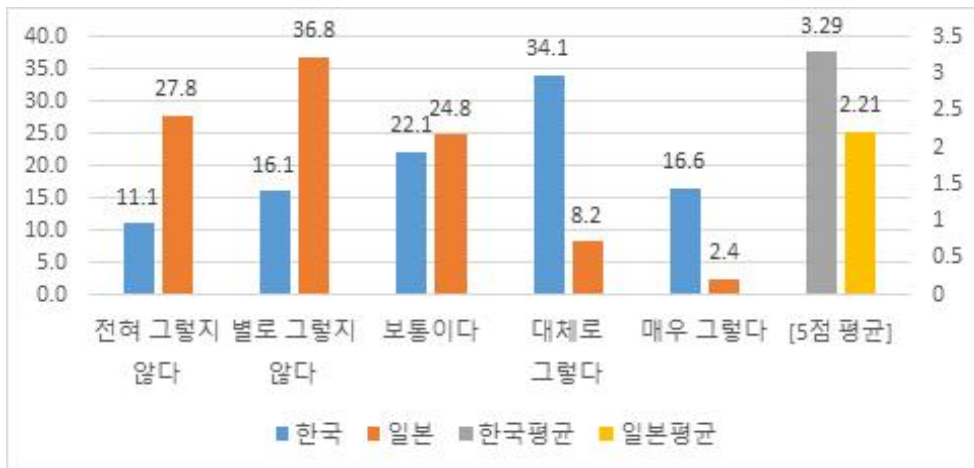
[그림 4-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



#### (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은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한국의 동의정도는 3.29로 2.21을 보인 일본의 동의정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동의(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50.7%로 동의하지 않은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27.2%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동의 비율은 10.6%로 동의하지 않은 비율 64.6%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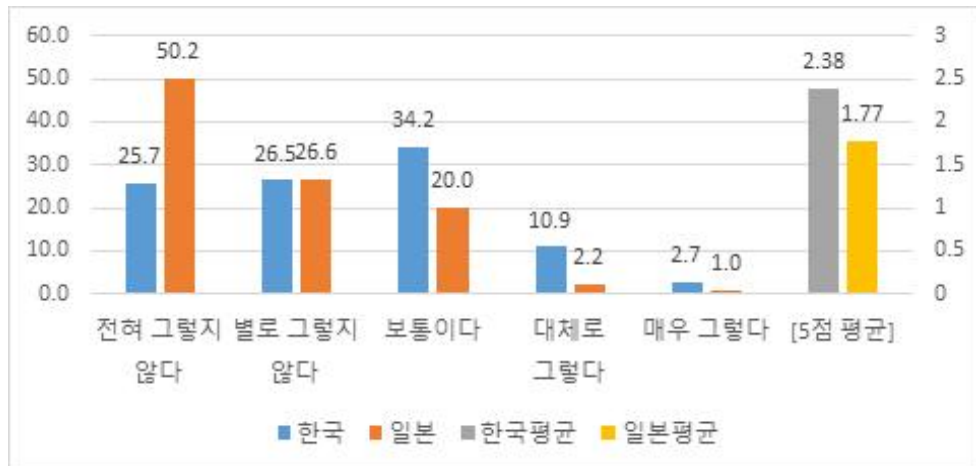
[그림 4-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



#### (6)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

다음은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녀를 입양할 의향에 한국은 2.38점, 일본은 1.77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혼 제도를 벗어나 가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 일본 모두 가족가치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양에서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림 4-6] 자녀 입양 의향에 대한 동의 수준



#### (7)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다음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평균 3.13으로 3.09점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의비율 역시 한국의 경우 약 40%, 일본의 경우 약 33%로 한국의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끈으로 역할을 하던 기존의 가족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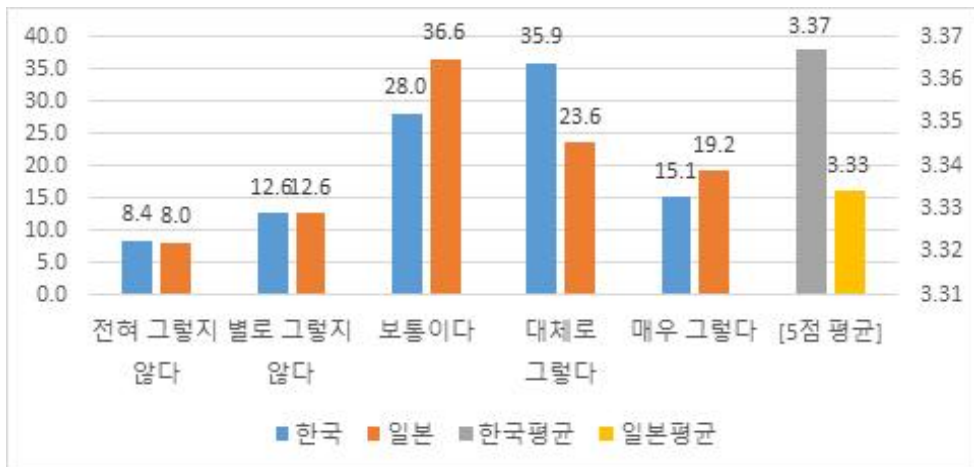
[그림 4-7] 유자녀 이혼에 대한 동의 수준



(8)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본 문항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51%가 동의하고 평균 3.37을 보였고 일본의 경우 42.8%가 동의 의견을 보였으며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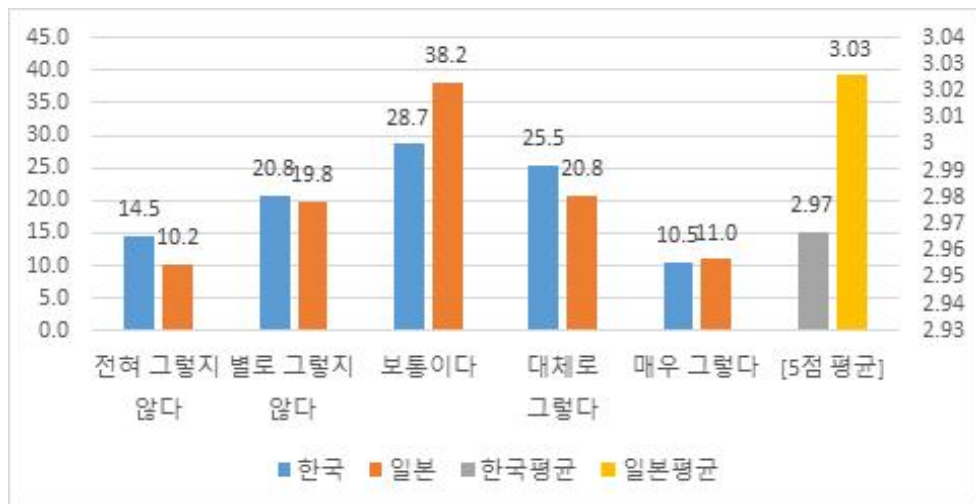




### (9)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다음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 위 문항에 대한 동의의견을 보인 비율은 36%에 그쳤고 일본의 경우에도 31.8%에 그치고 있다. 평균으로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2.97점으로 3.03점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외 다양한 파트너 선택이 인정되는 서양 국가들에 비하여 동거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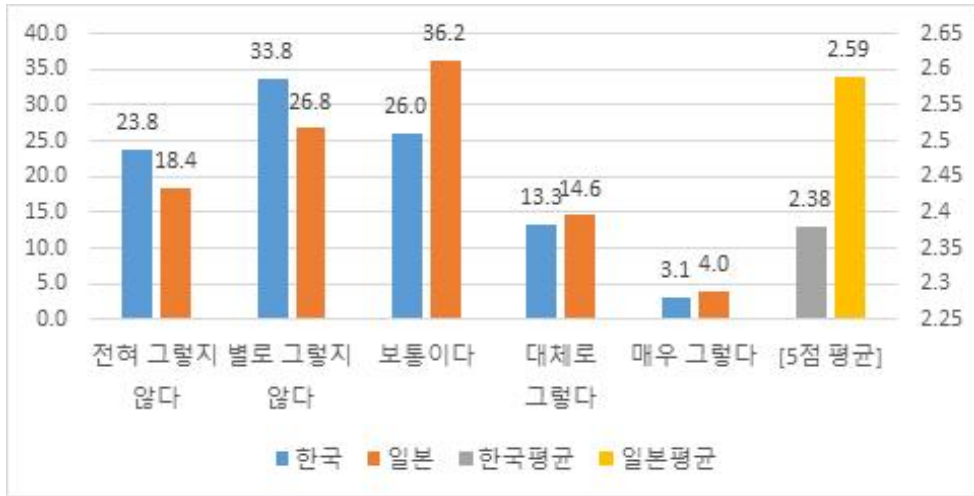
[그림 4-9] 결혼 전 동거에 대한 동의 수준



### (10)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다음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동의 비율이 16.4%, 일본의 경우 18.6%로 20%에 이르지 않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이 2.38점, 일본이 2.59점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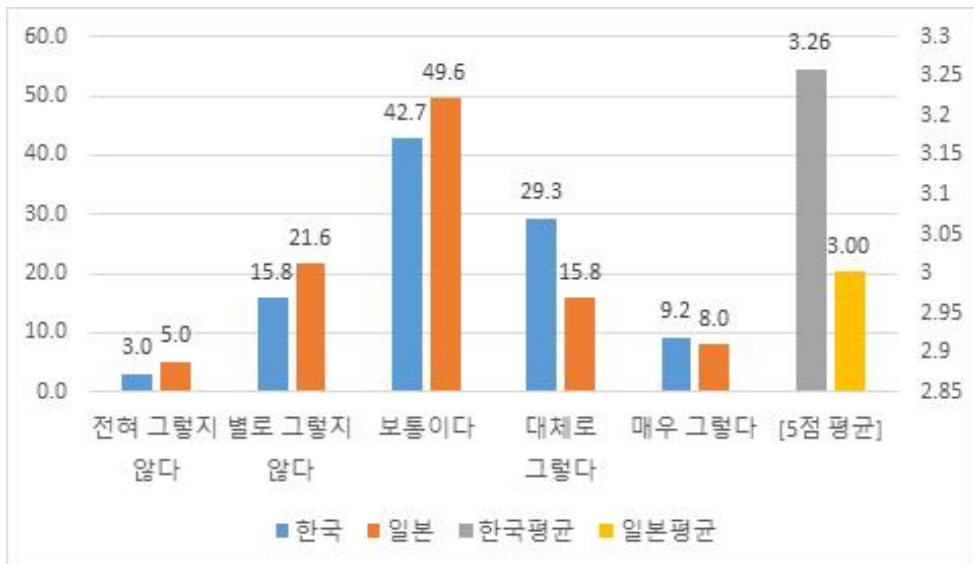
[그림 4-10] 결혼 전 출산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 (11)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개인의 성취를 더 중시하는 비율은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 문항에 동의를 표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38.5%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 23.8%만이 결혼보다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림 4-11] 결혼보다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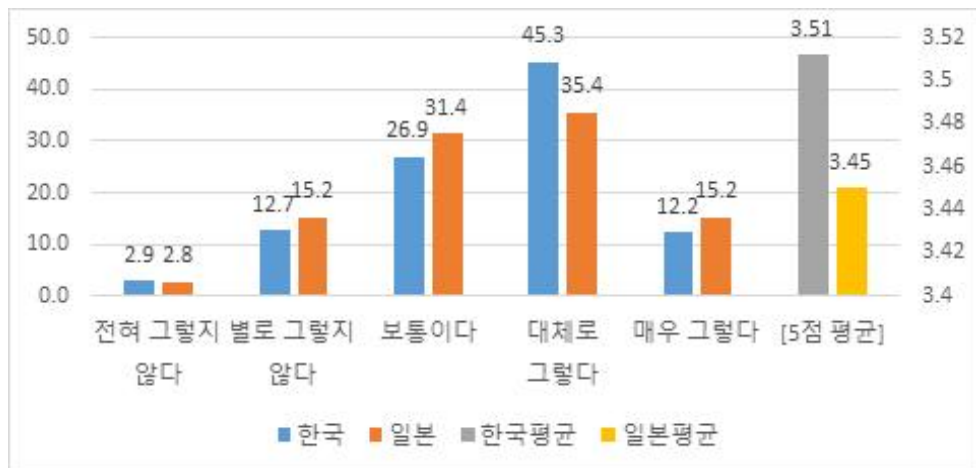


### (12)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다음은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먼저 동의정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57.5%가 생활에 구속을 받는 것에 동의를 했고 일본의 경우 50.6%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3.51점으로 3.45점을 보인 일본보다 동의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일본의 경우 가족 가치조사에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인 문항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본의 만혼이나 비혼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 결혼을 하면 생활이 구속 받는다에 대한 동의수준



### (13)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다음은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정도이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68%가 일본의 경우 37.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국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3.80점으로 3.27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의 중요도에 대한 동의수준



#### (14)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다음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본다. 본 문항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60.4%가 동의를 보인 반면 일본의 경우 17.2%만이 동의를 보여 격차를 보여주었다. 평균으로 살펴봐도 한국의 경우 3.72점으로 2.74점을 보인 일본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4]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



**(15)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32.7%가 동의를 나타냈고 일본은 12.4%만이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 5점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의 경우 3.07점으로 2.52점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4-15] 자식은 부모의 명예에 노력해야 한가에 대한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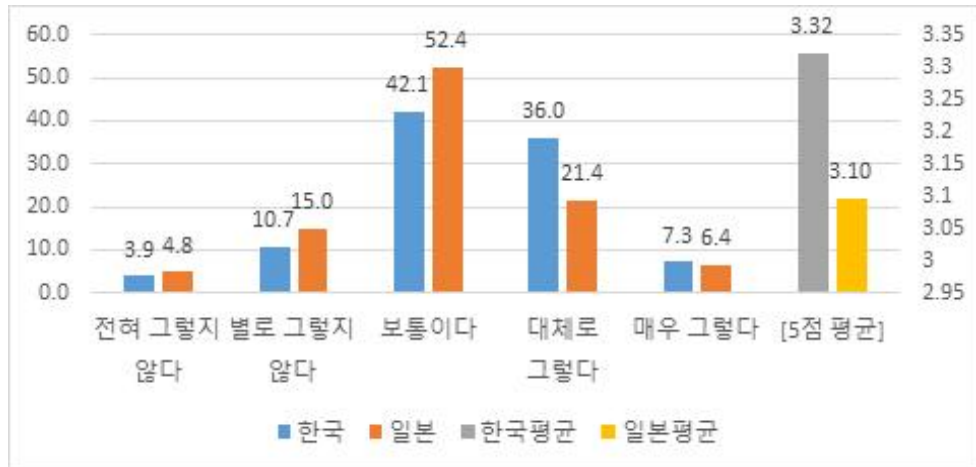


**(16)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평안과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한다.**

다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평안과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43.3%가 일본의 경우 27.8%가 동의의견을 나타냈다. 평균 차이는 크지 않으나 한국이 3.32점으로 3.10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항과 함께 본 문항은 개인보다는 집안의 명예를 우선시 하는 유교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이다. 조사결과 아직까지도 상당히 유교적 영향력이 지배력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서 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림 4-16] 가족 우선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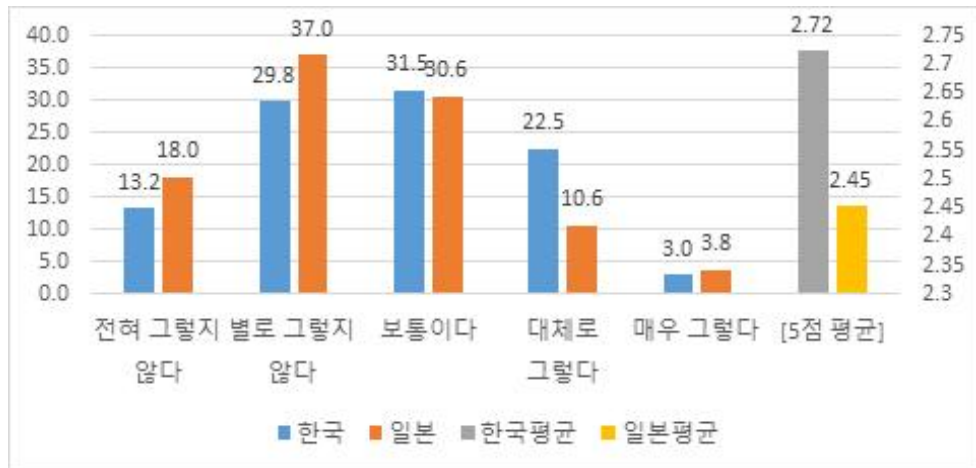
## 2) 가족 내 역할 동의정도

### (1)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음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25.5%, 일본의 경우 14.4%만이 성별분업에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점수도 한국의 경우 2.72, 일본의 경우 2.45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며 널리 퍼진 가치 중의 하나는 성별 평등의 가치이다. 성별 평등에 대한 동의가 높으면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성별 평등 혹은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음은 세대 간 혹은 성별간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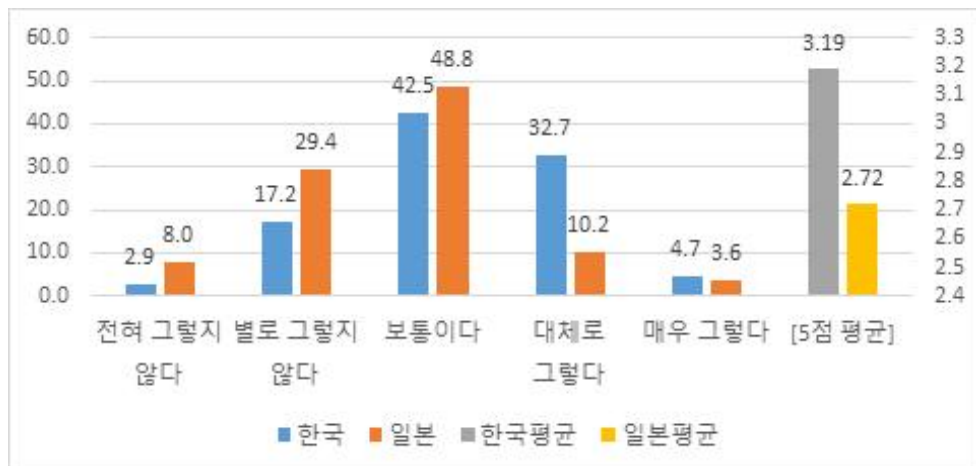
[그림 4-17] 남녀분업에 대한 동의 수준



##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다음은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 37.4%가 일본의 경우 13.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역시 한국이 3.19점으로 2.72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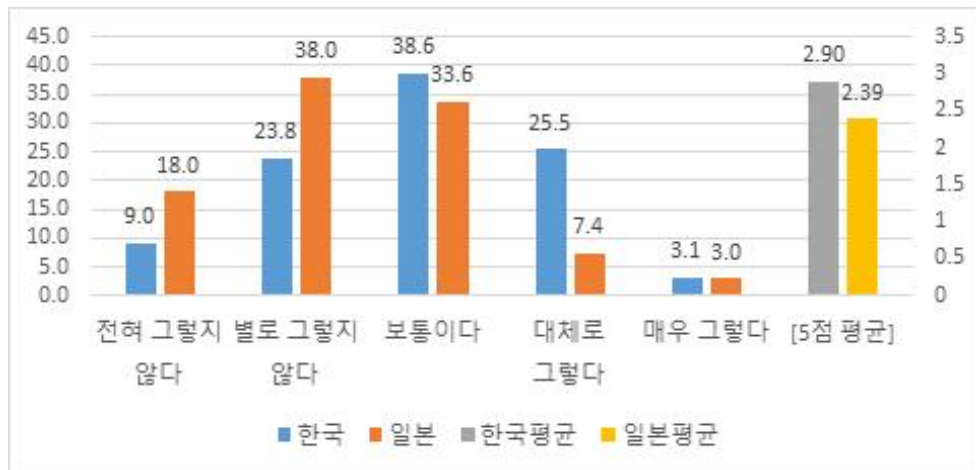
[그림 4-18] 여성취업과 부부평등에 대한 동의 수준



###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은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본다. 위 문항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38.6%가 동의의견을 보인 반면 일본은 10.4%만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점수 역시 한국이 2.90점, 일본이 2.39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러한 가족 내 역할 동의정도에서 가장 낮은 동의정도를 보인 결과이다.

[그림 4-19] 자녀 취학 전 여성의 취업 영향에 대한 동의 수준



###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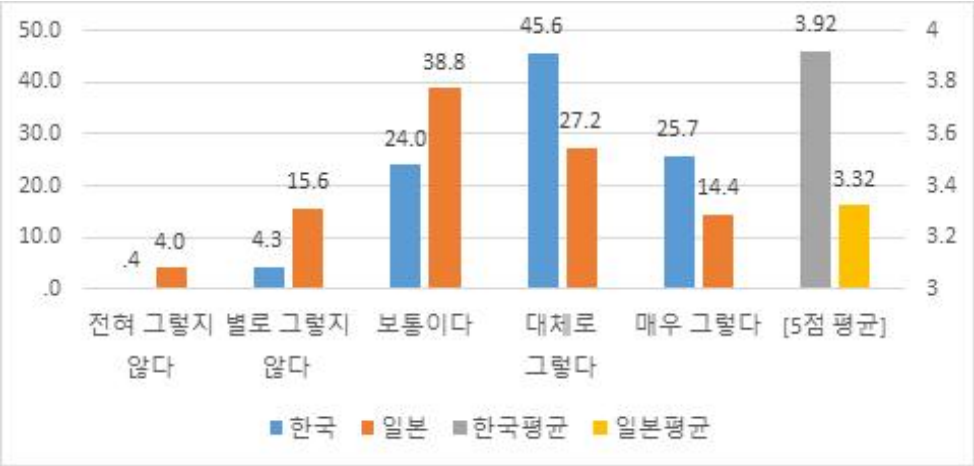
다음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맞벌이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40%정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평균으로 살펴볼 때도 한국의 경우 3.92점으로 3.32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위의 조사결과는 한국의 경우 가족가치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인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성별 역할에 구분 보다는 공평한 분담에 높은 동의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여전히 남성의 집안일에 대한 분담



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와 의식간의 차이로 인하여 분담되지 않는다면 세대간, 성별 간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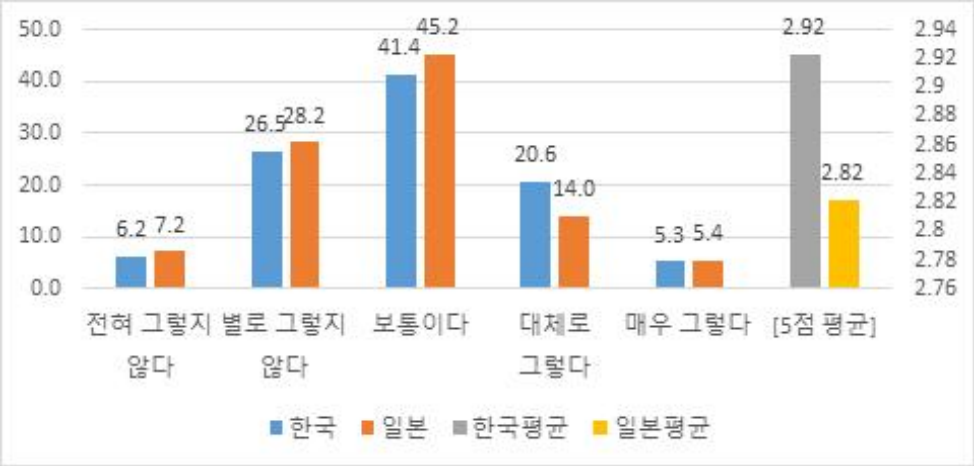
[그림 4-20] 맞벌이 부부의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본 문항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25.9%, 일본의 경우 19.4%가 동의 의견을 보였다. 평균점수는 한국이 2.82점으로 나타난 일본보다 소폭 높은 2.92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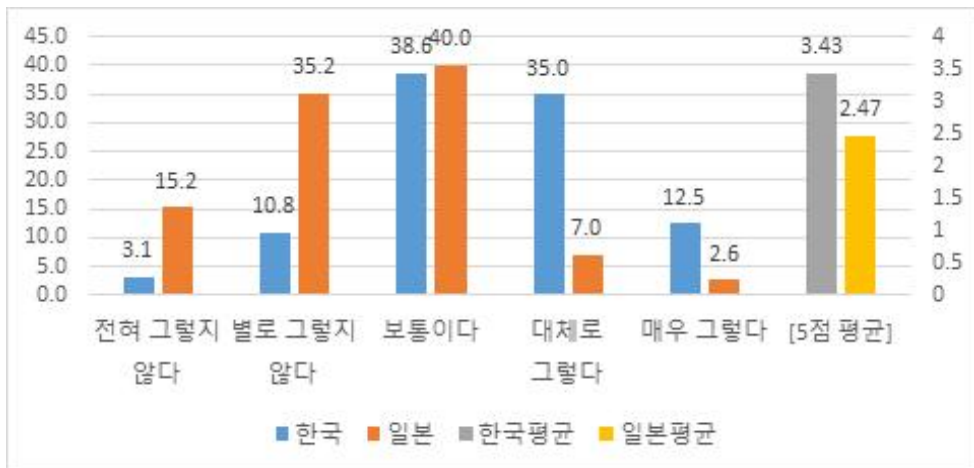
[그림 4-21] 부부 수입 개별 관리에 대한 동의 수준



**(6)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다음은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주택명의로 공동명의로 대하여 한국의 경우 37.5%, 일본의 경우 9.6%의 동의를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3.43점으로 2.47점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4-22] 주택 부부공동명의로에 대한 동의 수준



**(7)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일을 하는 것이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일을 하는 것이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동의정도이다.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3.02점으로 2.69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 모두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동의로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24%, 일본은 10.6%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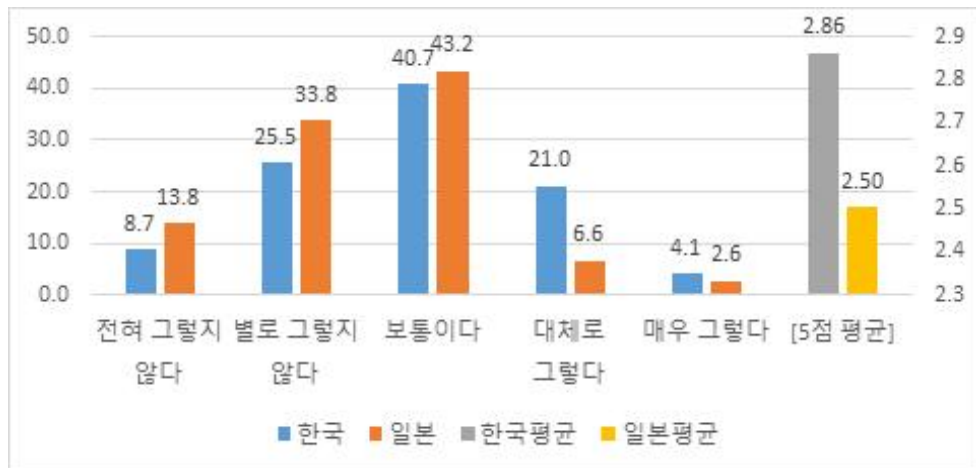
[그림 4-23] 여성 취업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동의 수준



**(8)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다음은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한국, 일본 모두 평균 3점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의수준역시 한국은 약 25%, 일본은 약 9%에 그치고 있어 위 문항에 대한 동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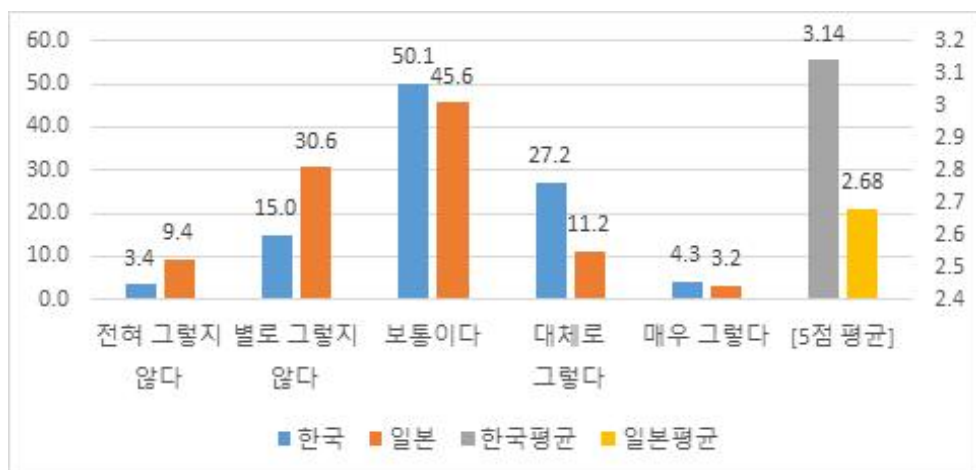
[그림 4-24] 여성이 원하는 것은 취업보다는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9)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

다음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위 문항에 대한 한국의 동의도는 3.14점으로 2.68점을 보인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동의에 의견을 나타낸 비율 역시 한국이 약 31%, 일본 약 14%로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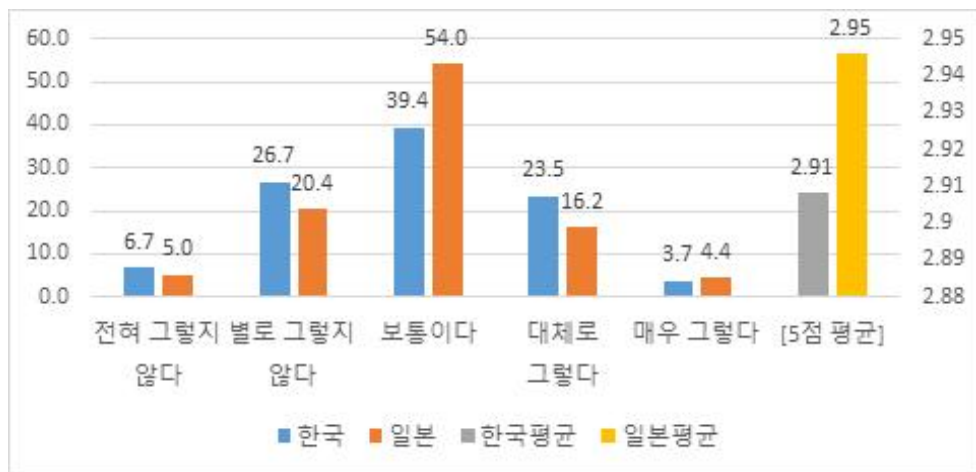
[그림 4-25] 맞벌이에 대한 동의 수준



**(10)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다음은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동의정도를 살펴본다. 한부모도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에 한국, 일본 모두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를 보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2.91점으로 2.95점을 보인 일본보다도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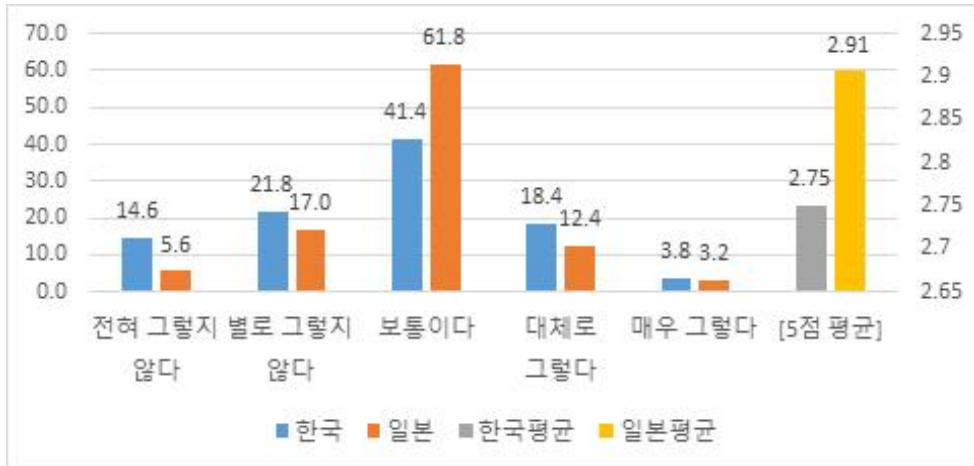
[그림 4-26]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11)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다음은 동성 여성 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본다. 동성 여성 부모 역시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국은 2.75점, 일본은 2.91점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립적인 의견이 다수인 반면 한국의 경우 동의비율(22.2%)보다 반대비율(36.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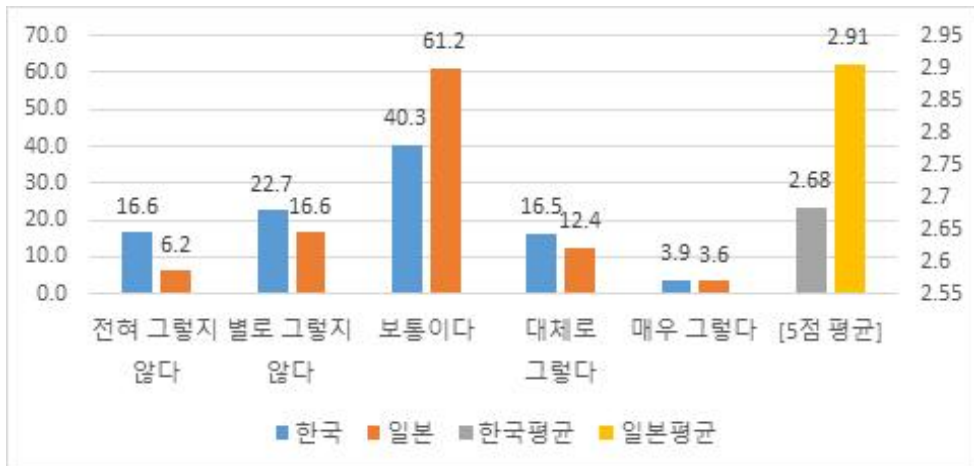
[그림 4-27] 동성 여성 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12)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성인 남성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본다.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의견에 일본의 경우 61.2%가 ‘보통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동의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지만 반대의견을 보인 비율도 낮아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그림 4-28] 동성 남성 부모의 양육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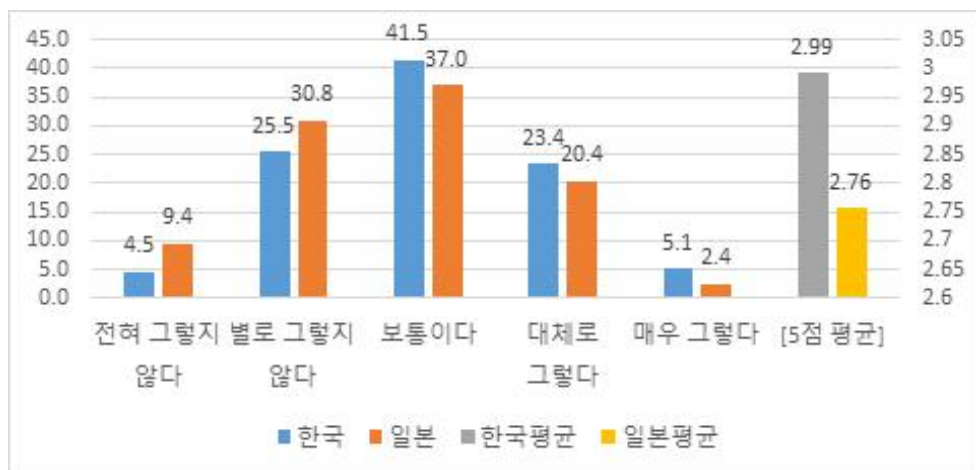
(10)~(12) 문항은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 중 한부모에 대한 의견과 동성부모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동의 내지 수용정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형적인 가족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대안적 가족의 모습도 나타나고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의 가족도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족의 모습이 변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가족의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떨어져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3) 노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동의 정도

#### (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다음의 그림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응답결과를 요약한 그림이다. 부모 부양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28.5가 일본의 경우 22.8%가 동의의견을 나타냈다. 평균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 2.99점을 나타냈고 일본의 경우 2.76점을 나타내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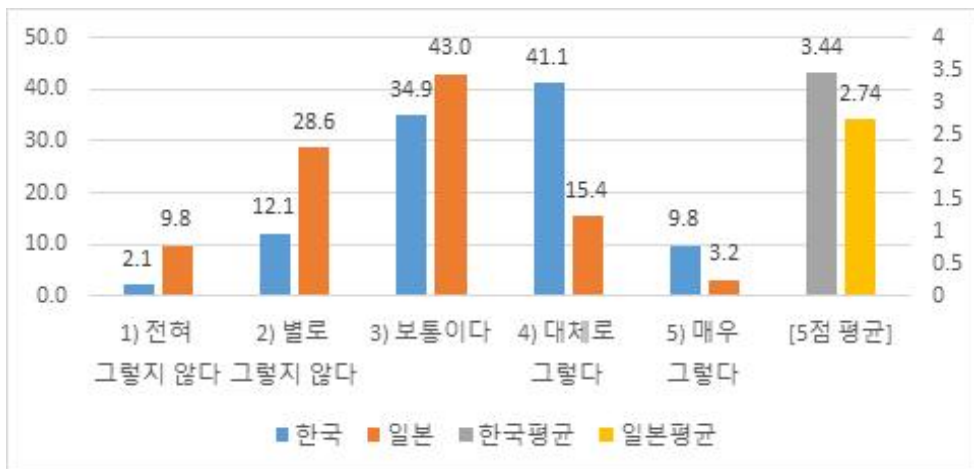
[그림 4-29] 노부모 부양(동거)에 대한 동의 수준



## (2)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다음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아래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0% 이상이 경제적 부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 18.6%만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은 3.44점을 보였으나 일본은 2.74점에 그쳤다.

[그림 4-30]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관한 동의 수준



## (3)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노부모 돌봄에 있어서 자식의 성별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먼저 딸도 아들과 똑같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국은 상당히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63%가 위 문항에 동의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응답자의 21.4%만이 위 문항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도 한국의 3.68점보다 낮은 2.8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자식의 성별에 따른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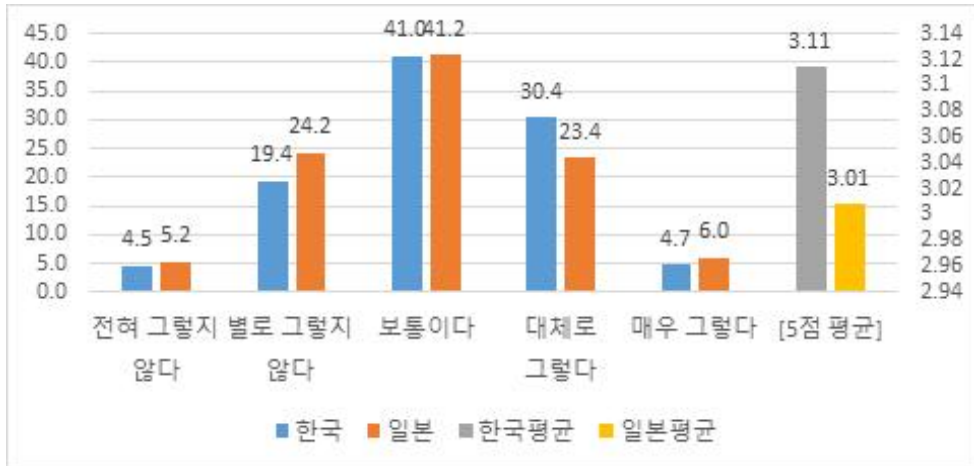


(1)~(3) 문항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가치 중 하나인 효에 관한 문항이다. 한국의 경우 나이든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동의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과거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가치에서는 상당부분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동의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지원 보다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동의도가 소폭 높게 나타났고 자식의 성별에 따른 돌봄에는 동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문항을 살펴본다. 먼저 아래의 그림은 부모의 책임 중 대학교육비에 관한 응답결과이다. 먼저 본 문항에 동의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국: 3.11점, 일본: 3.01점). 동의의견을 보인 비율 역시 한국이 35.1%로 29.4%를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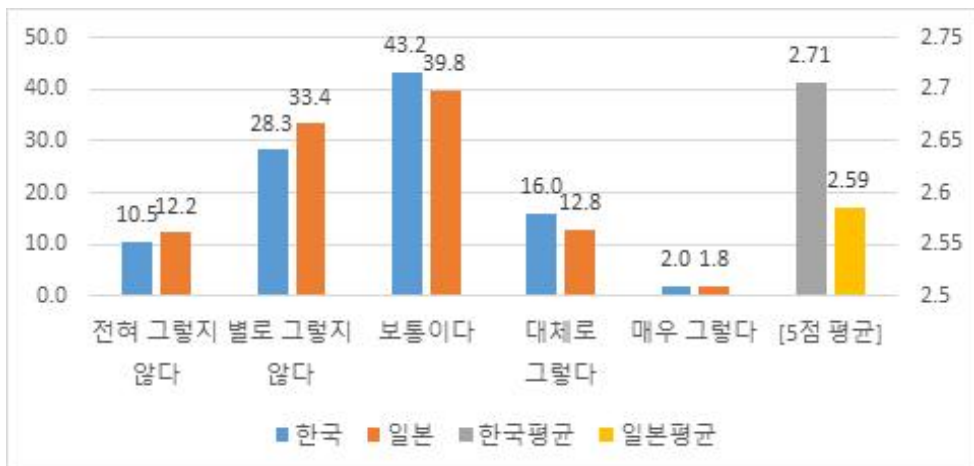
[그림 4-32] 대학교육비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5)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다음으로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모가 혼수, 신혼집 마련 등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동의한 비율이 한국과 일본 양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18%, 일본 14.6%). 평균점수 역시 한국의 경우 2.71점, 일본 2.59점으로 나타나 타 문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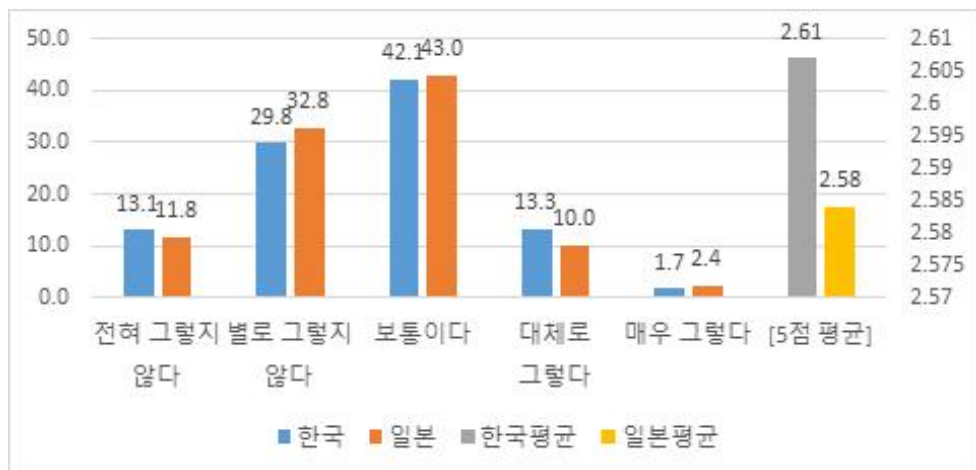
[그림 4-33] 결혼준비 비용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6)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필요하다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마지막으로 손자녀 돌봄 등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책임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책임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한국 2.61점, 일본 2.58점으로 부양 및 책임의식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동의정도 역시 한국은 15%, 일본은 12.4%에 그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가족 내 역할 동의도를 나타내는 문항 중 가장 낮은 동의도를 보인 결과이다.

[그림 4-34] 결혼 후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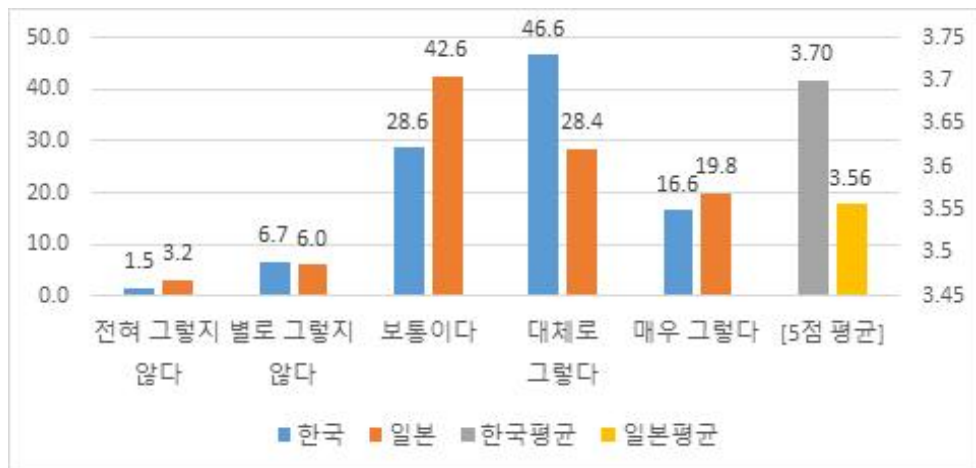


#### 4) 가족 책임 영역 동의 정도

##### (1) 아동 돌봄

다음의 [그림 4-35]는 아동 돌봄 영역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동의의견을 보인 비율이 61%에 일본은 48%에 이르고 있다.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한국 약 7%, 일본 9%정도로 동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3.70점, 일본 3.56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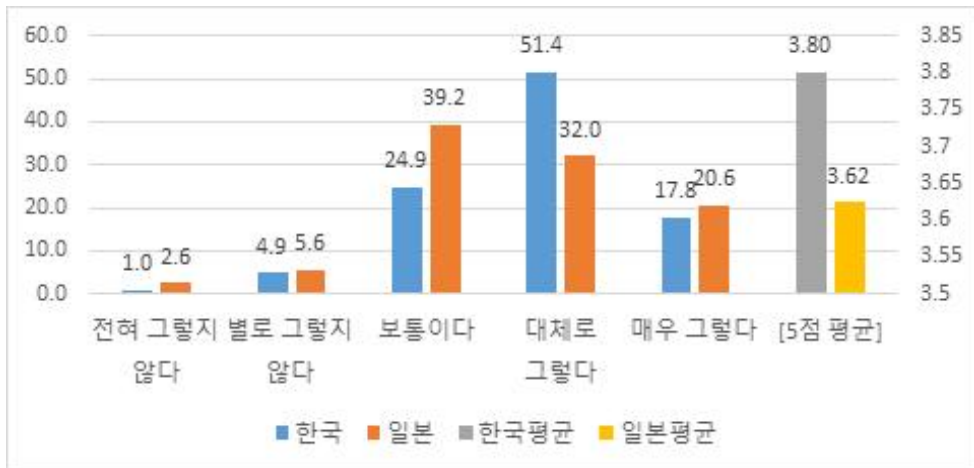
[그림 4-35] 아동 돌봄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2) 자녀교육

다음은 [그림 4-36]은 자녀교육에 대한 가족책임의 동의 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동의정도는 한국이 3.80점으로 3.62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동의의견을 보인 비율 역시 한국이 69.2%로 52.6%를 보인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두 국가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일본 모두 9개 분야 중 가족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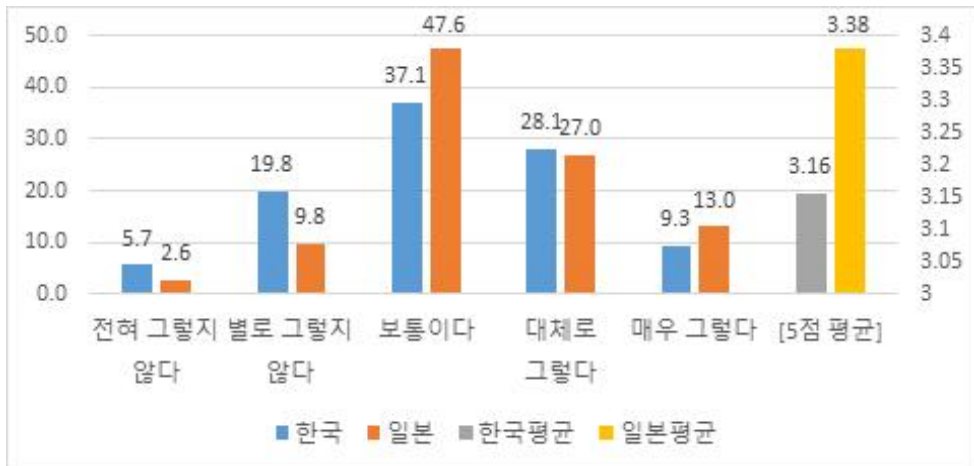
[그림 4-36] 자녀교육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3) 일자리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가족책임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37]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일자리에 대한 가족책임 동의정도에 대하여 일본이 3.38점으로 3.16점을 보인 한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동의 비율 역시 40%로 37.4%를 보인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4-37] 일자리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4) 노후소득

다음 [그림 4-38]은 한국과 일본의 노후소득에 대한 가족책임 영역 동의 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의 경우 3.41점으로 3.18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보통이다' 의견을 보인 비율이 53.2%로 높은 반면 한국은 약48%가 동의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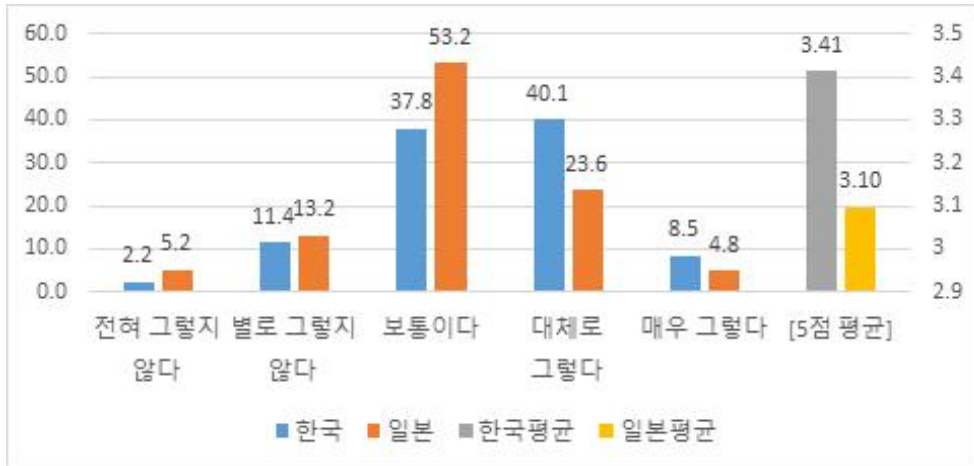
[그림 4-38] 노후소득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5) 노인 돌봄

다음은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39]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3.41점, 일본의 경우 3.10점으로 한국이 노인 돌봄의 가족책임에 대하여 일본보다 높은 동의정도를 보이고 있다. 분포를 살펴봐도 동의의견을 보인 비율이 한국이 48.6%, 일본은 28.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정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결과로 노인 돌봄 대한 양국가 국민들의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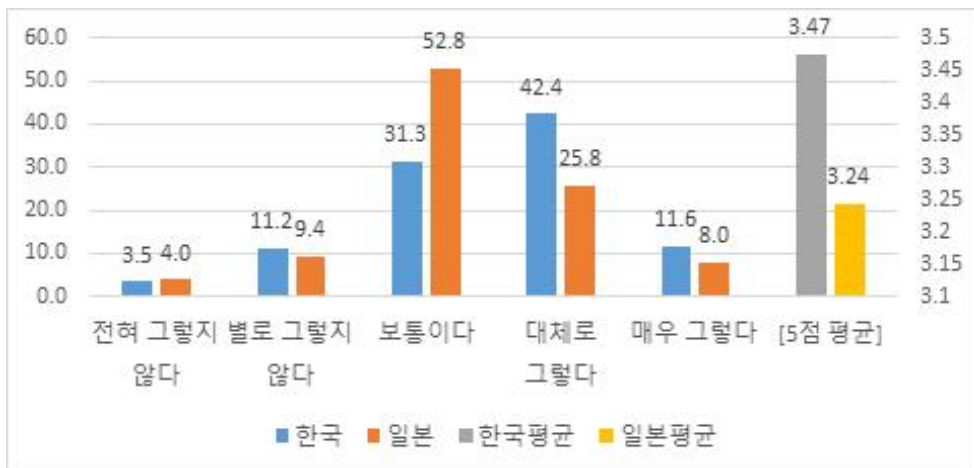
[그림 4-39] 노인 돌봄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6) 보건의료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가족책임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보건의료의 가족책임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3.47점으로 3.24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의비율의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자의 54%가 동의에 비율을 보인 반면 일본은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이 '보통이다'를 선택해 두 국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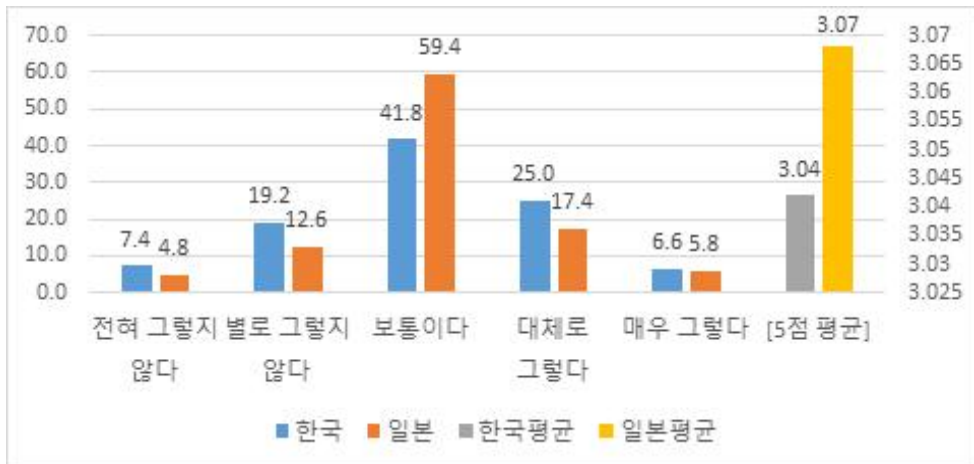
[그림 4-40] 보건의료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7) 장애인복지

다음의 [그림 4-41]은 장애인복지 영역에 대한 가족 책임 동의 정도에 대한 분포와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다.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3.04점, 일본 3.07점으로 일본이 소폭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동의정도에 대하여 한국이 31.6%로 23.2%를 보인 일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일본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한국보다 낮고 조사대상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이다'에 의견을 보여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공통으로 9개 분야중 가족의 책임 중 가장 낮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그림 4-41] 장애인복지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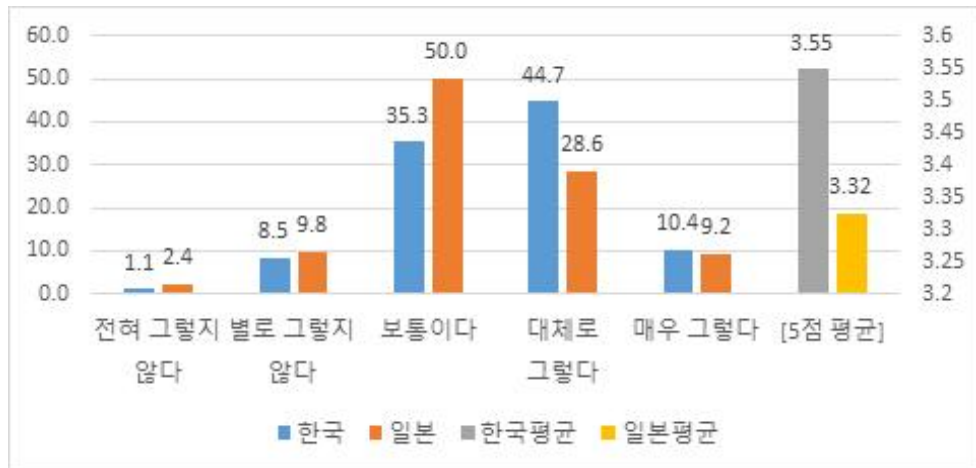


## (8) 주거지 마련

다음으로 주거지 마련의 가족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42]는 주거지 마련에 대한 가족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한국의 경우 3.55점을 보여 3.32점을 보인 일본보다 주거지 마련에 있어 가족 책임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55.1%가 동의 의견을 보인 반면 일본은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보통이다'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고 37.8%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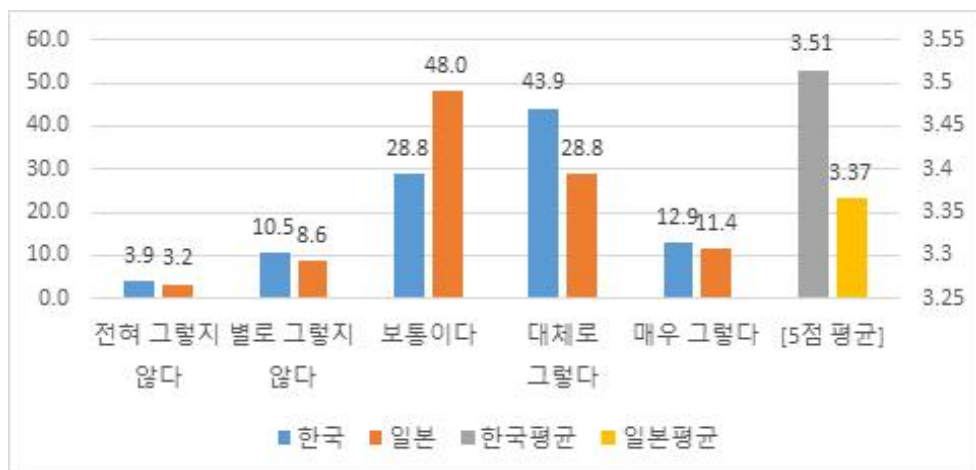
[그림 4-42] 주거지 마련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9) 최소생활 보장

다음으로 최소생활보장에 대한 가족책임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최소생활보장에 대한 가족책임에 56.8%가 동의를 보였고 일본의 경우 40.2%가 동의의 견을 보였다.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3.51점으로 일본에 비하여 최소생활보장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3] 최소생활보장의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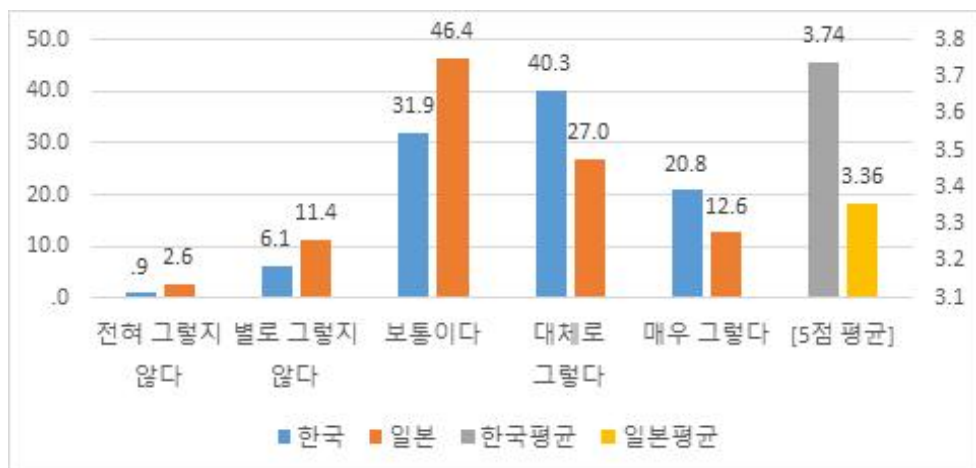


## 5) 정부 책임 영역 동의 정도

### (1) 아동 돌봄

다음은 아동 돌봄 영역에 대한 정부책임에 동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동 돌봄이 정부책임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61.1%가 동의의 의견을 나타낸 반면 일본의 경우 39.6%만이 동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3.74점으로 3.36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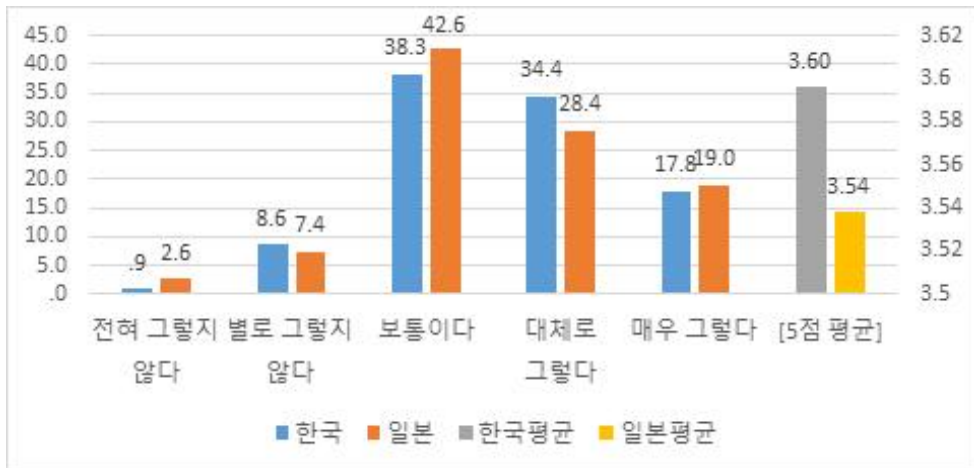
[그림 4-44] 아동 돌봄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2) 자녀교육

다음의 [그림 4-45]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분포와 평균을 나타낸 표이다. 한국 3.60점, 일본 3.54점으로 두 국가 모두 3.5점을 넘어서는 동의도를 보이고 있다. 동의비율의 경우 한국이 52.2%, 일본 37.4%를 보이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두 국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9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인 문항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이 닿아 있다 할 것이다.

[그림 4-45] 자녀교육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3) 일자리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동의비율이 81.5%로 나타났고 평균 4.18점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책임에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3.23점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절반정도가 보통이다에 의견을 보이고 동의의견을 보인 비율은 조사대상의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평균으로 살펴볼 때, 0.95p 차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동의 정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최근 청년 계층 등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라는데 동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림 4-46] 일자리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4) 노후소득

다음은 노후소득에 대한 정부책임 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한국이 3.85점으로 3.52점을 보인 일본보다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동의 비율 역시 한국의 경우 65%를 상회한 반면 일본은 50%에 이르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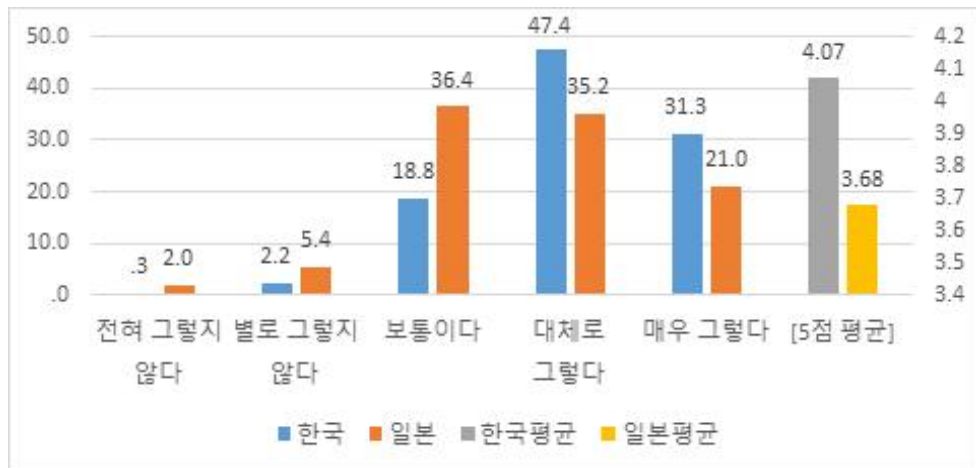
[그림 4-47] 노후소득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5) 노인 돌봄

다음은 노인 돌봄 대한 정부책임 동의 정도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4.07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동의비율 역시 78.7%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3.68점으로 조사대상의 56.2%가 노인 돌봄 정부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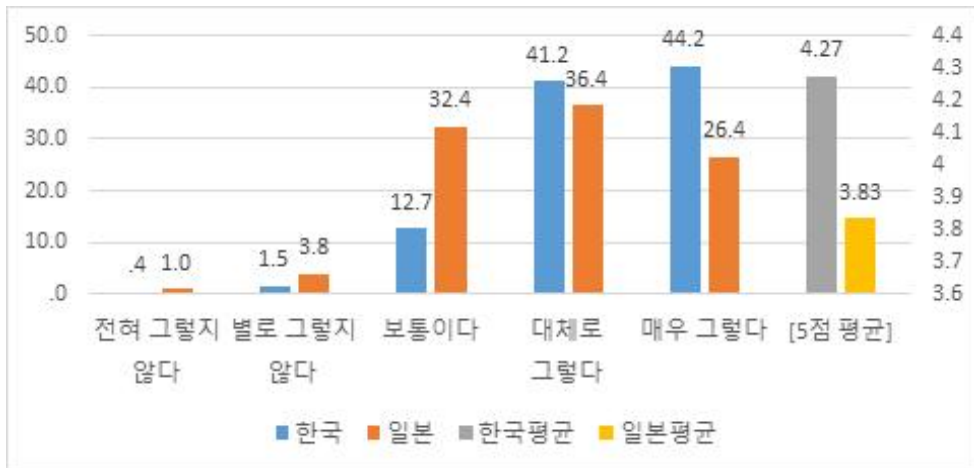
[그림 4-48] 노인 돌봄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6) 보건의료

다음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책임 동의정도를 살펴본다. 한국과 일본 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 조사 대상의 85%가 넘는 사람들이 보건의료분야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를 나타냈고 일본의 경우 62.8%가 보건의료분야의 정부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평균점수가 4.27점, 일본의 경우 3.8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은 일본의 경우 국가책임 동의 정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본인들은 보건의료의 국가책임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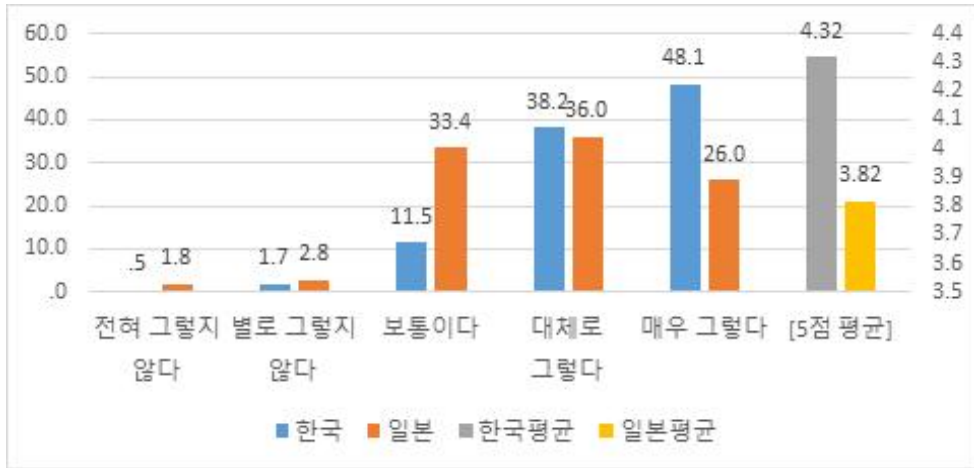
[그림 4-49] 보건의료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7) 장애인복지

다음의 [그림 4-50]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동의정도에 대한 분포와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장애인복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동의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6% 이상이 일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2% 이상이 장애인 복지가 국가의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평균 역시 한국의 경우 4.32점으로 국가책임동의 정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일본은 3.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복지 영역에 대한 가족책임 동의수준이 가장 낮은 것과 동일한 맥락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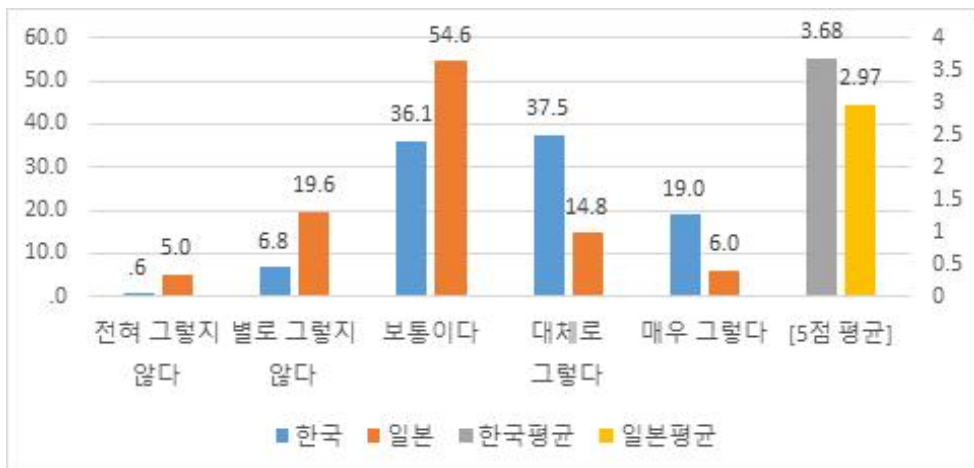
[그림 4-50] 장애인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8) 주거지 마련

다음으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평균의 경우 한국이 3.68점, 일본이 2.97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동의비율 역시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56.5%가 정부책임이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일본은 20.8%에 그쳤고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이다’에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9개 영역 중 정부의 책임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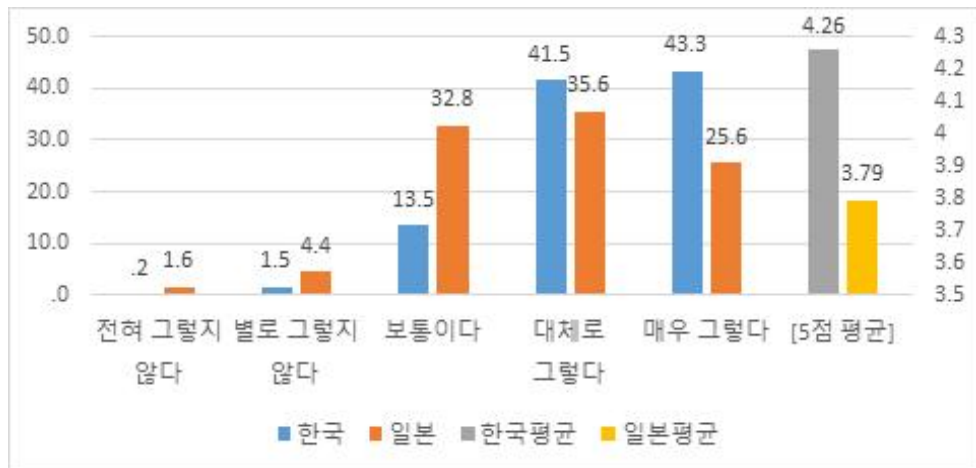
[그림 4-51] 주거지마련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9) 최소생활 보장

다음으로 최소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동의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4.8%가 동의의견을 보여 4.26점으로 나타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60.2%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역시 3.79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52] 최소생활보장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



### 다. 소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및 역할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는 가족가치관의 동의정도, 가족 내 역할 동의 정도, 노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정도, 가족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가치관의 동의 정도의 경우 한국은 2.38~3.80점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이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양의향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77~3.45점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결혼이 개인의 생활을 구속한다는데 가장 높은 동의를 나타냈고 입양의향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였다.

가족 내 역할 동의 정도의 경우 한국은 2.68~3.92점의 분포를 보였다.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문항은 맞벌이의 경우 가사에 대한 공평분담이었으며 동성부모(남)에 대한 수용에 있어 가장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2.39~3.32점의 분포를 보였다. 맞벌이 가사 공평분담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취학 전 여성이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가장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정도의 경우 한국은 2.61~3.68의 분포를 일본의 경우 2.58~3.01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아들, 딸 동일하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 대학등록금 지원에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동의정도를 보인 문항은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후 지원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가족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전반적 동의 수준이 일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성별 분업보다는 양성간 평등에 관한 문항에서 동의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인들보다도 양성평등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동의수준이 높음에도 현실에서는 젠더 간 충돌이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동의수준에서 젠더 간 격차가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여전히 낮은 한국 남성의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할 때, 여성들에 대한 과부하 내지 성별 간, 세대 간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은 경우 결혼과 관련된 전통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결혼관, 자녀관 등에서 한국보다 낮은 2점대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혼전 동거나 비혼 출산, 동성부모에 대한 동의정도 등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높은 동의수준과 수용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30년 정도 앞서 2차 인구변천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족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한 조사의 경우 먼저 가족의 책임에 대한 동의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평균 3.04~3.80의 동의정도를 보였고 일본의 경우 3.07~3.62점의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가족의 책임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영역은 자녀교육영역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영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양 국가의 동의도를 영역별로 비교해 볼 때, 일자리영역과 장애인복지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정부 책임 동의 정도는 한국 3.60~4.32 점으로 나타나 가족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보다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2.97~3.82점의 동의 정도를 보여 영역에 따라 동의 정도의 차이가 한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족책임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낮았던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가장 높은 정부책임 동의정도를 보였고 일본의 경우 최소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일본은 주거지 마련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양 국가 동의도를 영역별로 살펴볼 때 전 영역에 걸쳐서 한국이 일본보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체로 가족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자녀교육의 경우 가족의 책임이 국가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동 돌봄, 자녀교육, 일자리 주거지마련은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정부책임인식과 가족책임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청년고용, 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소생활보장영역이 정부와 가족의 책임의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가족 범위와 가족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가족가치는 결혼관, 성역할, 부양의식 등 다양한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또한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은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일정한 결과를 얻고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에 대하여는 위의 결과로는 추론해 낼 수 없다. 위 문항들에 대한 연령 별, 세대별 분석 등 심층 분석을 통하여 가치의 차이와 갈등의 양상 등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 일본 세대 균열 현상의 실재성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 가. 인식 수준과 결집도

#### 1) 도구주의적 가족관

##### (1) 동질혼: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다음은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문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구분에 따른 결과이다. 장경섭(2001)에 의하면 도구주의적 가족관을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세대 간 계층이동의 기회를 노리는 현상이다. 반면 에드워드 쇼터(1975)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로맨스 혁명을 근대가족의 핵심조건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로맨스 혁명은 결혼의 선택이 집안의 결정보다는 개인의 결정으로 가족이 정서적·규범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우에노 치즈코, 1994). 본 문항은 로맨틱한 감성적 결혼이 우위에 이르고 있는지 부르디외(1979)가 언급한 것처럼 결혼이 사회적 자원의 최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도구주의적 성격이 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본 문항을 통해 집안배경, 경제수준이 비슷한 집단끼리 결혼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한 세대 간 계층이동의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동질혼의 비중은 소득불균형과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국과 같이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이 적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처럼 가족의 부양책임을 인정하는 사회제도의 구성 상 동원가능 자원의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53]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한국과 일본에서 본 문항에 세대별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1~2.6점 사이에 각 세대의 평균이 분포해 있는 반면 한국은 동의 정도가 1점 정도 더 높은 3.3~3.8점 사이에 분포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도구주의적 가족관을 나타내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일본의 경우 본 문항에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세대는 단카이주니어세대, 신진루이 세대였으나 이들 세대의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 내적인 이질성 역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유신세대와 386세대의 경우 동의 수준이 여타의 세대에 비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 역시 가장 작아서 결집된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대 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경우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측되었으며, 일본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4-3]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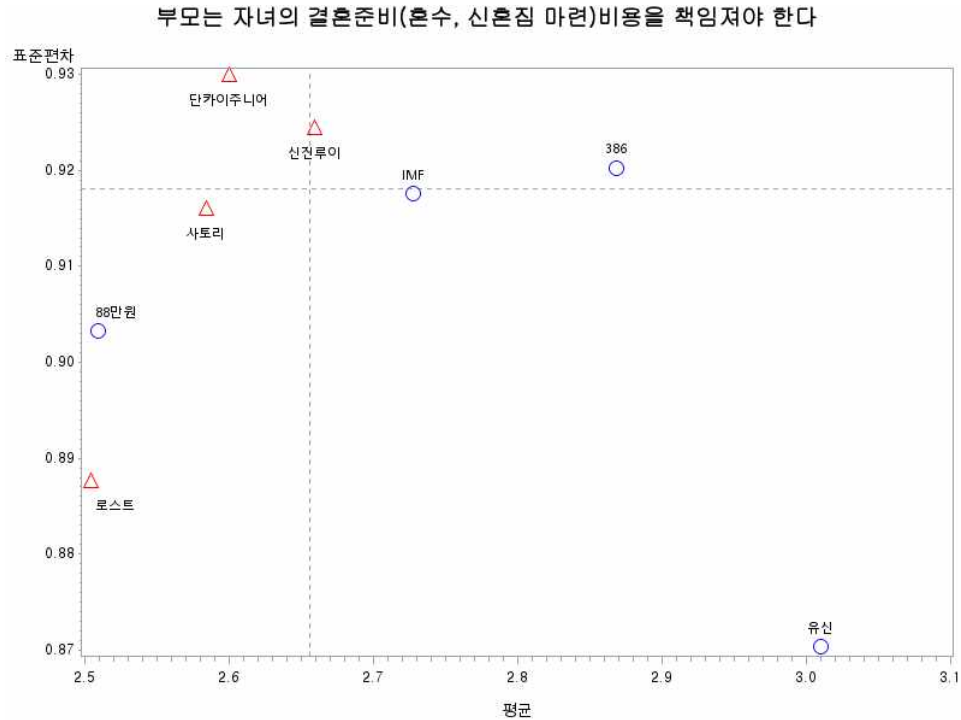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3.380   | 3.577 | 3.668 | 3.720 | 5.265*** | 2.161 | 2.195   | 2.493   | 2.426   | 3.294* |
| SD   | 1.052   | 1.046 | 0.894 | 0.965 |          | 0.952 | 0.875   | 1.070   | 0.980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2)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 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3) 자녀의 대학 교육비 지원: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②~③ 문항의 경우 교육과 결혼 등을 통하여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기회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문항인데,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변화 속도가 더 컸던 유신세대나 신진루이 세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신세대의 경우 두 문항에서 모두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표준편차 역시 가장 낮아서 상당히 결집해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대체로 낮았으며, 세대 간의 평균 차이가 크게 관측되지 않았다. 각 집단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일본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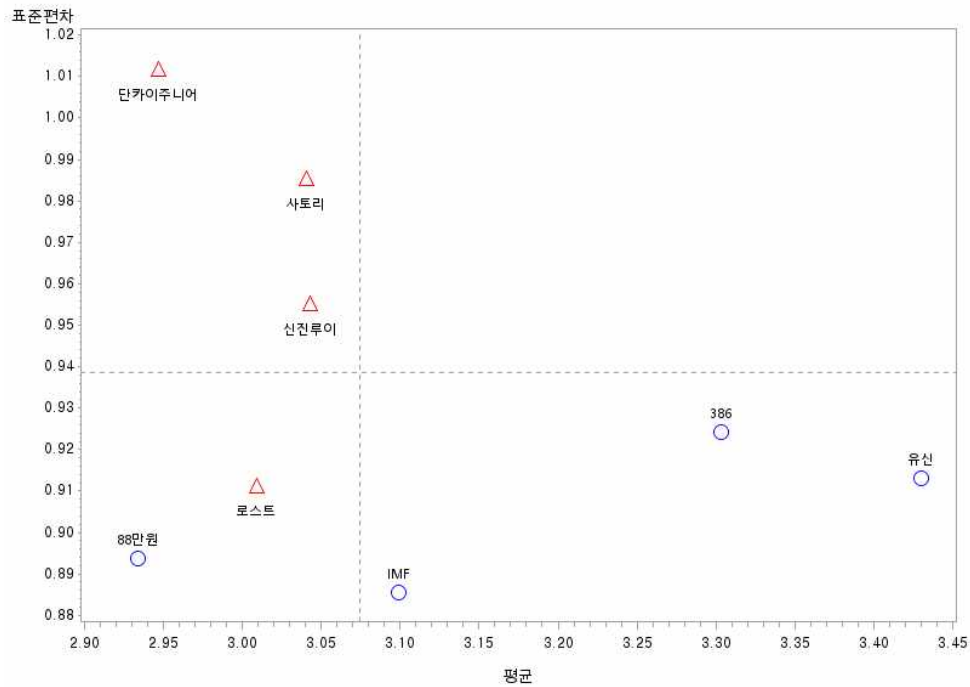
[그림 4-54]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표 4-4]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 세대 | 386 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 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2.509   | 2.728  | 2.869  | 3.010 | 8.070*** | 2.584  | 2.504   | 2.600   | 2.660   | .608 |
| SD   | 0.903   | 0.918  | 0.920  | 0.870 |          | 0.916  | 0.888   | 0.930   | 0.925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그림 4-55]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표 4-5]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2.934   | 3.099 | 3.303 | 3.430 | 7.837*** | 3.040 | 3.009   | 2.947   | 3.043   | .197 |
| SD   | 0.894   | 0.886 | 0.924 | 0.913 |          | 0.986 | 0.911   | 1.012   | 0.955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과가 세대와 가족가치관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가족가치관의 배분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계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상대적 몫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 연령계층은 보상의 몫을 늘리되 사회에 대한 기여는 줄이려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각 세대가 겪은 역사적 사건과 맥락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당면한 연령 위치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주목한

것이다. 가령 차성란 (2014)은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이뤄지던 돌봄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 어느 쪽에도 의존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태인 현 시점에서 노인세대는 효 규범에 따라 자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성인자녀세대는 현재의 부양지원이 자발적인 효의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각 세대가 속해 있는 연령층에서 부담과 이익의 이해관계가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지만, 역사적, 문화적 맥락 하에서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태도 같은 세대의 관념적 갈등의 측면은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관점이 부담과 이익의 이해관계라는 배분적 맥락과 정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혜택을 받는 젊은 계층의 경우 동의 수준이 가장 낮고, 지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고령자 층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은 단순히 배분적 갈등의 양상이 아니라, 세대 별로 경험한 역사적 맥락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태도에 의해서 형성된 도구주의적 인식의 세대 간 격차를 강력하게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노부모 경제적 부양: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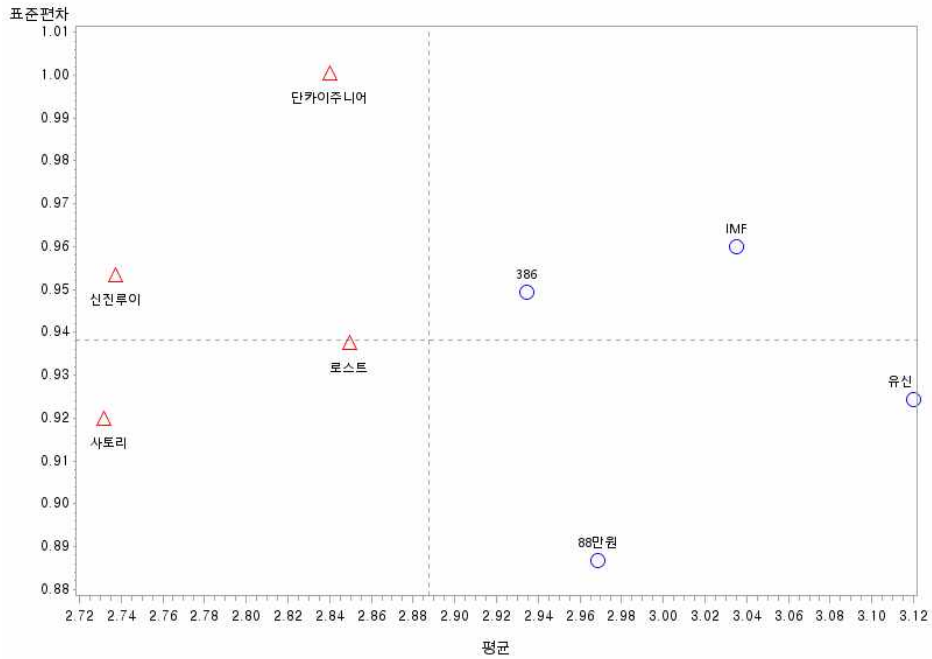
**(5) 노부모와 동거: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④~⑤ 문항의 경우 가족을 보편적인 부양기제로 보는 가족관을 살펴보는 문항으로 보았다. 본 항목 역시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낮았다. ‘④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에서는 유신세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표준 편차도 가장 낮아 결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동의 수준이 대체로 낮을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표준편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세대에 따른 동의 수준의 차이나 결집도 역시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4-56]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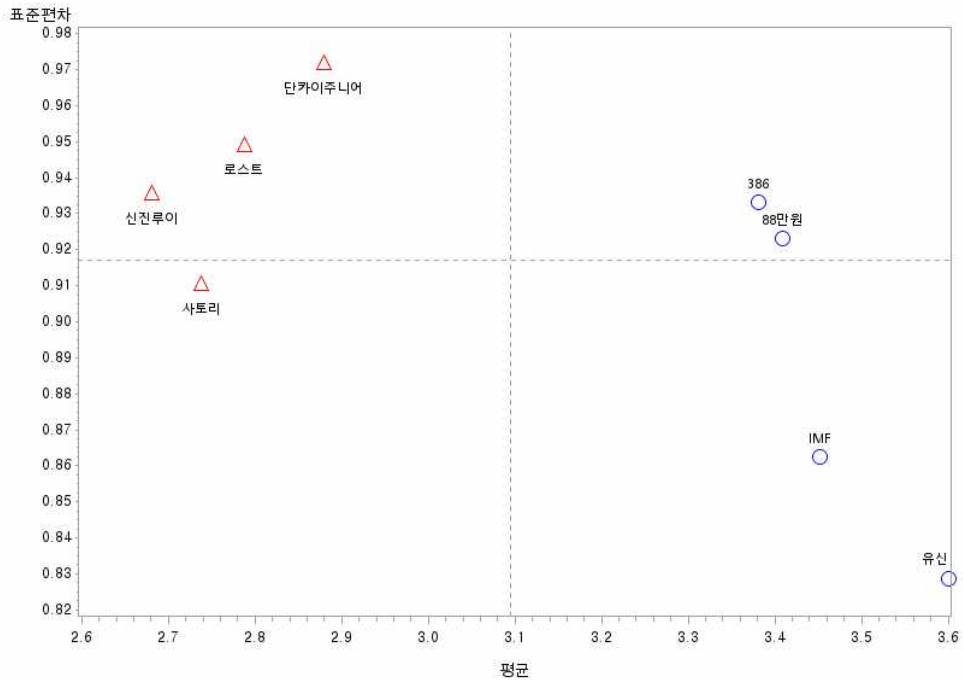


특징적인 점은 한국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이들이 88만원세대가 아닌 386세대라는 점이다. 386세대의 경우 88만원에 비하여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6]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 Mean | 3.408  | 3.452 | 3.381 | 3.600 | .242 | 2.738 | 2.788  | 2.880  | 2.681  | .801 |
| SD   | 0.923  | 0.862 | 0.933 | 0.829 |      | 0.911 | 0.949  | 0.972  | 0.936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그림 4-57]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표 4-7]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2.968   | 3.035 | 2.934 | 3.120 | .482 | 2.732 | 2.850   | 2.840   | 2.738   | .527 |
| SD   | 0.887   | 0.960 | 0.949 | 0.924 |      | 0.920 | 0.938   | 1.001   | 0.954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도구주의적 가족관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일본에 비하여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도구주의적 가치관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세대에 따른 동질성과 자녀에 투자함으로써 세대 간 이동성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도구주의적 가치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측되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 지원 문항의 경우 각 세대의 평균차가 클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표준 편차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세대의

실질적 가치관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 2) 정부의 복지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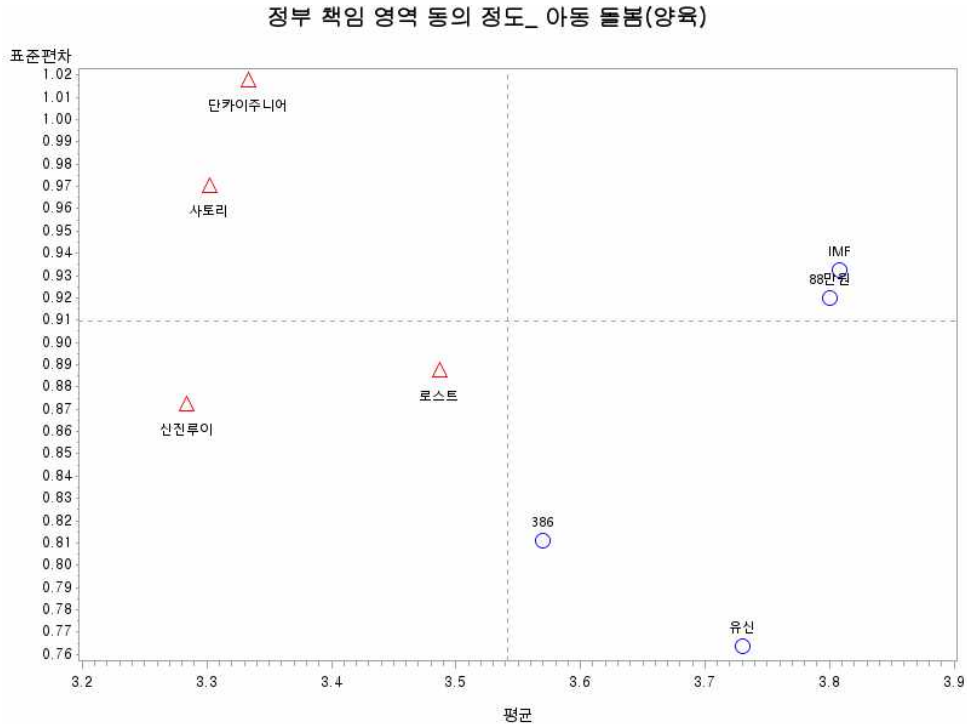
### (6)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 (7)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맞닥뜨리게 되는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동의 수준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해오던 아동 돌봄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도구적 가족주의와 대비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비하여 아동 돌봄과 노후 소득 모두 동의 수준이 일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동 돌봄에 대한 정부의 책임 동의 정도는 노후 소득에 대한 동의 정도보다 다소 낮았다. 아동 돌봄의 경우 386세대를 제외하고 유신세대와 IMF, 88만원세대 모두 3.7~3.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386세대의 경우 그 점수가 3.57점으로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림 4-58]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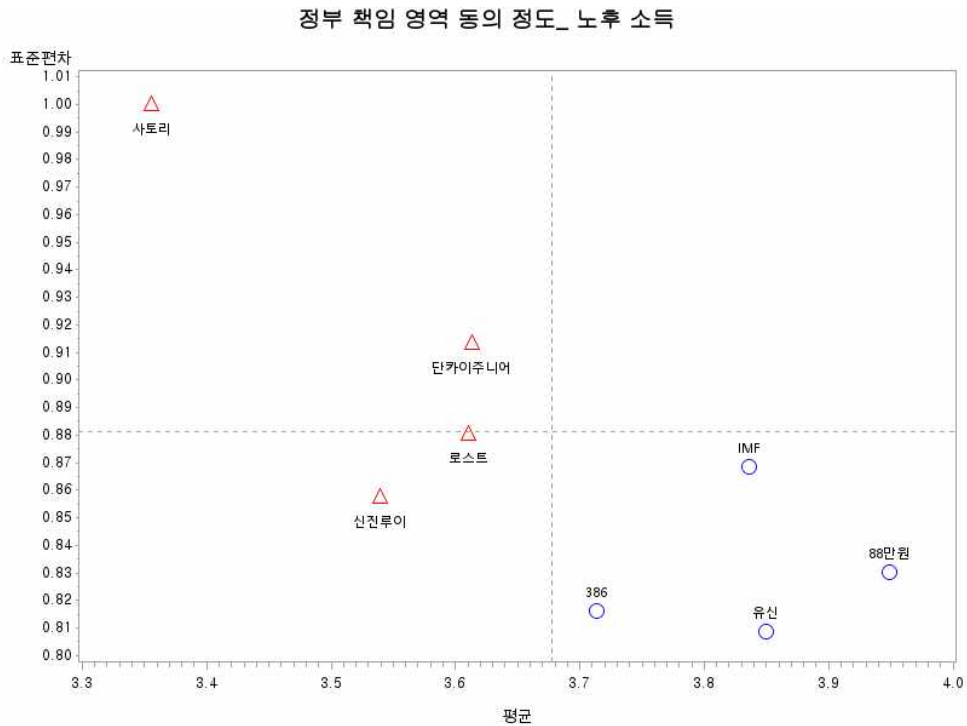


[표 4-8]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3.801   | 3.808 | 3.570 | 3.730 | 3.249* | 3.302 | 3.487   | 3.333   | 3.284   | 1.186 |
| SD   | 0.920   | 0.933 | 0.811 | 0.763 |        | 0.971 | 0.888   | 1.018   | 0.873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노후 소득에 관한 문항 역시 386세대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다만, 아동 돌봄(양육)에 비하여 386세대에서도 3.7점 정도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모든 세대가 3.7~3.9점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표준 편차 역시 0.88 미만에 몰려 있어서 일본에 비하여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노후 소득의 정부 책임성에 관한 동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 4-59]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표 4-9]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3.949   | 3.837 | 3.713 | 3.850 | .828 | 3.356 | 3.611   | 3.613   | 3.539   | 2.217+ |
| SD   | 0.830   | 0.869 | 0.816 | 0.809 |      | 1.000 | 0.881   | 0.914   | 0.858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한편 일본의 경우 노후소득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일본의 사토리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처럼 사토리세대의 낮은 평균 수준은 편차가 높다는 점에서 사토리세대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정책에 재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토리세대의 동의 수준이 낮다는 점은 세대 갈등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본 문항은 일본의 응답 문항 중 드물게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도구적 가족관에 대비해 본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부양에 여전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아동 돌봄과 노후 소득에 있어서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가족의 부양에 대한 동의 수준의 대체로 낮은 일본에서는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노인의 노후 소득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빈곤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의 반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노인에 가족과 정부의 책임 모두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386세대의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수준도 낮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86세대는 현재 장년층으로 경제적 여건이 가장 좋은 세대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이들은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것 보다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여지가 있으며, 조세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경제적 수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 파트에서 소득 계층에 견주어 살펴보고자 한다.

###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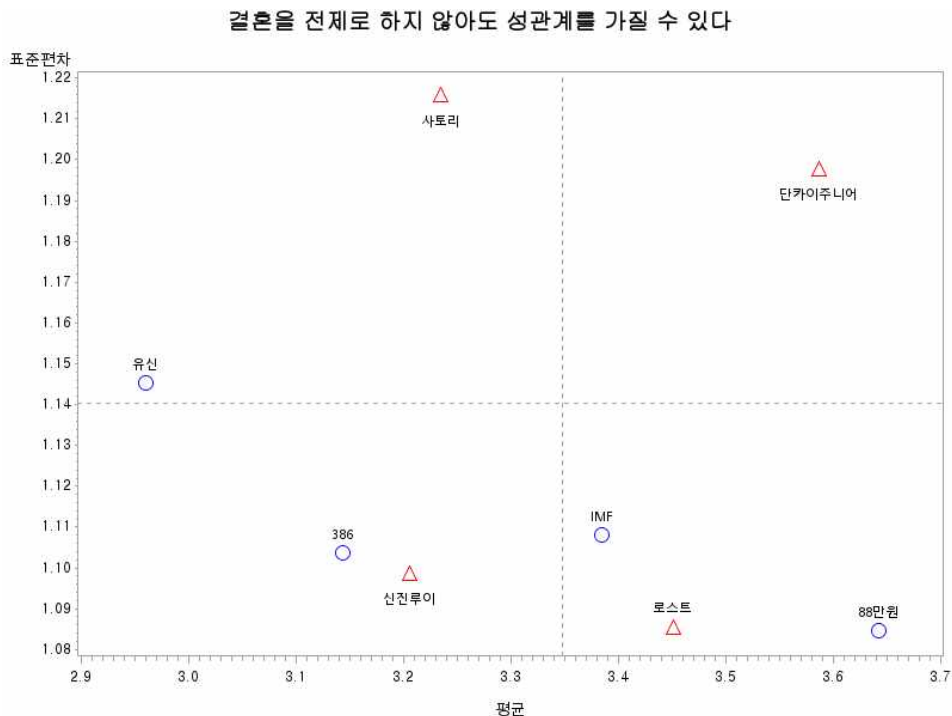
**(8) 혼인 외 성관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9) 혼인 외 동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전형적인 결혼과 거리가 먼 항목을 통하여 세대별로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치관과 규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결혼 외 성관계 및 동거에 관한 문항의 경우 서구에서는 동거와 이를 통한 자녀 출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전형적인 가족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세대 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든 유신세대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관계에 관한 동의 점수가 2.96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장 젊은 88만원세대의 경우 동의 수준이 3.62점으로 0.7점 가량의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점수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세대 별로 인식의 결집 정도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에 관한 문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88만원세대, IMF 세대, 386세대, 유신세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문항에 대한 세대 별 표준편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 문항에 대한 세대 내 결집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문항에서 모두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60]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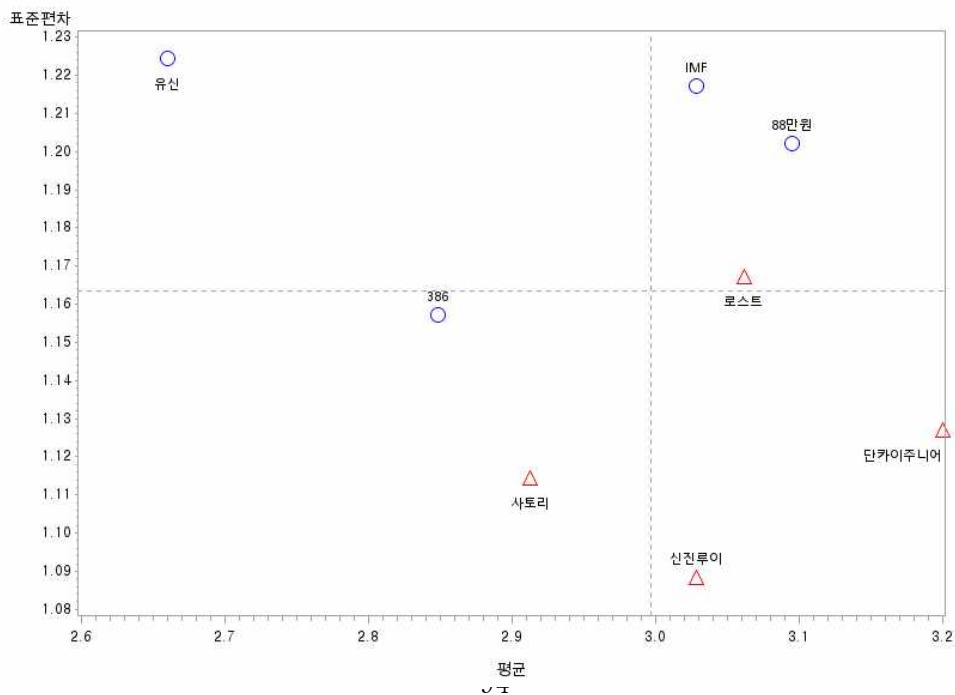
[표 4-10]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3.642   | 3.385 | 3.143 | 2.960 | 11.447*** | 3.235 | 3.451   | 3.587  | 3.206   | 2.556+ |
| SD   | 1.085   | 1.108 | 1.104 | 1.145 |           | 1.216 | 1.086   | 1.198  | 1.099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한편, 일본의 경우, 본 문항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평균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에 비하여 대체로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관계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3.2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결혼외 성관계와 동거에 관한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세대가 가장 젊은 88만원세대였는데, 일본의 경우 가장 젊은 사토리세대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에 해당하는 단카이주니어세대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4-61]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표 4-11]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3.095   | 3.029 | 2.848 | 2.660 | 3.815* | 2.913 | 3.062   | 3.200   | 3.028   | 1.147 |
| SD   | 1.202   | 1.217 | 1.157 | 1.224 |        | 1.115 | 1.167   | 1.127   | 1.089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개방적인 성문화를 우리나라에 비하여 앞서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일면 해석이 가능해보인다. 특히 본 문항에 대하여 일본은 세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방적인 성문화가 많이 수용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10)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11)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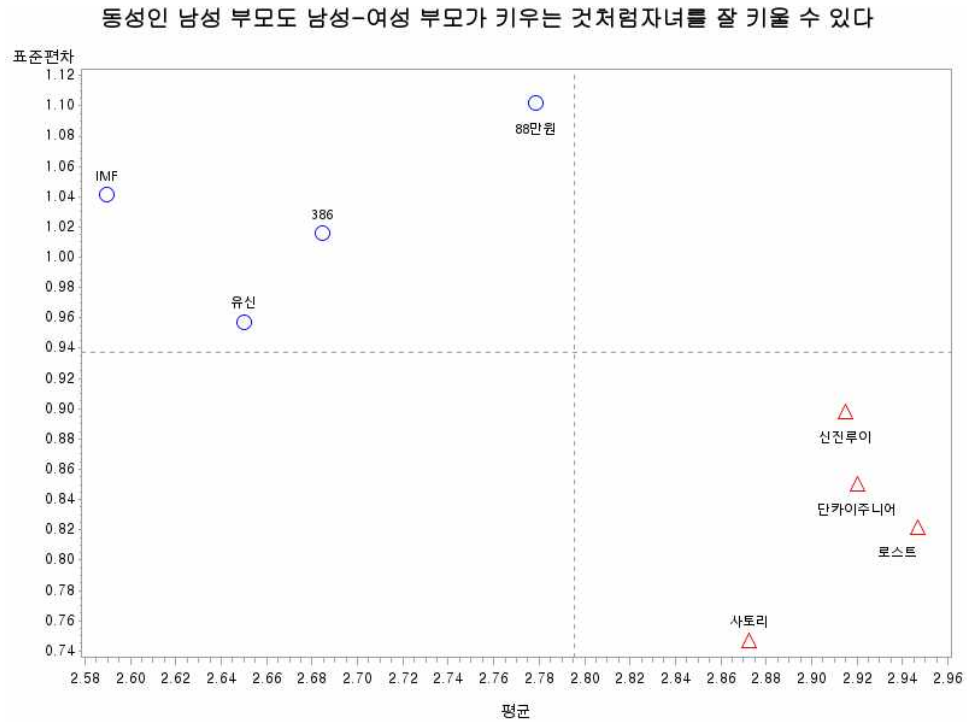
(12) 한부모의 자녀양육: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⑩~⑫번 문항의 경우 전형적인 자녀양육의 규범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서의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본 문항들은 특히 동성 부모의 양육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관계나 동거에 비하여 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세대 간의 큰 평균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세대에서 0.2점 차 내에 세대별 평균 점수가 몰려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표준 편차 역시 모든 세대가 0.9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서 전 사회가 비교적 동질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표준편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 세대 내에서 인식의 이질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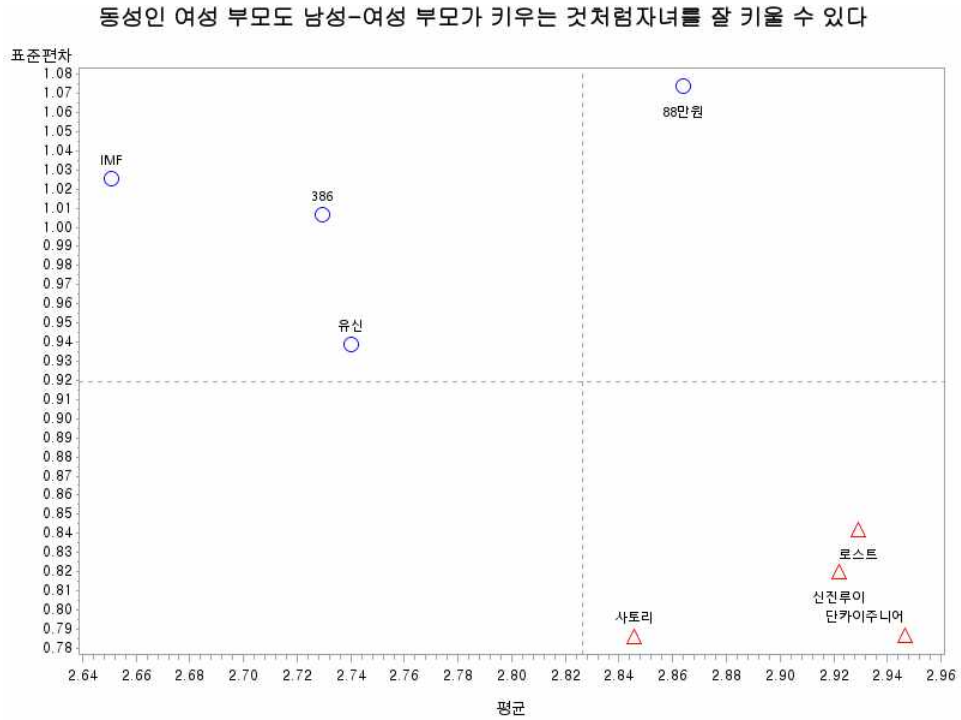
[그림 4-62]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표 4-12]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2.778   | 2.590 | 2.684 | 2.650 | 1.210 | 2.872 | 2.947   | 2.920   | 2.915   | 0.182 |
| SD   | 1.102   | 1.042 | 1.016 | 0.957 |       | 0.747 | 0.822   | 0.850   | 0.898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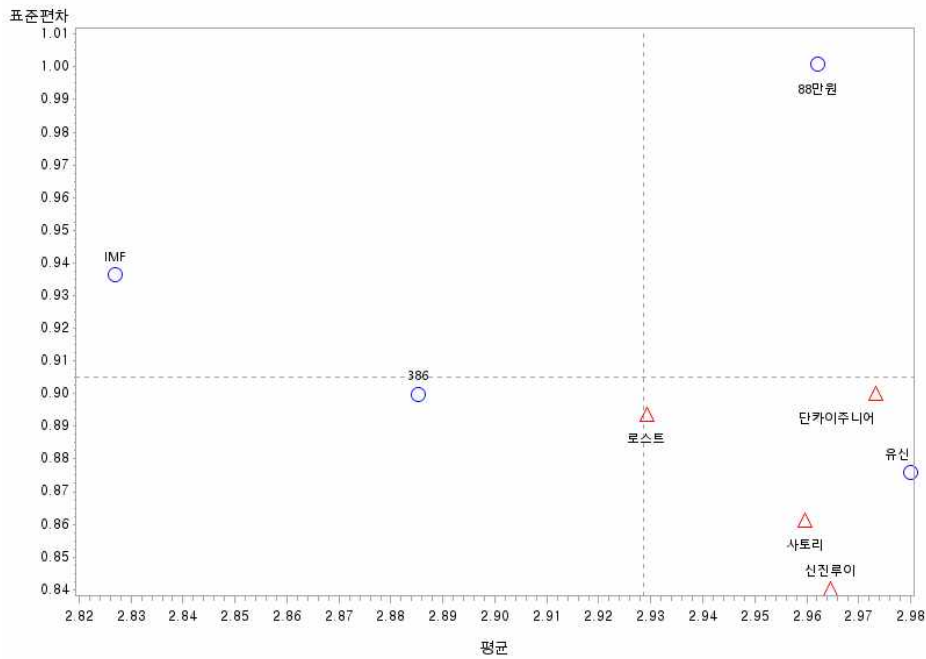
[그림 4-63] ①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표 4-13] ①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2.864   | 2.651 | 2.730 | 2.740 | 1.268 | 2.846 | 2.929   | 2.947   | 2.922   | 0.397 |
| SD   | 1.074   | 1.025 | 1.006 | 0.939 |       | 0.786 | 0.842   | 0.787   | 0.820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그림 4-64]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표 4-14]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동의수준

|      | 한국      |       |       |       |      | 일본    |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 Mean | 2.962   | 2.827 | 2.885 | 2.980 | .734 | 2.960 | 2.929   | 2.973   | 2.965   | 0.051 |
| SD   | 1.001   | 0.936 | 0.900 | 0.876 |      | 0.861 | 0.894   | 0.900   | 0.840   |       |
| N    | 316     | 312   | 244   | 100   |      | 149   | 113     | 75      | 141     |       |

한편 한국의 경우 자녀 양육과 관련한 모든 문항에서 새로운 가족관에 낮은 동의 수준을 기록한 세대는 IMF 세대이다. 이들 세대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인식이 앞서 자녀 양육을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신세대나 386세대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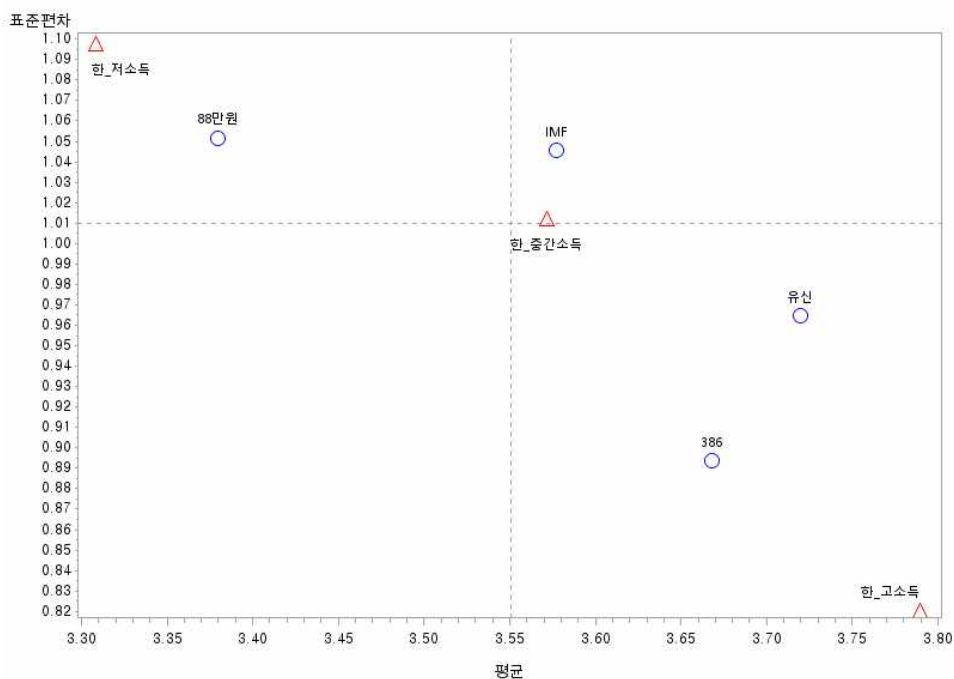
## 나. 세대와 소득계층의 비교

### 1) 도구주의적 가족관

#### (1) 동질혼: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동질혼 경향을 나타내는 본 문항에서 한국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세대 간의 차이인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소득 계층별로 인식차이를 확인해보면, 한국의 경우 세대 간의 인식 간극보다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고소득 집단이 매우 동질적으로 이 문항에 대하여 높은 동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고소득 집단 내에서 본인들의 현재 사회적 지위를 결혼을 통해 공고화하려는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65]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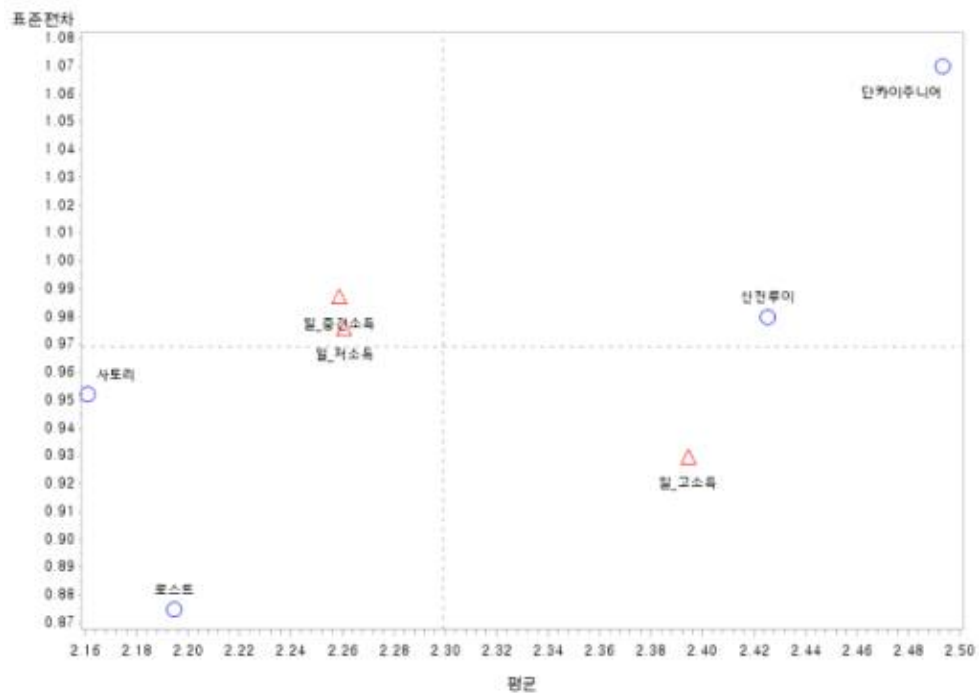
[표 4-15] ① 동질혼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380   | 3.577 | 3.668 | 3.720 | 5.265*** | 3.308 | 3.571 | 3.789 | 13.194*** |
| SD   | 1.052   | 1.046 | 0.894 | 0.965 |          | 1.098 | 1.012 | 0.820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한편, 동일한 문항에 일본의 경우 세대 간 인식의 격차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그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고소득층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하여 동의수준과 인식의 결집도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림 4-66] ① 동질혼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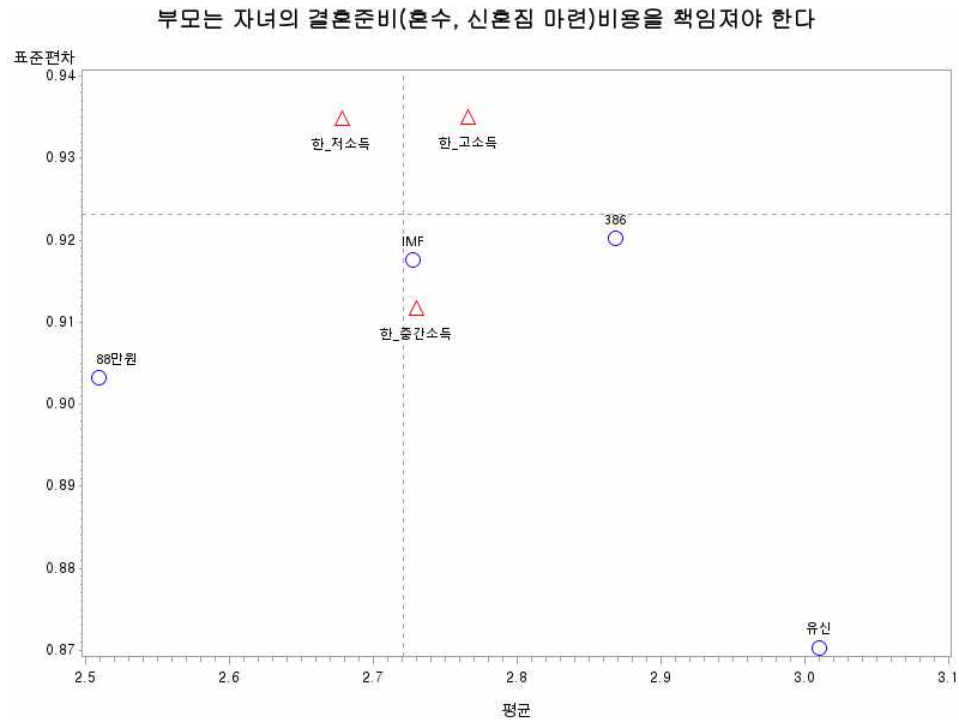
[표 4-16] ① 동질혼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161 | 2.195  | 2.493  | 2.426  | 3.294* | 2.261 | 2.259 | 2.394 | 1.086 |
| SD   | 0.952 | 0.875  | 1.070  | 0.980  |        | 0.976 | 0.987 | 0.930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2)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며 동시에 결혼을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기회로 보는 본 문항의 경우 한국에서는 세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반면, 소득계층별 평균 점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도구적 가족관 중에서도 동질혼에 대한 인식이 소득계층간의 차이가 더 크게 관측된 양상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4-67]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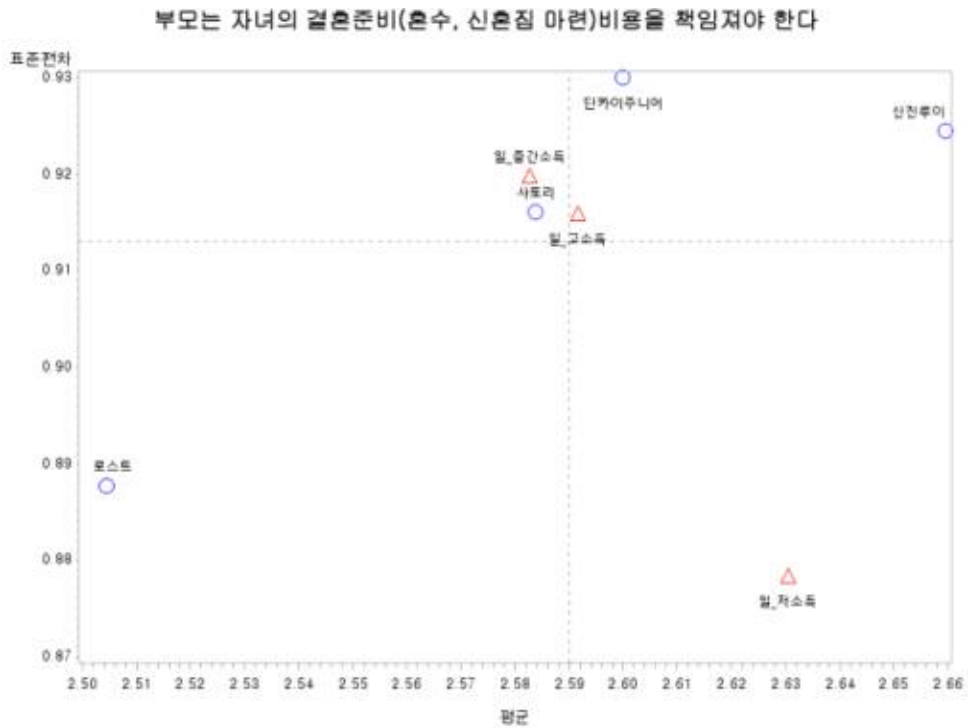
[표 4-17]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509  | 2.728 | 2.869 | 3.010 | 8.070*** | 2.678 | 2.731 | 2.766 | 0.988 |
| SD   | 0.903  | 0.918 | 0.920 | 0.870 |          | 0.935 | 0.912 | 0.935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한편 일본의 경우 본 문항에 대하여 세대 간 격차가 관측되지 않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의 인식 차이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4-68]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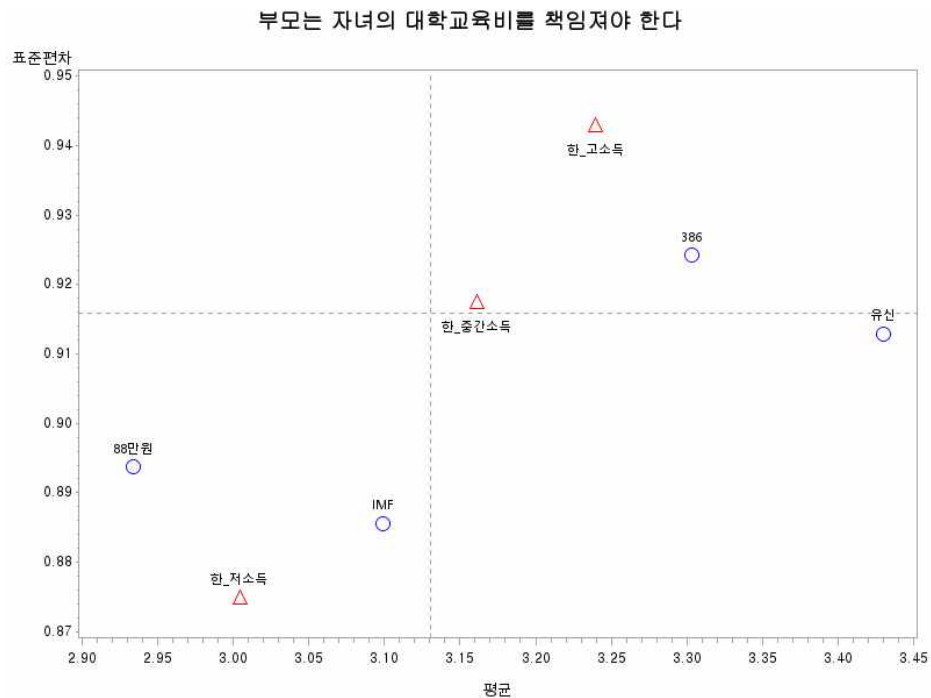
[표 4-18] ②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 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584 | 2.504  | 2.600  | 2.660  | 0.608 | 2.630 | 2.583 | 2.592 | 0.172 |
| SD   | 0.916 | 0.888  | 0.930  | 0.925  |       | 0.878 | 0.920 | 0.916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3) 자녀의 대학 교육비 지원: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기회를 노리는 도구적 가족관에 관한 본 문항의 경우 한국은 세대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고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계층 이전의 양상이 고소득층에서 가장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69]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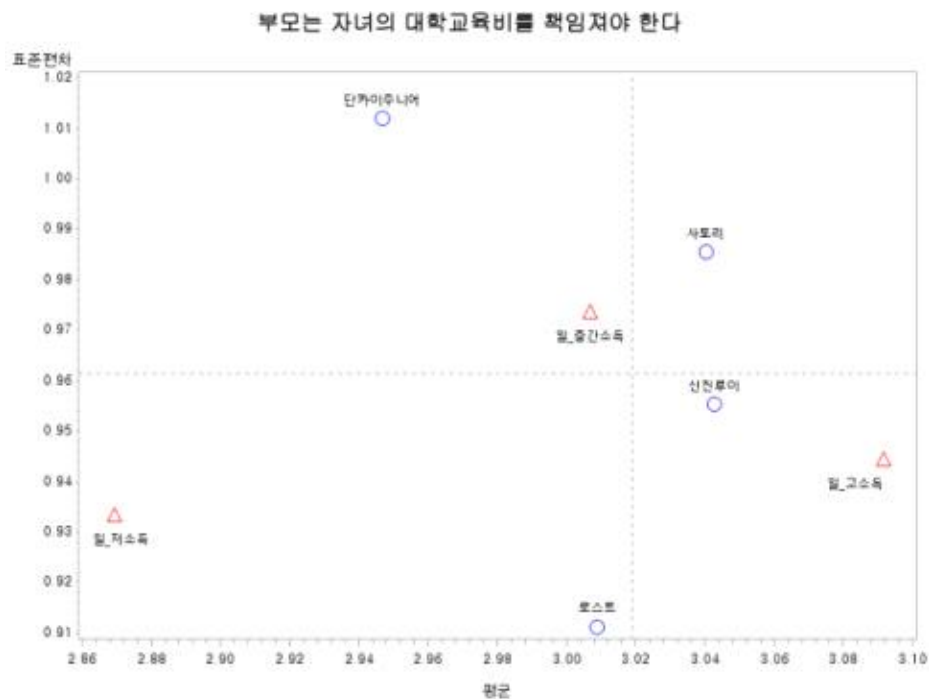


[표 4-19]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934   | 3.099 | 3.303 | 3.430 | 7.837*** | 3.004 | 3.161 | 3.240 | 5.161** |
| SD   | 0.894   | 0.886 | 0.924 | 0.913 |          | 0.875 | 0.917 | 0.943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일본의 경우 본 문항에 대하여 세대 간의 인식 차이보다는 계층 간의 인식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일본 역시 교육을 통한 계층 이전이 고소득층에서 가장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 4-70]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20] ③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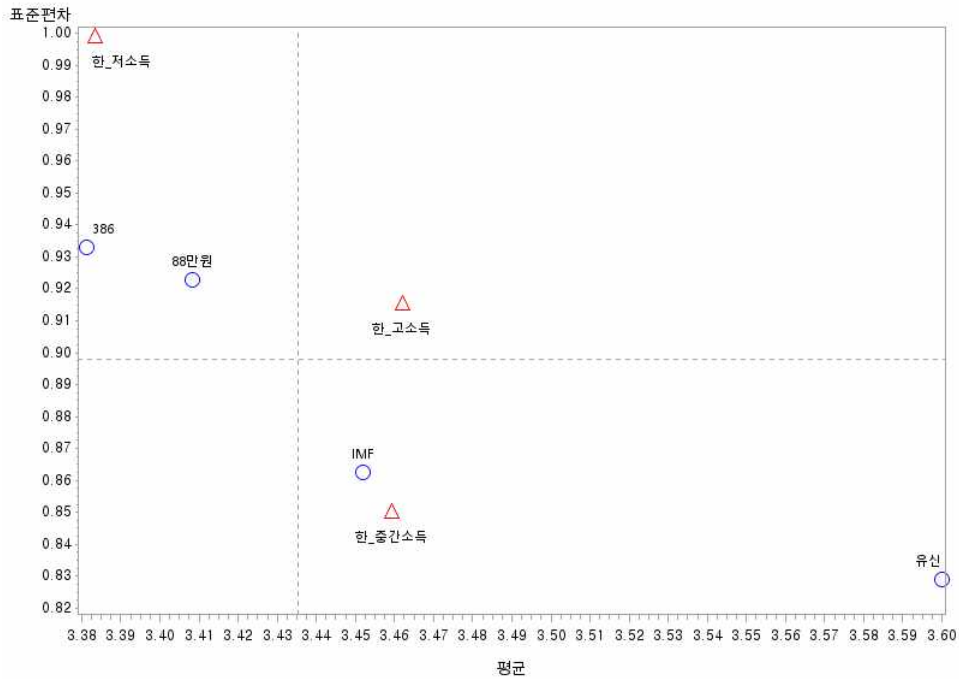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040 | 3.009  | 2.947  | 3.043  | 0.197 | 2.870 | 3.007 | 3.092 | 1.252 |
| SD   | 0.986 | 0.911  | 1.012  | 0.955  |       | 0.934 | 0.974 | 0.945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 (4) 노부모 경제적 부양: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득계층에 의한 차이에 비하여 세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특히 부양의 실제 수혜자일 수 있는 고령층인 유신세대의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세대와 소득계층의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 4-71]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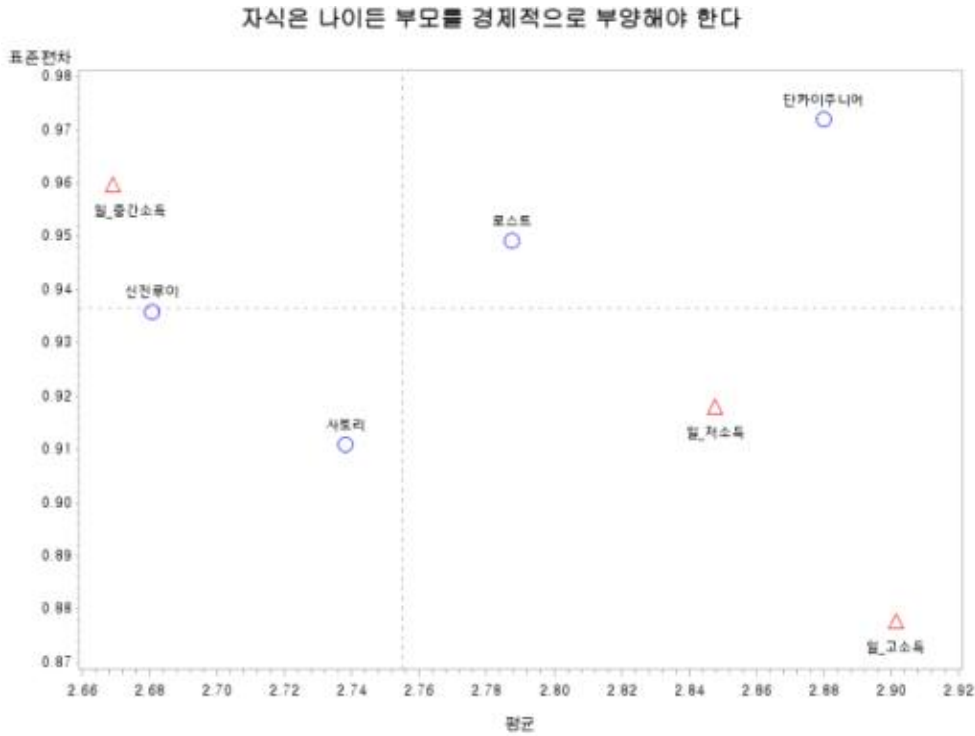
[표 4-21]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 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408   | 3.452  | 3.381 | 3.600 | 0.242 | 3.383 | 3.459 | 3.462 | 0.515 |
| SD   | 0.923   | 0.862  | 0.933 | 0.829 |       | 0.999 | 0.851 | 0.916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한편, 일본의 경우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일본의 경우 세대 간 차이에 비하여 소득 계층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일본의 소득 계층별 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소득층이었으며, 고소득층은 동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집단의 표준편차도 작게 나타나, 세대 내 인식의 격차가

크지도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중간소득자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72]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22] ④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738 | 2.788  | 2.880  | 2.681  | .801 | 2.848 | 2.669 | 2.901 | 3.749* |
| SD   | 0.911 | 0.949  | 0.972  | 0.936  |      | 0.918 | 0.960 | 0.878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5) 노부모와 동거: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한국에서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소득 계층 간 인식 차이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여타의 도구적 가족관 문항과는 달리 본 문항에서 가장 동의 수준이 낮았던 집단은 고소득층이었다. 여타의 문항은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73]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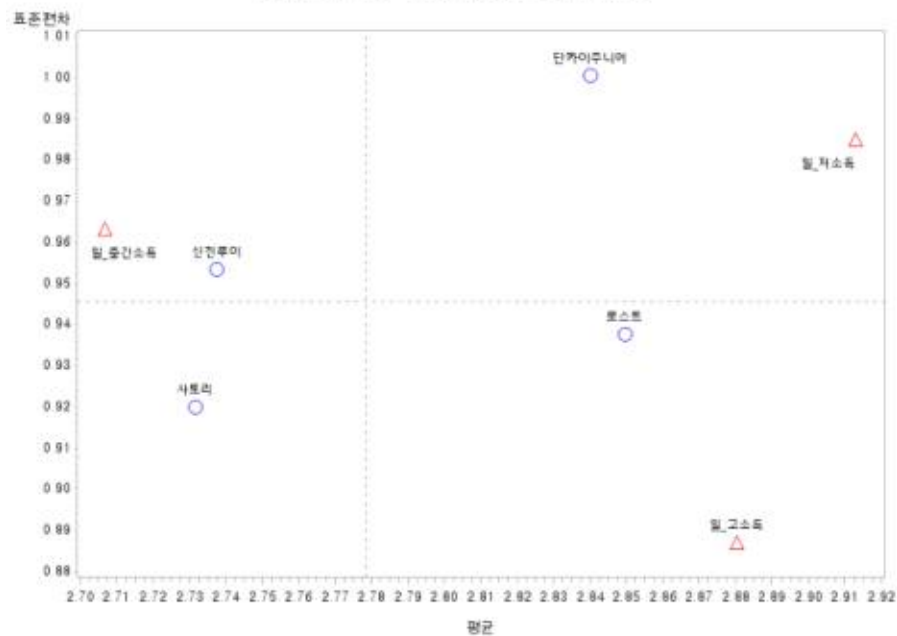
[표 4-23]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968   | 3.035 | 2.934 | 3.120 | .482 | 2.974 | 3.034 | 2.918 | 0.91 |
| SD   | 0.887   | 0.960 | 0.949 | 0.924 |      | 0.982 | 0.899 | 0.973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일본에서는 본 문항 역시 세대 간 차이에 비하여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마찬가지로 중간소득계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중간소득계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림 4-74]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표 4-24] ⑤ 노부모와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732 | 2.850   | 2.840  | 2.738   | .527 | 2.913 | 2.707 | 2.880 | 2.682+ |
| SD   | 0.920 | 0.938   | 1.001  | 0.954   |      | 0.985 | 0.963 | 0.887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도구적 가족관의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을 계층 이동(이전)의 수단으로 보거나, 자녀의 결혼 및 교육을 통한 계층 이전의 기회로 보는 인식의 경우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소득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들 문항에서는 고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아서, 고소득층의 계층이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경제적 부양이나 동거에 대하여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는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들 문항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 소득 계층에 따른 격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특히 노부모 부양 및 동거에 대하여 중간소득자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5] 도구적 가족관 관련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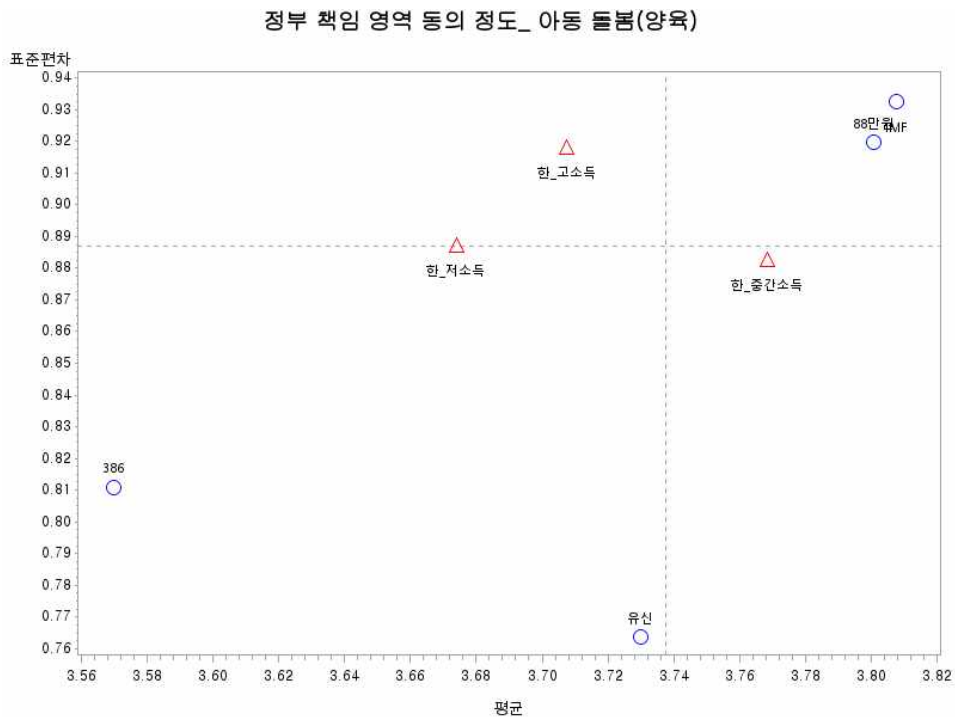
| 번호 | 분류            | 문항                                    | 한국 |    | 일본 |    |
|----|---------------|---------------------------------------|----|----|----|----|
|    |               |                                       | 세대 | 소득 | 세대 | 소득 |
| ①  | 동질혼           |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             | ○  | ○  | ○  |    |
| ②  | 자녀의 결혼 비용 지원  |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  |    |    |    |
| ③  | 자녀의 대학 교육비 지원 |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  | ○  |    |    |
| ④  | 노부모 경제적 부양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    |    | ○  |
| ⑤  | 노부모와 동거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    | △  |

## 2) 정부의 복지책임

### (6)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아동 돌봄에 대한 정부책임성의 경우 세대 간 격차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소득에 따른 격차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여타의 소득계층의 동의 수준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계층별 인식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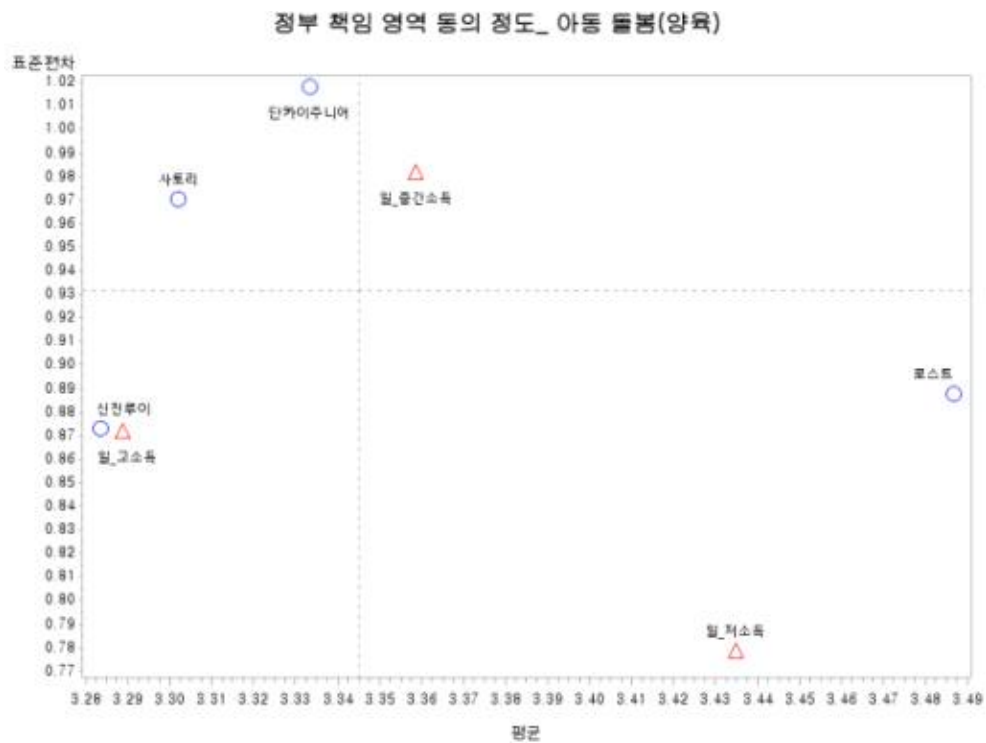
[그림 4-75]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26]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 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801   | 3.808 | 3.570 | 3.730 | 3.249* | 3.674 | 3.769 | 3.708 | 0.895 |
| SD   | 0.920   | 0.933 | 0.811 | 0.763 |        | 0.887 | 0.883 | 0.918 |       |
| N    | 316     | 312   | 244   | 100   |        |       |       |       |       |

[그림 4-76]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27] ⑥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 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302 | 3.487  | 3.333  | 3.284  | 1.186 | 3.435 | 3.359 | 3.289 | 0.373 |
| SD   | 0.971 | 0.888  | 1.018  | 0.873  |       | 0.779 | 0.982 | 0.872 |       |
| N    | 149   | 113    | 75     | 14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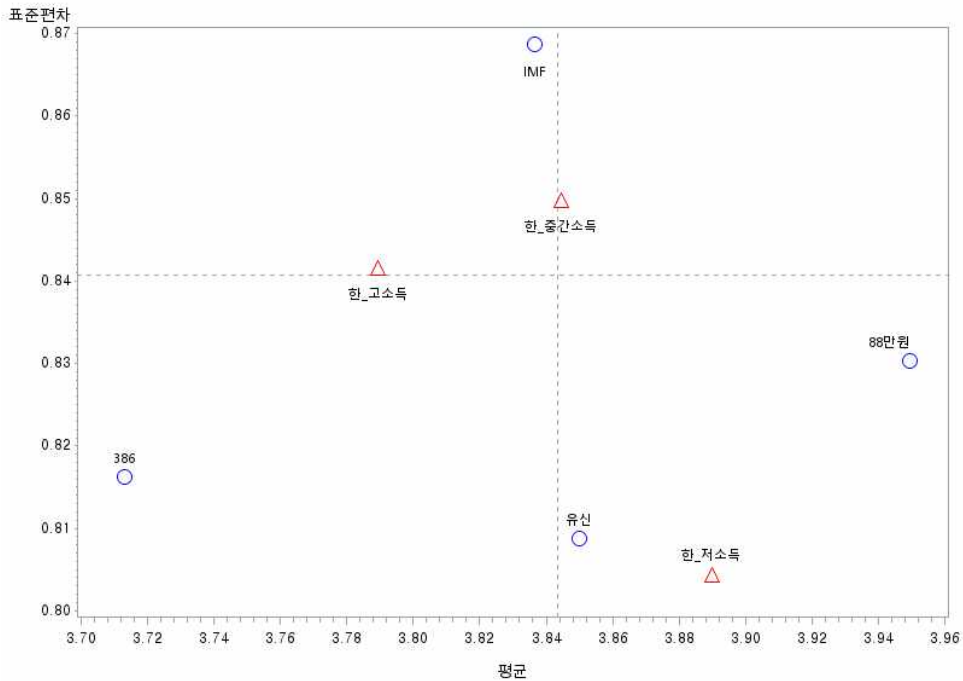
#### (7)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

노후소득에 대한 정부책임 수준의 경우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고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가진 이들의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 노후소득에 대한 동의 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세대와 계층에 따른 격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동질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77]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정부 책임 영역 동의 정도\_ 노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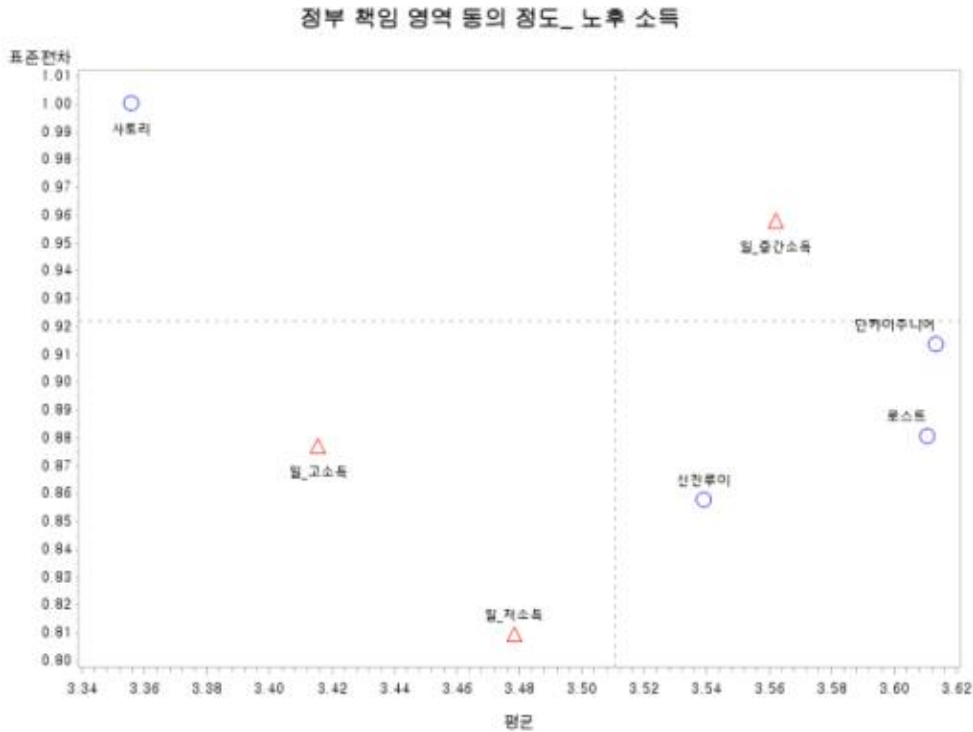
[표 4-28]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 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949   | 3.837 | 3.713 | 3.850 | 0.828 | 3.890 | 3.844 | 3.789 | 0.823 |
| SD   | 0.830   | 0.869 | 0.816 | 0.809 |       | 0.804 | 0.850 | 0.842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일본에서는 세대별 인식의 차이에 비하여 소득계층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도구적 가족관에서 나타나듯 일본의 경우 중간 소득계층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상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림 4-78] ⑦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29] ⑦ 정보의 노후소득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 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356 | 3.611   | 3.613  | 3.539   | 2.217+ | 3.478 | 3.562 | 3.415 | 0.992 |
| SD   | 1.000 | 0.881   | 0.914  | 0.858   |        | 0.809 | 0.958 | 0.877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생애주기별 문제에 따른 정부책임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대,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소득계층에 따른 인식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대에 따른 차이만 일부 관측되었다.

[표 4-30] 정부의 복지책임에 관한 세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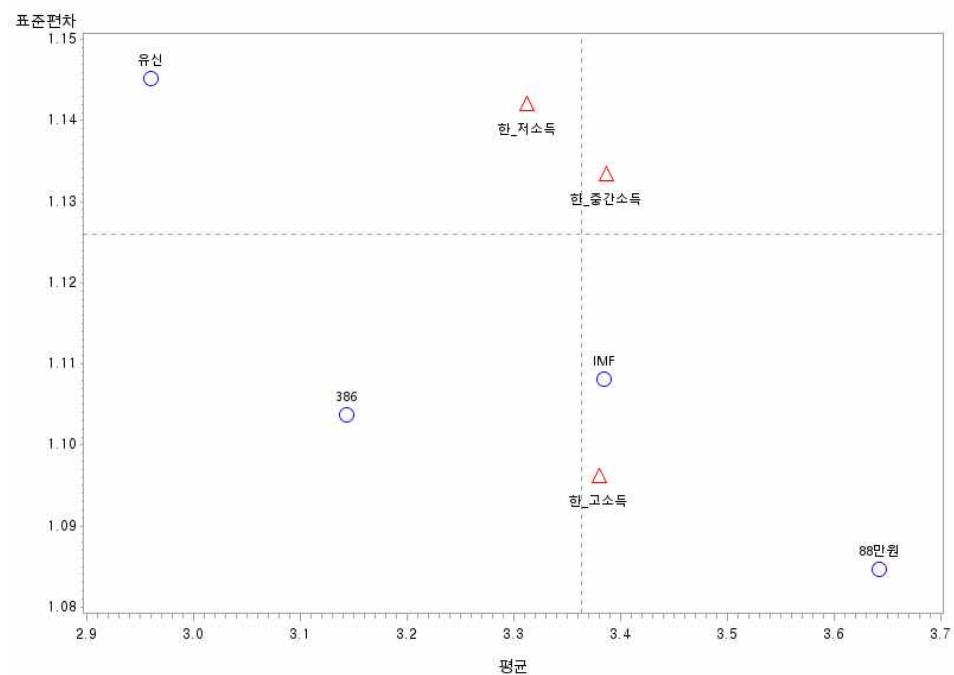
| 번호 | 분류           | 문항        | 한국 |    | 일본 |    |
|----|--------------|-----------|----|----|----|----|
|    |              |           | 세대 | 소득 | 세대 | 소득 |
| ⑥  |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 아동 돌봄(양육) | ○  |    |    |    |
| ⑦  |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  | 노후 소득     |    |    | △  |    |

###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 (8) 혼인 외 성관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관계에 관한 동의 수준을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세대에 따른 격차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일본 역시 본 문항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는 관측된 반면,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본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저소득계층, 인식의 결집도 역시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격차는 아니었다.

[그림 4-79]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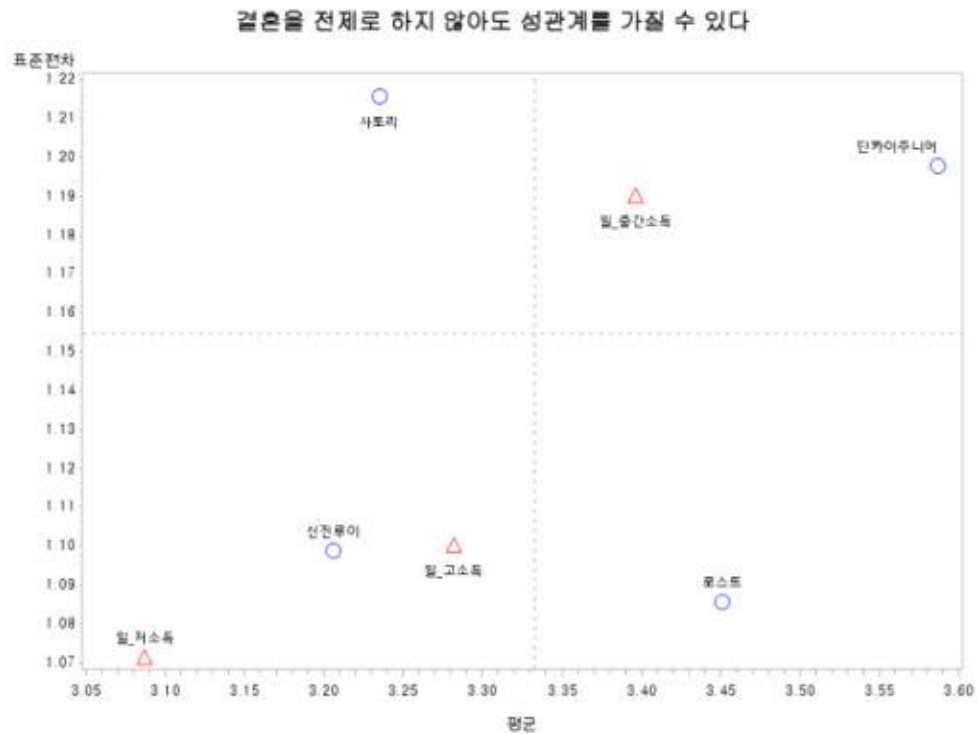


[표 4-31]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642   | 3.385 | 3.143 | 2.960 | 11.447*** | 3.313 | 3.387 | 3.380 | 0.323 |
| SD   | 1.085   | 1.108 | 1.104 | 1.145 |           | 1.142 | 1.133 | 1.096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그림 4-80]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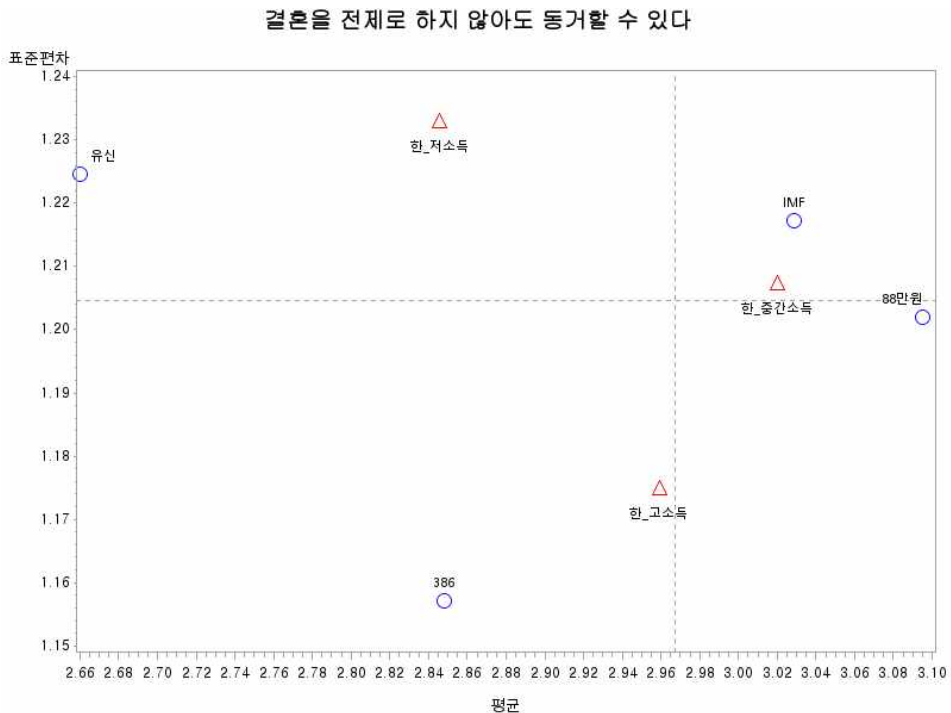
[표 4-32] ⑧ 혼인 외 성관계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235 | 3.451  | 3.587  | 3.206  | 2.556+ | 3.087 | 3.397 | 3.282 | 1.437 |
| SD   | 1.216 | 1.086  | 1.198  | 1.099  |        | 1.071 | 1.190 | 1.100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9) 혼인 외 동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관한 문항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으나,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으나, 일본에서는 저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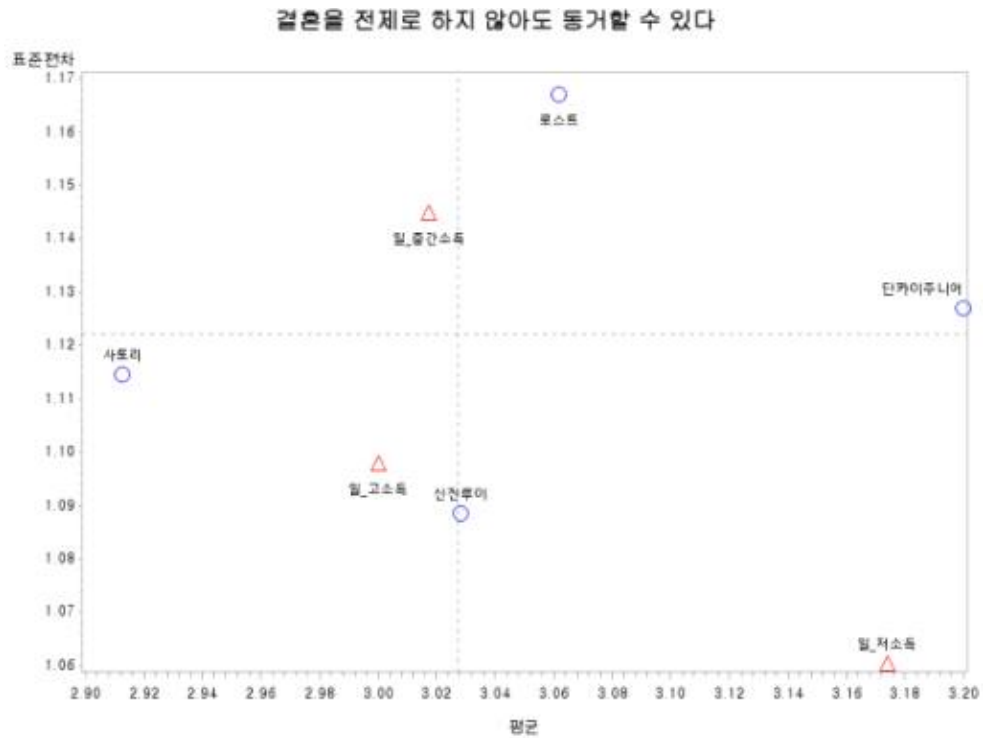
[그림 4-81]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33]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3.095   | 3.029 | 2.848 | 2.660 | 3.815* | 2.846 | 3.020 | 2.959 | 1.707 |
| SD   | 1.202   | 1.217 | 1.157 | 1.224 |        | 1.233 | 1.207 | 1.175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그림 4-82]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34] ⑨ 혼인 외 동거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 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 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913  | 3.062   | 3.200   | 3.028   | 1.147 | 3.174 | 3.017 | 3.000 | 0.311 |
| SD   | 1.115  | 1.167   | 1.127   | 1.089   |       | 1.060 | 1.145 | 1.098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10)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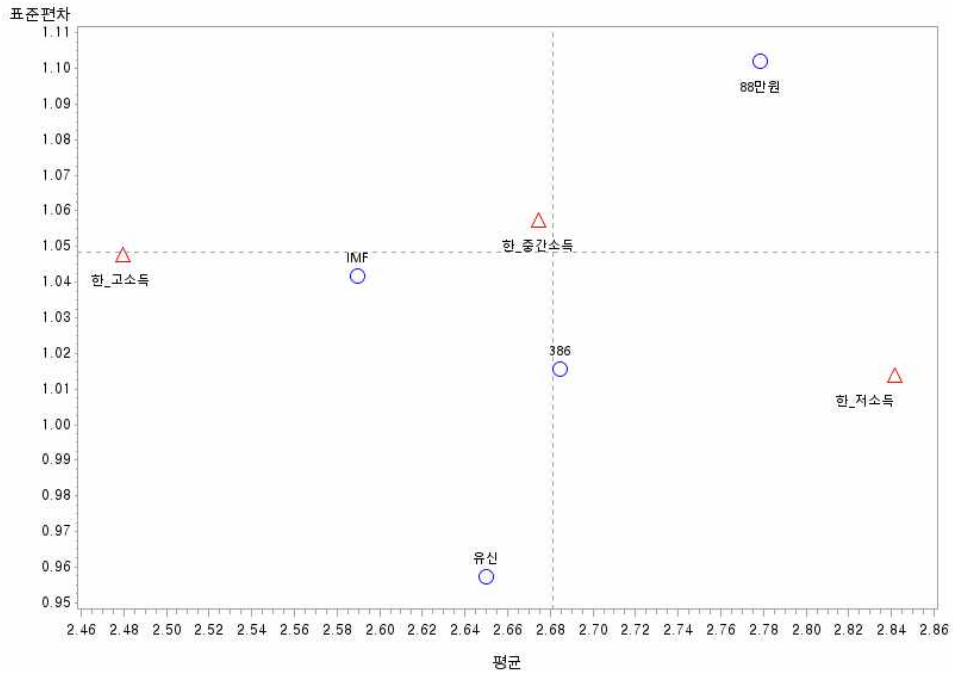
(11)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동성인 부부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소득계층 간의 인식 차이는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비하여 더 크고, 결집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인식에 대한 수용도는 학력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 실제 결과는 고소득층의 수용도가 가장 낮고, 저소득층의 수용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4-83]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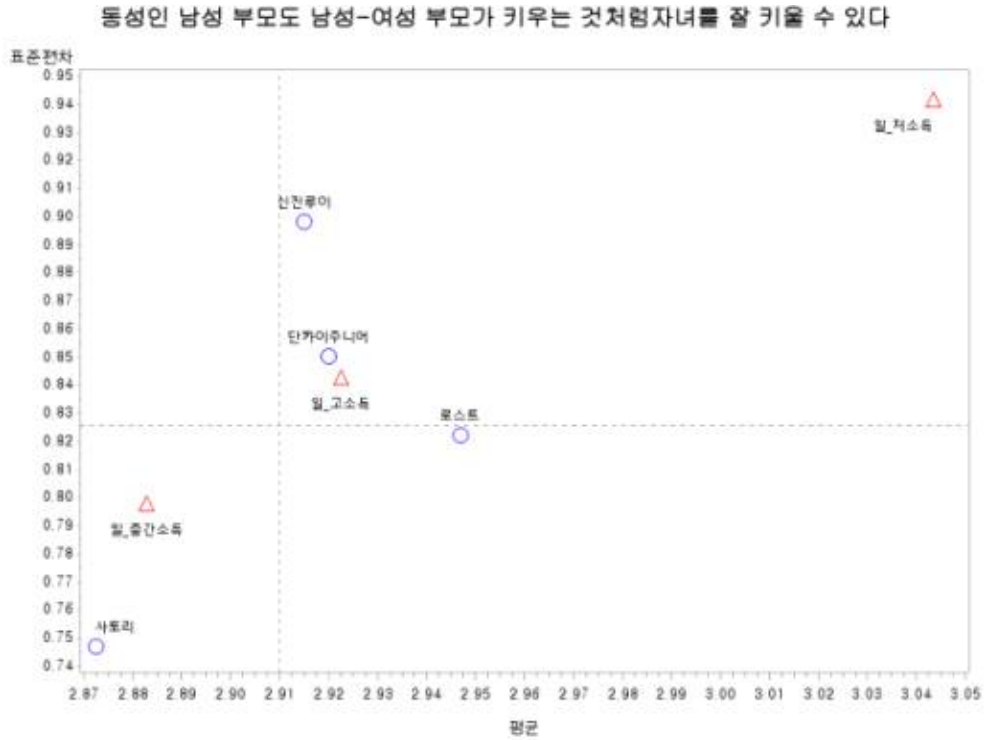


[표 4-35]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 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778   | 2.590 | 2.684 | 2.650 | 1.210 | 2.841 | 2.675 | 2.480 | 5.536** |
| SD   | 1.102   | 1.042 | 1.016 | 0.957 |       | 1.014 | 1.058 | 1.048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일본은 세대 간 격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격차도 작게 나타나서 새로운 가족과 양육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4]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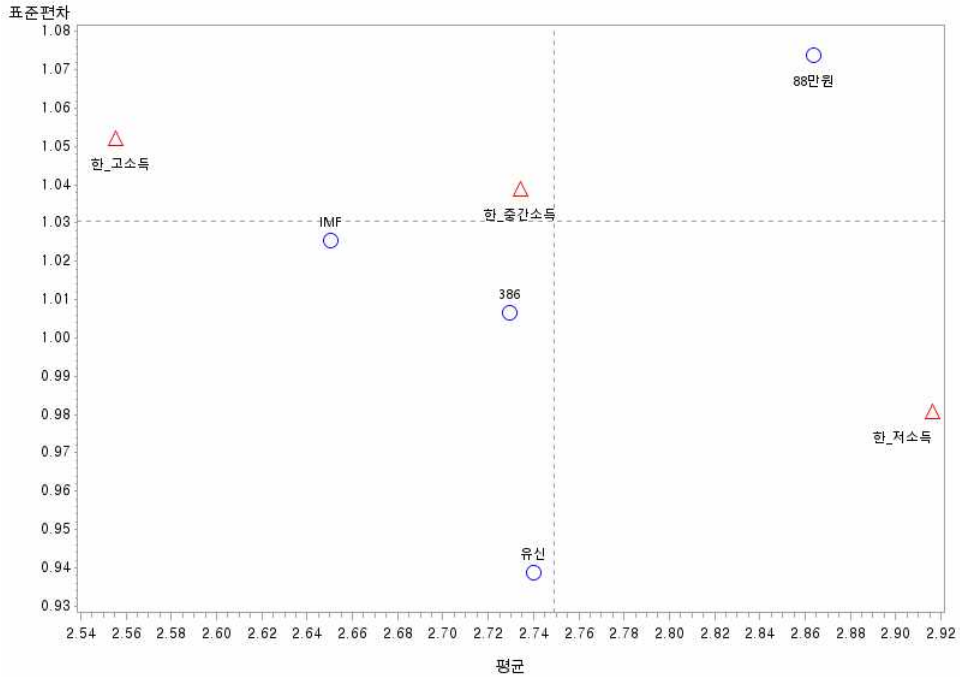


[표 4-36] ⑩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br>대 | 잃어버린<br>세대 | 단카이<br>주니어 | 신진루이<br>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872     | 2.947      | 2.920      | 2.915      | 0.182 | 3.043 | 2.883 | 2.923 | 0.862 |
| SD   | 0.747     | 0.822      | 0.850      | 0.898      |       | 0.942 | 0.798 | 0.843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그림 4-85]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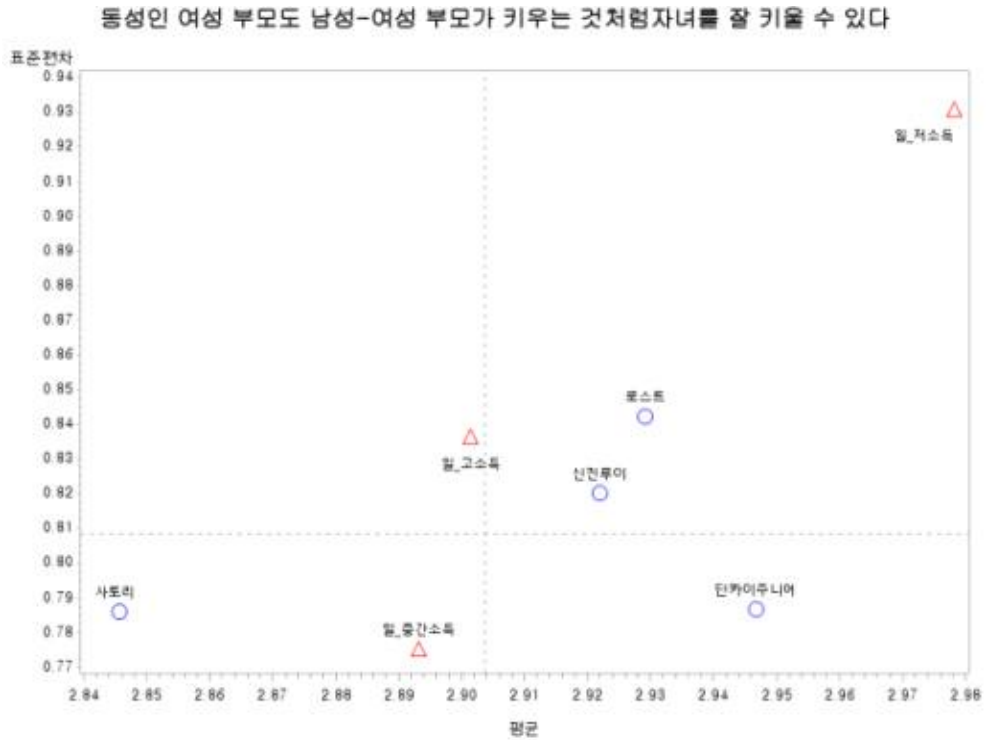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표 4-37] ⑪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br>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br>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864      | 2.651 | 2.730 | 2.740    | 1.268 | 2.916 | 2.734 | 2.556 | 5.717** |
| SD   | 1.074      | 1.025 | 1.006 | 0.939    |       | 0.981 | 1.039 | 1.052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그림 4-86] ①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38] ①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846 | 2.929  | 2.947  | 2.922  | 0.397 | 2.978 | 2.893 | 2.901 | 0.173 |
| SD   | 0.786 | 0.842  | 0.787  | 0.820  |       | 0.931 | 0.775 | 0.836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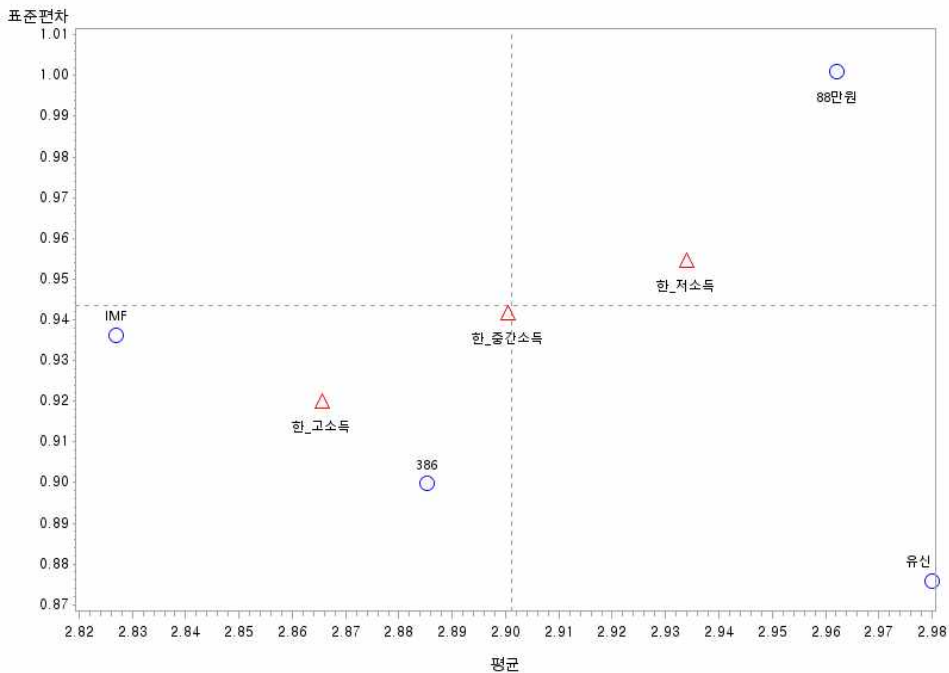


(12) 한부모의 자녀양육: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에, 한국의 경우 세대에 따른 차이에 비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별 소득별 인식의 차이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87]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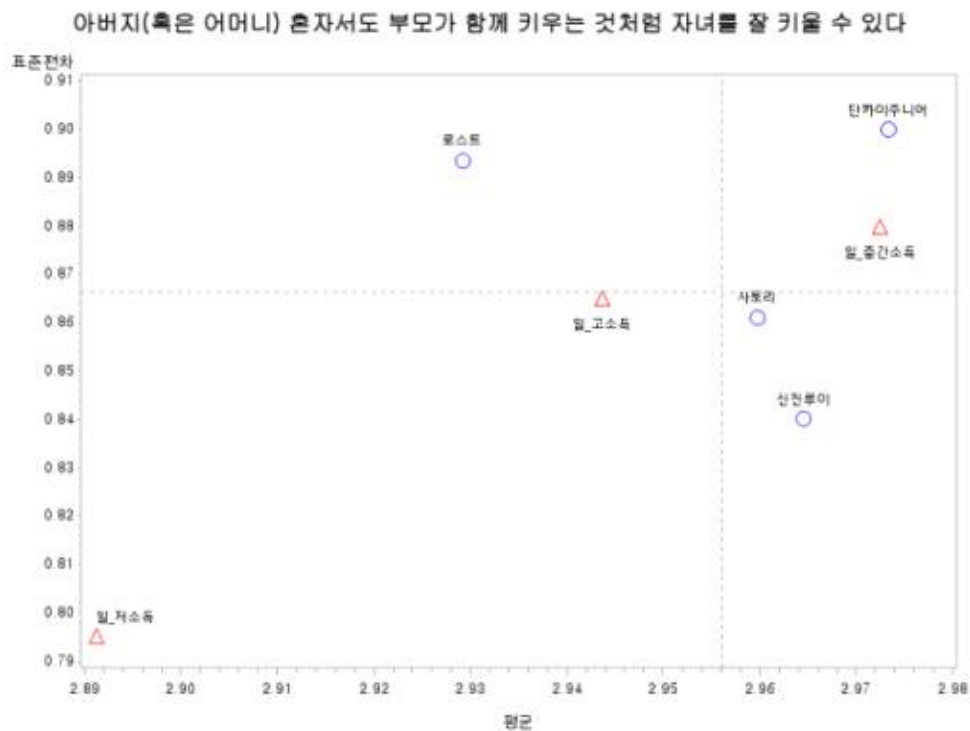


[표 4-39]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한국   | 세대         |       |       |          |       | 소득    |       |       |       |
|------|------------|-------|-------|----------|-------|-------|-------|-------|-------|
|      | 88만원<br>세대 | IMF세대 | 386세대 | 유신<br>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962      | 2.827 | 2.885 | 2.980    | 0.734 | 2.934 | 2.901 | 2.865 | 0.468 |
| SD   | 1.001      | 0.936 | 0.900 | 0.876    |       | 0.955 | 0.942 | 0.920 |       |
| N    | 316        | 312   | 244   | 100      |       | 227   | 553   | 171   |       |

일본 역시 본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격차는 세대별 인식의 격차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88]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표 4-40] ⑫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본의 세대별·소득계층별 동의수준

| 일본   | 세대    |         |        |         |       | 소득    |       |       |       |
|------|-------|---------|--------|---------|-------|-------|-------|-------|-------|
|      | 사토리세대 | 잃어버린 세대 | 단카이주니어 | 신진루이 세대 | F     | 저소득   | 중간소득  | 고소득   | F     |
| Mean | 2.960 | 2.929   | 2.973  | 2.965   | 0.051 | 2.891 | 2.972 | 2.944 | 0.218 |
| SD   | 0.861 | 0.894   | 0.900  | 0.840   |       | 0.795 | 0.880 | 0.865 |       |
| N    | 149   | 113     | 75     | 141     |       | 46    | 290   | 142   |       |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관련 문항들의 세대별, 소득계층별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 개방적인 성관계는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동성 부모와 관련한 문항에 있어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세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대별, 소득계층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세부 문항

| 번호 | 분류              | 문항                                             | 한국 |    | 일본 |    |
|----|-----------------|------------------------------------------------|----|----|----|----|
|    |                 |                                                | 세대 | 소득 | 세대 | 소득 |
| ⑧  | 혼인 외 성관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  |    | △  |    |
| ⑨  | 혼인 외 동거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 ○  |    |    |    |
| ⑩  |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 ⑪  |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 ⑫  | 한부모의 자녀양육       |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다. 회귀분석 결과

이제 가족관 영역별로 세대 요인과 계층요인이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모델의 결과들을 살펴본다.

### 1) 도구주의적 가족관

제일 먼저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가족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면서 가족 단위로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대응한다’는 도구주의적 가족관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의수준을 살펴본다. 위 표에 속하는 도구주의적 가치관 측정 문항별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대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령 문항을 연속변수로 따로 투입하였다. 세대 변수는 더미변수로 투입되었으며, 세대 변수의 기준집단(reference)은 우리의 조사대상중 가장 연령층이 높은 유신세대이다. 소득 변수 역시 더미변수로 투입되었으며 기준집단은 고소득 집단이다. 이 외에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결혼경험, 거주지역, 경제활동유무, 교육수준 등의 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문항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변이가 나타났지만, 대체로 세대에 의한 차이보다는 성별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가족 내부의 자원 분배 양상에 대해 물은 2~5번 문항과 달리, 동질혼에 대하여 물은 1번 문항에 대해서는 계층에 따른 인식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비해서 고소득 가구에 속한 응답자일수록 동질혼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았다. 또한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문항에 대해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저임금, 저금리, 평생직장의 실종, 주거비의 급격한 상승, 극단적 양극화가 계속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이 동에는 한계가 있다. 기회가 적고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할수록 나를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는 오직 가족뿐이고, 그렇기에 결혼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고학력 집단일수록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배우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벌이만으로는 부의 축적과 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 현실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회보장제도마저 취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조건을 재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고소득-고학력 집단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의 결혼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통계청의 ‘2015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 모두 대졸인 부부의 비율은 2011년 53.1%였던 것이 2015년에는 54.4%로 증가하였다.

---

7) 미국 법학자인 준 카르본 미네소타대 교수와 나오미 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저서 미국 젊은 층의 결혼 양상 변화를 분석한 ‘결혼시장’(시대의 창)에서 “(2008~2010년) 소득 상위 1%가 미국 소득의 약 24%를 가져가고, 하위 90%의 임금은 계속 떨어지는 엄청난 소득 격차로 인해 남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이 변화했다”며 “어느 때보다 미국 남녀가 상대의 소득을 중요한 매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격차가 극단적으로 커진 만큼 개인에게 소득이 의미하는 바는 더 커졌고, 이런 환경에서 남녀 모두, 특히 고소득 남녀가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결혼은 동질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 사다리 닫힌 사회일수록 동질혼 강화”, 한국일보 2017. 6. 24)

[표 4-42] 한국: 도구주의적 가족관 관련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한국       |            |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 동질혼      |            | 자녀의 결혼<br>비용 지원 |            | 자녀의 대학<br>교육비 지원 |            | 노부모<br>경제적 부양 |            |
|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확<br>률) | 회귀<br>계수      | (유의확<br>률) |
| 88만원세대            | .064     | (.652)     | .026            | (.842)     | .060             | (.643)     | -.179         | (.153)     |
| IMF세대             | .000     | (.998)     | .049            | (.579)     | .021             | (.814)     | -.037         | (.670)     |
| 386세대             | -.017    | (.851)     | .020            | (.811)     | .044             | (.593)     | -.128         | (.108)     |
| 저소득<br>(중위50%미만)  | -.315**  | (.002)     | .040            | (.667)     | -.144            | (.128)     | -.085         | (.350)     |
| 중위소득<br>(50~150%) | -.145+   | (.092)     | -.053           | (.502)     | -.092            | (.244)     | -.066         | (.391)     |
| 성별                | -.240*** | (.000)     | .317***         | (.000)     | .228***          | (.000)     | .472***       | (.000)     |
| 연령                | .004     | (.500)     | .013*           | (.011)     | .015**           | (.005)     | .005          | (.364)     |
| 결혼경험              | .379***  | (.000)     | .123            | (.137)     | .072             | (.386)     | -.261**       | (.001)     |
| 거주지역              | .203     | (.129)     | .041            | (.740)     | -.047            | (.704)     | .085          | (.477)     |
| 경제활동유무            | -.043    | (.575)     | -.028           | (.690)     | -.094            | (.185)     | -.044         | (.518)     |
| 교육수준              | .080*    | (.017)     | .055+           | (.077)     | .058+            | (.064)     | .040          | (.187)     |
| (상수)              | 2.990    | (.000)     | 1.731           | (.000)     | 2.339            | (.000)     | 3.158         | (.000)     |

주: + p< .10 \*p< .05 \*\* p< .01 \*\*\* p< .001

가족 내에서 자원의 배분(결혼준비 비용, 대학교육비용)에 대한 동의수준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자녀의 결혼과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사고의 영향이 이들 집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녀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과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두 문항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데, 한국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주로 ‘부계 혈통’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가족 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으로는 부양책임을 둘러싼 공적 제도의 확대에 대한 욕구 차이로, 그리고 양성 간의 젠더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지점은, 노부모 부양인식에 있어서 세대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노부모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양하되, 주거는 달리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돌봄 등의 이유로 합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3대 가족은 2010년 4.9%에서 2015년 5.7%로 증가한 바 있다.

이상으로 도구적 가족관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별에 의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세대에 따른 인식의 균열은 다섯 영역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계층에 의한 차이 역시 동질혼 문항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공적 제도가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에서의 효용 극대화 전략을 통해 가족을 생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관점을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세대나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양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세대 간 갈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실제 가족의 삶에서 부양과 돌봄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여성의 기능적 과부하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에서는 가족 형성 지체나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며 근대 이후 정립되어온 한국형 정상 가족의 위기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구주의적 가족관에 대한 일본인들의 동의수준을 살펴본다. 일본 역시 세대 변수는 더미로 투입되었으며, 세대 변수의 기준집단은 조사대상중 가장 연령층이 높은 신진루이 세대였다. 분석모형은 앞 장에서 살펴본 한국인의 인식에 대한 분석모델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일본인들의 인식구조는 한국과는 약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한국인들보다 동의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모든 문항에서 교육수준은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우선, 동질혼에 대한 동의수준을 물은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세대나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만이 드러났다. 가족 내에서 자원의 배분에 대해 물어본 나머지 문항들 가운데, 부모의 자원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결혼비용과 대학 학비의 경우, 결혼비용 문제에 대해서 로스트 세대가 신진루이 세대보다 동의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낮아졌고, 결혼경험자일수록 동의수준이 높았다. 자녀의 대학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과 결혼경험의 영향은 앞 문항과 동일하였고, 세대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표 4-43] 일본: 도구주의적 가족관관련 문항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일본       |            |                 |            |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동질혼      |            | 자녀의 결혼<br>비용 지원 |            | 자녀의 대학<br>교육비 지원 |            | 노부모<br>경제적 부양 |            | 노부모와<br>동거 |            |
|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 사토리세대             | -.126    | (.463)     | -.173           | (.288)     | -.122            | (.473)     | .134          | (.428)     | .122       | (.478)     |
| 로스트세대             | -.164    | (.239)     | -.278*          | (.036)     | -.159            | (.252)     | .152          | (.268)     | .195       | (.163)     |
| 단카이주니어<br>세대      | .143     | (.297)     | -.059           | (.650)     | -.109            | (.424)     | .272*         | (.044)     | .177       | (.197)     |
| 저소득<br>(중위50%미만)  | .003     | (.988)     | .241            | (.130)     | .017             | (.917)     | .055          | (.740)     | .172       | (.305)     |
| 중위소득<br>(50~150%) | -.084    | (.387)     | .034            | (.715)     | -.039            | (.685)     | -.221*        | (.022)     | -.145      | (.140)     |
| 성별                | -.020    | (.828)     | .137            | (.111)     | -.081            | (.371)     | .160+         | (.074)     | .108       | (.237)     |
| 연령                | .003     | (.612)     | -.015**         | (.017)     | -.012*           | (.074)     | .001          | (.902)     | .005       | (.445)     |
| 결혼경험              | .148     | (.159)     | .511***         | (.000)     | .336***          | (.001)     | .036          | (.729)     | .003       | (.976)     |
| 거주지역              | .217     | (.422)     | .063            | (.806)     | -.220            | (.413)     | .260          | (.330)     | -.023      | (.933)     |
| 경제활동유무            | -.141    | (.129)     | -.102           | (.250)     | .056             | (.545)     | .012          | (.899)     | -.036      | (.700)     |
| 교육수준              | .132**   | (.005)     | .086+           | (.056)     | .177***          | (.000)     | .079+         | (.092)     | .139**     | (.004)     |
| (상수)              | 1.622    | (.000)     | 2.642           | (.000)     | 3.071            | (.000)     | 2.106         | (.000)     | 2.054      | (.000)     |

주: + p< .10 \*p< .05 \*\* p< .01 \*\*\* p< .001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최근 결혼 양상과 연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세계화 이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년배 간의 동질혼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일본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파트너와 결합하는 ‘나이 차 많은 결혼’을 택하고 있다. 한 일본 결혼정보회사의 집계에 따르면, 2011년 그 업체를 통해 성사된 결혼 가운데 11~13세 연령 차이의 비율이 2006년 13%에서 2011년 38%까지 급증하였다(주석, 일본 젊은 여성의 현실 중시 풍조 확산, 한국경제매거진, 2012년 4월 11일). 게다가 비혼 인구 비율도 급증하여 후생노동성 국립사

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7%, 여성은 3.33%였지만, 2015년에는 남성 23.4%, 여성 14.1%까지 급증하였다(“난 나와 결혼한다”, 연합뉴스, 2017. 11. 5). 앞 장에서 다룬 우리의 조사 결과 [그림4-1]에서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일본은 62%로 한국의 34.6%에 비하여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5~82년생으로 현재 30대 중반~40대 초반인 잃어버린 세대에게 결혼은 본인들의 상황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게다가 일본 특유의 높은 결혼 비용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들 세대가 유독 결혼 비용 책임 문제에 대하여 낮은 동의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저성장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들이 공유하게 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대 내의 일정한 합의로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의식의 경우,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네 번째 문항에 대하여 단카이주니어세대의 동의수준이 타 세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이 문항에 대해서 연령은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경우, 계층에 의한 영향도 나타났는데, 중위소득에 속한 집단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세대의 효과인지, 아니면 현재 40대로 자신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속해 있기 때문인지는 조금 불분명하다. 다만, 이 점은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부양의식에 비하여 주 부양부담층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동의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집단이나 고소득 집단에 비해 중위소득 집단의 동의수준이 낮게 나타난 계층효과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정부의 책임성

이제 아동 돌봄과 노후소득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에 대하여 세대 요인과 계층요인이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모델의 결과들을 살펴본다.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를 통해 생애주기별 위험을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이 문항은 복지국가에 사회적 합의 혹은 세대 간 계약을 측정하는 지표로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특히 미국의 Preston(1984)에 의해 80년대 초반 아동복지지출과 노인 복지지출 사이의 상쇄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아동 돌봄과 노후소득보장 영역에서의 정부책임성 수준에 대한 지지수준은 복지인식 연구 분야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주제였다. 특히 이 영역에서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클 경우, 핵심경제활동인구인 20~40대와 연금, 의료 등 복지제도의 주수혜층인 60대 이상 인구 사이의 사회적 갈등 촉발될 수 있다.

아동 돌봄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세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세대 외에 계층이나 여타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두 영역에 대한 정부책임성 인식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각각 3.70과 3.41), 386세대의 경우 두 영역 모두에서, IMF 세대는 노후소득 영역에서 유신세대에 비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았다.

386세대의 동의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386세대의 코호트는 이제 50대에 속한다. 50대는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가장 고점에 도달해 있는 시기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연령대에 속한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타 세대에 비해 커서 본인들의 부담이 더 배가될 수 있는 아동 돌봄이나 노후 소득에 대해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386세대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사회학적 세대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 세대가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분석모형에서 소득 변수를 통해 계층적 특성을 통제하고

있기에 후자의 설명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노후소득의 정부책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볼 때, 386세대 뿐만 아니라 IMF 세대 역시 유신세대에 비해서 동의수준이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소득의 정부책임성을 두고 유신세대와 여타의 세대들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에 의한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노후소득의 정부책임성에 대하여 낮은 동의수준을 보여주었다.

아동 돌봄에 대한 결과에서는 세대로서의 특성은 386세대의 특이성에 더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자의 동의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수록 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항 역시 연령층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나면서, 생애주기적인 세대 관점에서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표 4-44] 한국: 정부 책임성 관련 문항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한국           |        |             |        |
|-------------------|--------------|--------|-------------|--------|
|                   | ⑥            |        | ⑦           |        |
|                   |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        | 정보의 노후소득 책임 |        |
|                   | 회귀계수         | (유의확률) | 회귀계수        | (유의확률) |
| 88만원세대            | -.032        | (.803) | -.067       | (.580) |
| IMF세대             | -.045        | (.607) | -.137+      | (.096) |
| 386세대             | -.185*       | (.023) | -.173*      | (.024) |
| 저소득<br>(중위50%미만)  | .003         | (.978) | .081        | (.354) |
| 중위소득<br>(50~150%) | .065         | (.402) | .067        | (.360) |
| 성별                | .005         | (.929) | .010        | (.859) |
| 연령                | -.011*       | (.037) | -.006       | (.213) |
| 결혼경험              | .220**       | (.007) | .046        | (.549) |
| 거주<br>지역(도시=1)    | -.158        | (.192) | -.313**     | (.006) |
| 경제활동유무            | .160*        | (.022) | .101        | (.124) |
| 교육수준              | -.007        | (.820) | -.013       | (.660) |
| (상수)              | 4.117        | (.000) | 4.379       | (.000) |

주: + p< .10 \*p< .05 \*\* p< .01 \*\*\* p< .001

일본의 경우 두 문항 모두에서 세대에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가장 젊은 코호트인 사토리세대의 정부책임성 인식이 타 세대에 비해 크게 비교될 만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 경향을 통제하고도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상당히 독특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는 일본의 타 세대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내셔널리즘적인 일본의 갖가지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다”(노리토시, 2014). 이들 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공공부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운영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타 세대 사이에서는 정부 책임성에 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토리세대의 실재성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복지 재원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세대 갈등이 예고되는 지점이다.

아동 돌봄의 정부책임성에 관한 문항의 경우, 저소득층, 그리고 결혼경험 있는 응답자의 동의수준이 타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일본의 아동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의 경우 무상보육이 아니고, 총 보육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육시설 입소 자체가 어려워 어린 자녀를 맡기지 못한 젊은 층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최근 2017년 총선의 아베-자민당 핵심공약인 '2조엔 복지패키지'중 1조 1천억 엔을 3~5세 어린이 유치원 및 보육원 무상화와 보육원 입소난 해결에 투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이 더 높은 정부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5] 일본: 정부 책임성 관련 문항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일본           |        |             |        |
|-------------------|--------------|--------|-------------|--------|
|                   | ⑥            |        | ⑦           |        |
|                   |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        | 정보의 노후소득 책임 |        |
|                   | 회귀계수         | (유의확률) | 회귀계수        | (유의확률) |
| 사토리세대             | -.291+       | (.082) | -.306+      | (.065) |
| 로스트세대             | -.031        | (.819) | -.024       | (.860) |
| 단카이주니어 세대         | -.064        | (.630) | .022        | (.865) |
| 저소득<br>(중위50%미만)  | .283+        | (.084) | .105        | (.515) |
| 중위소득<br>(50~150%) | .108         | (.260) | .144        | (.127) |
| 성별                | -.047        | (.593) | -.155+      | (.078) |
| 연령                | -.016*       | (.017) | -.006       | (.363) |
| 결혼경험              | .228*        | (.026) | .111        | (.271) |
| 거주 지역             | .034         | (.899) | .107        | (.684) |
| 경제활동유무            | .104         | (.253) | .036        | (.689) |
| 교육수준              | .082+        | (.075) | .034        | (.455) |
| (상수)              | 3.547        | (.000) | 3.535       | (.000) |

주: + p< .10 \*p< .05 \*\* p< .01 \*\*\* p< .001

###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이번 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전통적(혹은 전형적)인 가족 외에 최근 등장하고 있는 동성혼, 한부모 가족, 혼전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수용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분석에 투입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면에서 세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의한 차이보다는 성별과 소득계층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혼전 성관계나 혼전 동거, 동성 부모에 대한 인식을 보면 한국 남성들의 젠더 편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동성 부모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낮은 동의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 남성들이 성별 분업에 기반을 둔 가족 모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적 개방성에 대한 문항에서도 성별은 가장 큰 변산을 보여준다. 남성들일수록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동의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성적 경험이나 문화에 대해서만 개방적이고 '남성다움'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의 근저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동성부모가 이성부모만큼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길고, 결혼 안정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수도 있다. 즉,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커플의 결합방식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수용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동성 가족과 소득 집단 간의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6] 한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관련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한국       |         |         |         |                 |         |                 |         |
|-------------------|----------|---------|---------|---------|-----------------|---------|-----------------|---------|
|                   | ⑧        |         | ⑨       |         | ⑩               |         | ⑪               |         |
|                   | 혼인 외 성관계 |         | 혼인 외 동거 |         |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         |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 |         |
|                   | 회귀 계수    | (유의 확률) | 회귀 계수   | (유의 확률) | 회귀 계수           | (유의 확률) | 회귀 계수           | (유의 확률) |
| 88만원세대            | .170     | (.280)  | .105    | (.535)  | -.082           | (.589)  | .023            | (.878)  |
| IMF세대             | .105     | (.328)  | .185    | (.109)  | -.144           | (.162)  | -.113           | (.268)  |
| 386세대             | .041     | (.683)  | .105    | (.329)  | .062            | (.518)  | .027            | (.778)  |
| 저소득<br>(중위50%미만)  | -.167    | (.144)  | -.192   | (.118)  | .293**          | (.008)  | .298**          | (.006)  |
| 중위소득<br>(50~150%) | -.060    | (.533)  | -.022   | (.831)  | .209*           | (.023)  | .197*           | (.029)  |
| 성별                | .405***  | (.000)  | .581*** | (.000)  | -.255***        | (.000)  | -.264***        | (.000)  |
| 연령                | -.014*   | (.027)  | -.007   | (.282)  | .000            | (.951)  | .003            | (.595)  |
| 결혼경험              | -.210*   | (.036)  | -.247*  | (.022)  | -.268**         | (.005)  | -.209*          | (.027)  |
| 거주 지역             | .125     | (.403)  | .041    | (.797)  | .004            | (.976)  | -.058           | (.683)  |
| 경제활동유무            | .092     | (.286)  | .010    | (.913)  | .148+           | (.072)  | .117            | (.149)  |
| 교육수준              | .067+    | (.074)  | .025    | (.537)  | .043            | (.233)  | .033            | (.350)  |
| (상수)              | 3.398    | (.000)  | 2.907   | (.000)  | 2.557           | (.000)  | 2.566           | (.000)  |

주: + p< .10 \*p< .05 \*\* p< .01 \*\*\* p< .001

일본의 경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면에서 세대나 계층, 연령 등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동의 수준에서 현재 40~50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동의수준이 여타 세대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사회의 가족 변화는 50년대 후반 대체 출산율 이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먼저 시작되었고, 이혼율 역시 60년대에 유럽 국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오치아이(2013)의 연구를 고려할 때, 비교적 풍요로운 시기에 초기 성년기를



보내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이들 세대가 타 세대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여타 문항에서는 개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머지 문항들에서는 오로지 성별만이 영향을 미쳤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동성부모나 한부모가족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역시 일본의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별분업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한국에 비해 낮아 보이는데, 실제 일상에서 양성 간 충돌지점이 될 수 있는 혼전 성관계나 동거 관련 문항에서는 양성 간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혼 경험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이 경험하는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표 4-47] 일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관련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일본       |            |          |            |                 |            |                 |            |
|-------------------|----------|------------|----------|------------|-----------------|------------|-----------------|------------|
|                   | ⑧        |            | ⑨        |            | ⑩               |            | ⑪               |            |
|                   | 혼인 외 성관계 |            | 혼인 외 동거  |            |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            | 동성(여성)부부의 자녀 양육 |            |
|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회귀<br>계수        | (유의<br>확률) |
| 사토리세대             | -.181    | (.383)     | -.163    | (.422)     | -.045           | (.760)     | -.163           | (.258)     |
| 로스트세대             | .073     | (.666)     | .012     | (.941)     | .056            | (.643)     | -.021           | (.857)     |
| 단카이주니어<br>세대      | .287+    | (.084)     | .157     | (.333)     | .010            | (.935)     | -.006           | (.960)     |
| 저소득<br>(중위50%미만)  | -.093    | (.646)     | .160     | (.420)     | .083            | (.566)     | .029            | (.834)     |
| 중위소득<br>(50~150%) | .123     | (.301)     | .024     | (.836)     | -.077           | (.361)     | -.034           | (.676)     |
| 성별                | .145     | (.188)     | .166     | (.122)     | -.243**         | (.002)     | -.214**         | (.005)     |
| 연령                | -.010    | (.229)     | -.001    | (.895)     | .002            | (.753)     | -.001           | (.869)     |
| 결혼경험              | .113     | (.374)     | -.039    | (.751)     | -.092           | (.311)     | -.105           | (.235)     |
| 거주 지역             | -.218    | (.508)     | -.048    | (.881)     | -.301           | (.198)     | -.311           | (.173)     |
| 경제활동유무            | .124     | (.269)     | -.017    | (.879)     | .034            | (.667)     | .001            | (.994)     |
| 교육수준              | .059     | (.302)     | .013     | (.812)     | .052            | (.206)     | .048            | (.229)     |
| (상수)              | 3.481    | (.000)     | 3.014    | (.000)     | 3.155           | (.000)     | 3.333           | (.000)     |

주: + p< .10 \*p< .05 \*\* p< .01 \*\*\* p< .001

## 라. 소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각 세대의 가족의 역할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정부책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차이와 각 세대의 실재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문항에 따라서 유신세대가 가장 높은 세대 내의 동질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뒤를 386세대와 88만원세대가 이었다. 일본의 경우 로스트세대와 사토리세대, 신진루이 세대가 골고루 세대 내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양국의 각 세대가 여러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하나의 엔텔레키를 갖는 역사적 세대로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72년생~82년생 코호트인 IMF세대가, 일본의 경우에는 69년생~74년생 코호트인 단카이주니어세대가 타 세대에 비해서 세대 내 동질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 학력 등의 요인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의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바, 세대별 차이와 계층에 따른 차이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386세대의 특이성이, 일본의 경우에는 사토리세대의 특이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한국의 도구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세대 차이의 이면에 배태되어 있는 계층 간 차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결론

1. 연구요약
2. 제언



## V. 결론

###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세대 간, 계층 간 가족가치관과 생애주기별 복지문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와 소득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각 집단별 인식의 동질성 수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주요한 인식의 균열이 세대 간의 격차에 의하여 발생하는지, 아니면 소득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도구주의적 가족관, 정부의 책임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에 있어서 대체로 세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보다는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가령 동질혼에 대한 인식은 고소득층이 중위소득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동성인 남성과 여성의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고소득층이 여타의 소득계층에 비하여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세대에 따른 인식의 격차 문제에 비하여 소득 계층에 따른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정부책임성에 관련한 문항에서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IMF세대와 386세대는 고령층에 진입하는 유신세대에 비하여 소득수준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386세대는 아동 돌봄에 대한 정부책

임성에 있어서도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 한국에서 386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정부의 책임 영역에 대한 동의 수준이 이질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이 일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였으나, 그 안에서도 386세대의 고유한 특성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 한국 회귀분석 결과 요약

| 구분                      |   |                  | 88만<br>원세대                                     | IMF<br>세대 | 386<br>세대 | 저소득 | 중위<br>소득 |
|-------------------------|---|------------------|------------------------------------------------|-----------|-----------|-----|----------|
| 도구적<br>가족관              | ① | 동질혼              |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                      |           |           | -   | -        |
|                         | ② | 자녀의 결혼 비용 지원     |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           |     |          |
|                         | ③ | 자녀의 대학 교육비 지원    |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           |     |          |
|                         | ④ | 노부모 경제적 부양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           |     |          |
|                         | ⑤ | 노부모와 동거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     |          |
| 정부책임성                   | ⑥ |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 아동 돌봄(양육)                                      |           | -         |     |          |
|                         | ⑦ | 정부의 노후 소득 책임     | 노후 소득                                          | -         | -         |     |          |
| 새로운<br>가족에<br>대한<br>수용성 | ⑧ | 혼인 외 성관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           |     |          |
|                         | ⑨ | 혼인 외 동거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           |           |     |          |
|                         | ⑩ | 동성(남성) 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
|                         | ⑪ | 동성(여성) 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
|                         | ⑫ | 한부모의 자녀양육        |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일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같은 항목에 있어서는 동의 점수가 높으며, 세대와 소득계층 모두에서 특별한 인식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타 부문에 있어서는 소득계층에 비하여 세대 간의 인식 격차가 일부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사토리세대는 아동 돌봄과 노후 소득 모두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연령과 소득수준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표 5-2] 일본 회귀분석 결과 요약

| 구분             |   |                                                                 | 사토리세대 | 로스트세대 | 단카이주니어 | 저소득 | 중위소득 |
|----------------|---|-----------------------------------------------------------------|-------|-------|--------|-----|------|
| 도구적 가족관        | ① | 동질혼<br>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                                |       |       |        |     |      |
|                | ② | 자녀의 결혼비용 지원<br>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 -     |        |     |      |
|                | ③ |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br>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       |        |     |      |
|                | ④ | 노부모 경제적 부양<br>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       | +      |     | -    |
|                | ⑤ | 노부모와 동거<br>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        |     |      |
| 정부책임성          | ⑥ |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br>아동 돌봄(양육)                                       | -     |       |        | +   |      |
|                | ⑦ |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br>노후 소득                                            | -     |       |        |     |      |
|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 ⑧ | 혼인 외성관계<br>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       | +      |     |      |
|                | ⑨ | 혼인 외동거<br>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       |       |        |     |      |
|                | ⑩ | 동성(남성) 부부의 자녀 양육<br>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 구분 |   |                  |                                                | 사토리세대 | 로스트세대 | 단카이주니어 | 저소득 | 중위소득 |
|----|---|------------------|------------------------------------------------|-------|-------|--------|-----|------|
|    |   |                  | 다.                                             |       |       |        |     |      |
|    | ⑪ | 동성(여성) 부부의 자녀 양육 |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    | ⑫ | 한부모의 자녀양육        |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       |        |     |      |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각 사안에 따라 세대와 소득계층에 다른 인식의 분절 유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소득계층이 중요한 균열로 나타났으며, 세대 중에서는 386세대가 여타의 세대와 이질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대, 특히 사토리세대의 인식 유형이 여타의 세대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소득에 따른 차이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국가별로 이질성을 나타내는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각 사안에 따른 정책적 해법 역시 요구된다. 다음 절에서는 우선 분석 결과가 갖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세대 갈등의 통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 제언

### 가. 사회정책 관련 갈등해소 방안

#### 1) 아동 돌봄

우선 아동 돌봄에 관한 정부책임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소득계층별 동의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면 한국과 일본의 영유아 보육 제도와 관련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3~6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모두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시설과 관련한 제도 역시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5-3]한국과 일본의 영유아 보육 제도

|    | 제도                                                                                                     | 비용                                                                                                        | 0~2세<br>시설 등록률 | 3~6세<br>시설 등록률 |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2세: 어린이집</li> <li>•3~5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누리과정 프로그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지원</li> </ul>                                        | 34.1%          | 83%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2세: 어린이집</li> <li>•3~5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비용은 20,000엔에서 50,000엔 수준으로 지자체, 아동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함</li> </ul> | 25.9%          | 90%            |

자료: 신윤정 외(2013)

그러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나누지 않고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 소득계층이 일정한 보육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인가받은 보육시설과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경우 공공 조직이거나 민간 조직이더라도 비영리사회복지기구이며, 지자체의 담당부서가 이들 보육시설의 보육료와 보육시설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다. 더구나 인가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아동의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까지 절감될 수 있다. 반면 비인가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 시설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한 편이며, 보육료 부과 시 가구소득이나 가족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비싼 비인가 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면서 자녀가 인가된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된다(신윤정 외, 2013). 이러한 아동 보육 정책에 있어서 낮은 포괄성은 곧 저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향후 보다 보편적이

며, 특히 저소득층의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부책임성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모든 세대와 계층에 걸쳐 일본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확대에 관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우호적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공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 수준으로 일본의 5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의 고령 부양비가 한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공공지출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공공지출은 곧 노인층의 높은 빈곤률로 연결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의 노인빈곤률이 19.4% 정도에 머무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인의 노후소득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정부의 책임성 및 기대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4]한국과 일본의 노후소득보장현황

|    | 고령 부양비 | GDP 대비 노인 및 유족 수당 지출 수준 | 노인빈곤률 |
|----|--------|-------------------------|-------|
| 한국 | 19.6   | 2.2                     | 49.6  |
| 일본 | 47.2   | 10.2                    | 19.4  |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그 중에서도 현재 은퇴를 경험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유신세대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클 수 있다. 물론 이미 고령층에 진입한 이전 세대에 비하여 유신세대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불안감은 여전하다. 과거 제도 시행 초기에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이 대규모 사

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자영업자, 주부 등 유신세대 인구의 상당수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연금은 2006년에 이르러서야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당연 적용사업장이 확대됨으로써 그 이전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제도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체감하는 노후소득 준비의 수준과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30~40대에 비하여 고령층의 노후준비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5] 노후 준비 여부(2017)

|        | 준비하고(되어) 있음 | 준비하고(되고) 있지 않음 |
|--------|-------------|----------------|
| 19~29세 | 53.3        | 46.7           |
| 30대    | 83.8        | 16.2           |
| 40대    | 83.5        | 16.5           |
| 50대    | 82.3        | 17.7           |
| 60세 이상 | 57.2        | 42.8           |

자료: 사회조사(통계청, 2017)

더불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유신세대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고령층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처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신세대는 여타의 세대에 비하여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향후 노후소득의 확대 속도나 방식에 있어서 세대 간 이견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도 조정 시 세대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이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사토리세대의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토리세대의 응답 평균 점수는 여타의 세대와 비교할 때 1.3~1.8점 가량 차이가 났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평균 점수 차이와 견줄 정도로 큰 차이이다. 통계적으로도 사토리세대는 연령과 소득 수준을 통제하고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토리세대의 동의 수준이 낮은 까닭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윤석명, 2013). 1965년 생산활동인구 9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던 비율이 2012년에는 이미 2.4명당 1명이 되었으며, 2050년에는 1.2명당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게 되어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예고된 부양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지원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재정구조로 향후 정부재정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대별로 형평성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동의 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토리세대의 고유한 엔텔레키(entelechy)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토리세대의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세대보다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경쟁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는 욕망과 집착을 버린 채로 소소한 삶의 의미를 찾는 탈존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더불어 일본의 타 세대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갖가지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에서(노리토시, 2014) 이들 세대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과 이의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연령을 통제하고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사토리세대의 실재성을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토리세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고유성은 향후 복지정책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세대 갈등을 예견할 수 있는 지점으로, 다음에서 논의하는 세대 통합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나. 사회 통합 관련 제언

### 1) 소득계층별 갈등

2015년 한국에는 수저계급론이 등장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영어 표현에서 시작된 수저론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 정도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계급이 정해짐을 뜻한다. 이러한 자조 섞인 신조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과 고위층 자제들의 특혜 취업 논란이 맞물리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 N포세

대로 불리는 청년층은 더 이상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며, ‘노오력’ 이나 ‘헬조선’ 이라는 신조어로 현실을 꼬집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낮은 계층 이동성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한 인식의 균열로 소득계층이 나타났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고소득층은 동질혼에 관한 동의 정도가 다른 소득 계층과 비교해 높았으며,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갈등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동질혼의 경향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면에서(석재은·노혜진, 2013), 향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질혼의 경향이 고학력의 교육수준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단순히 교육적 동질혼에 그치지 않고, 직업적 동질혼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흔히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직업의 분리 현상과 임금 불평등의 감소가 동질혼에 따른 가구소득불평등 증가폭 역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을 감소시키는 노력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소득 계층의 정치적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 이를 개진하여 토론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정치의 장에서 저소득계층의 의견은 쉽게 반영되지 못한다. 가령 선거에 투표할 권리조차 현실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차등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실제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거리비용, 시간비용, 등록비용을 덜어주는 사전투표제가 2014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투표 참여가 진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기쁨·엄기홍, 2016). 이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치의 장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사회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 이외에도 온라인 등을 통하여 정책을 발의하거나 토론하는 창구를 만들어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세대별 갈등

주요한 정책적 영역에서 세대별로 이해관계 다르다면,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이 정치의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조율되어야 세대에 따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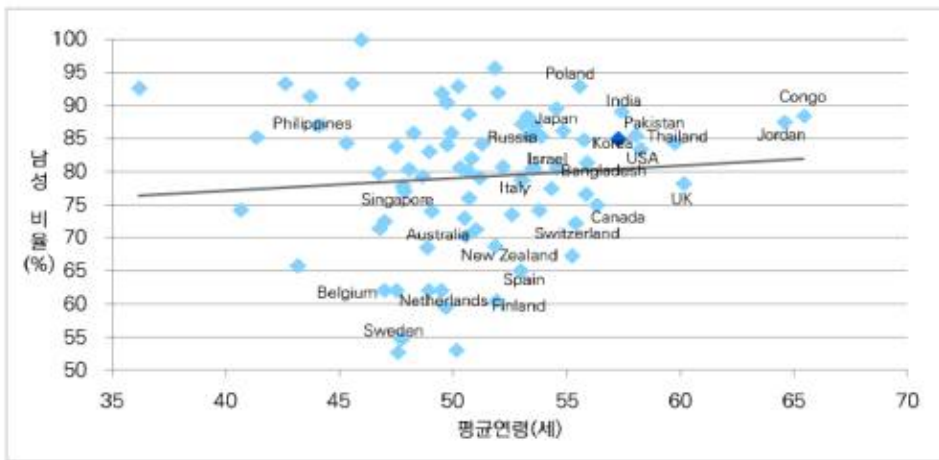
우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토론은 토론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 현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학습하고 설득하여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이종희, 2011).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토론 교육과 토론 문화는 초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개인에 대한 존중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인 문화의 영향 하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국민호, 2000). 한국에서는 개인보다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우선시 되며, 합리적인 계약관계보다는 나이와 서열에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세대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활발히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토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공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치의 장에서 흔히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이스라엘에서는 국회 내에 설치된 ‘미래세대위원회’가 입법이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김희삼, 2015). 이 위원회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법제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 국회에서 환경 문제와 아동 보호 등의 법안에 참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구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구성에 있어서 연령대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제도적 개선을 요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여타의 국가들의 의원 평균 연령에 비하여 상당히 고령화되어있다. 입법부라는 정치의 장에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표출해내고 토론을 통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나치게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5-1] 각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 및 남성 비율



자료출처: 김희삼(2015), 그림11-2 참조

이처럼 국회의 세대별 낮은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치적 신인들의 등용의 장벽을 보다 낮추고, 세대별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제 일부를 정치의 장에서 흔히 배제되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래대표들로 선출하는 “미래대표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세대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가 제고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70~74년생을 이후 인구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세대들의 투표율이 낮을 경우 제 목소리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김희삼, 2015). 현재 고령층은 이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젊은 층에 비해 투표율도 높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 젊은 세대들의 투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역시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및 부록

- Botwinick, J. (1978). Aging and behavior: A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research findings. Springer.
- C Attias-Donfut, S Arber (2002). Equity and solidarity across the generations.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ies. Edited by C Attias-Donfut, S Arber, Routledge
- Esping-Andersen, Gøsta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UK Malden, Massachusetts: Polity
- Kei, K., Koichi and Miwako (2010). The Survey of Japanese Value Orientations: Analysis of Trends over Thirty-Five Years, NHK Broadcasting Studies, 8.
- Kohli, M. (2010). Age Groups and Generations: Lines of Conflict and Potentials for Integration. In J. Tremmel (Ed.),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Rush Hour” of the Cohorts 1970-1985 in a Generational Comparison (pp. 169-185).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annheim, K.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ited by Paul Kecskemeti. Routledge & Kegan Paul.
- Ochiai, E.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219-245.
- Shorter, Edward(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Basic Books.
- Takase, M., Oba, K., & Yamashita, N. (2009). Generational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job turnover among Japanese nurses: An exploratory comparative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7), 957-967.
- Yamashita, J., Soma, N., & Chan, R. K. H. (2013). Re-examining family-centered care arrangements in East Asia. In M. Izuhara (Ed.), *Handbook on East Asian social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 권복순, & 김태자. (2008). 2, 30 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제 1 차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자료집, 523-548.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예희. (2010). 여성의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 구조와 결정요인,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문화와 사회」, 17, 207-248.
- 김수정 · 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한국사회학*, 47(2), 101-141.
- 김혜영. (2001).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2(1), 79-105.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홍규, 원애경. (2003). *상담심리학*. 서울: 형설출판사, 545, 20.
- 김희삼. 2015.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KDI 연구보고서
-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민병희. (2010). “세계화 시대의 청년빈곤계층”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 대회 논문집」, 1209-1221.
- 박경숙, 서이중, & 김수중. (2013). 세대 갈등 의 소용돌이: 가족, 경제, 문화, 정치적 메커니즘. 태산출판사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나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4, 63-76.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병영. (2007). 1980 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 현상과인식, 31(1 · 2), 81-101.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Vol. 1078). 나남.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0-34.
- 박재홍. (2017). 세대 차이와 갈등-이론과 현실, 경상대학교 출판부
- 부르디외 (1979),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새물결
- 사사노 미사에. (2017).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일본연구」, 72, 37-64.
- 석재은, 노혜진. 2013. 동질혼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동질혼 및 직업적 동질혼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권 2호, p. 167~195
- 송다영. (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22, 231-254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35-60.
- 신광영 · 문수연. (2014). 계급,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 「산업노동연구」, 20(1), 31-64.
-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 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정책보고서
- 안호용, 김홍주. (2000).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3(단일호), 89-132.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51권, 229-256.
-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 우석훈. (2007). 유신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 의 경제학. 레디앙.
- 우에노, 치즈코,(1994).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 당대.
- 윤기쁨, 엄기홍. 2016. 사전투표제가 새로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동원하였는가?: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미래정치연구 6권 2호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경제와사회, 61-88.
- 윤석명, 류건식, 이정우, 우해봉, Takayasu Yuichi, Ismo Risku, 남효정, 서희정. 201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 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은석 (2007).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종희. (2011).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권, p.85~128
-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2), 161-202.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장경섭 · 진미정 · 성미애 ·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31-52.
- 전상진. (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한·독사회과학논총」, 20(1), 127-150.
-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 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研究論叢, 32(-): 49-92.

- 조중빈. (2003). 16 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In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차성란. (2014). 가족돌봄기능과 관련된 세대갈등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111-133.
- 최균, 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0): 223-254.
- 허석재. (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정신문화연구, 37(1), 257-290.





【부록】 가족가치설문지

6개국 국민의 가족범위와 인식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가족은 혈연, 결혼 등의 관계로 맺어져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보호하는 공동체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의식 및 가치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 안에서도 연령,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러한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포착하고, 각국 국민들이 가진 가족 가치관의 특성을 찾아 비교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조사는 약 10분이 소요되며 참여해주신 분께는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해 드립니다. 설문과정에서 성명이나 전화번호, 개인식별부호 등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설문 응답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책임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설문이 시작된 후에도 원치 않으실 때는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응답자께서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않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공공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실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정책 대응을 이끌어내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한국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분석•활용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본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1개 선택]

1) 예      2) 아니요 →조사 중단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숫자입력] (        ) 년

3. 귀하의 **국적**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

4. [한국일 경우] 귀하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도에서 선택]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세종      ⑰ 제주

4.[日本の場合] あなたが今住んでいるところはどこですか？[地図から選'k]

- ① 관동      ② 긴키      ③ 규슈      ④ 중국/시코쿠  
⑤ 중부      ⑥ 북해도/동북

4-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도시
② 농어촌

5. 귀하는 스스로 평가하기에 귀하의 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5-1. 귀하 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입의 총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기입 ( )

5-2.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본인 외 1명    ③ 본인 외 2명    ④ 본인 외 3명  
⑤ 본인 외 4명  
⑥ 본인 외 5명    ⑦ 본인 외 6명 이상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이슬람교  
⑥ 힌두교      ⑦ 루터교      ⑧ 기타(\_\_\_\_\_)    ⑨ 무교      ⑩ 응답하고 싶지 않음

7. 귀하께서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2년제 대학/전문대학    ④ 4년제 대학교  
⑤ 대학원 석사    ⑥ 대학원 박사

8. 귀하께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하고 있음 → 8-1      ② 하고 있지 않음 → 8-4

8-1. [8=1을 선택한 자에게만]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일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① 상용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② 파트타임직 (주당 30시간 미만)  
③ 자영업

8-1-1. [8=1을 선택한 자에게만] 귀하의 월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자기 기입(                      )

8-2. [8=1을 선택한 자에게만]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만일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합산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숫자 입력]

총 일주일에 (                      ) 시간 정도

8-3. [8-1=1~2 선택한 자] 귀하의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① 정부 및 공공기관 ② 사기업 및 소상공업 ③ 비영리기관(NGO) ④ 모르겠음 ⑤ 기타(\_\_\_\_\_)

8-4. [8-2를 선택한 자에게] 귀하는 현재 구직활동 중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하고 있음 → 9로 ② 하고 있지 않음 → 8-5로

8-5.[8-4=2를 선택한 자에게만]귀하께서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귀하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은퇴 또는 연금생활자 ② 양육 및 가사 ③ 학업 ④ 건강상의 이유 ⑤ 기타(\_\_\_\_\_)

9.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결혼한 적 없음 ② 결혼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함 ③ 결혼했지만, 배우자와 따로 생활함 ④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 ⑤ 이혼함 ⑥ 사별함 ⑦ 기타 ( )

9-1.[9=2~3, 5~6을 선택한 자에게] 귀하의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는 무엇입니까?

[9=4을 선택한 자에게] 귀하와 동거 중인 자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2년제 대학/전문대학 ④ 4년제 대학교 ⑤ 대학원 석사 ⑥ 대학원 박사

9-2. [9=2~4를 선택한 자에게]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께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하고 있음 → 9-3 ② 하고 있지 않음 → 9-6

9-3. [9-2=1를 선택한 자에게만]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일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① 상용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② 파트타임직 (주당 30시간 미만)  
③ 자영업

9-4. [9-2=1를 선택한 자에게만]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만일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합산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숫자 입력]

총 일주일에 ( ) 시간 정도

9-5. [9-3=1,2를 선택한 자에게만]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의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① 정부 및 공공기관    ② 사기업 및 소상공업    ③ 비영리기관(NGO)    ④ 모르겠음    ⑤ 기타( )

9-6. [9-2=2를 선택한 자에게]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는 현재 구직활동 중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하고 있음 → 10    ② 하고 있지 않음 → 9-7

9-7. [9-6=2를 선택한 자에게]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중인 자)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은퇴 또는 연금생활자    ② 양육 및 가사    ③ 학업    ④ 건강상의 이유  
⑤ 기타( )

10. 귀하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제외한 명수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숫자 입력] ( )명

11. 귀하의 형제 자매는 모두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분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0'을 입력해 주세요) [숫자 입력]

| 형 또는 오빠 | 누나 또는 언니 | 남동생  | 여동생  |
|---------|----------|------|------|
| ( )명    | ( )명     | ( )명 | ( )명 |

12.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12-1로 ② 없다 →12-5로

[12=1 응답자만 질문] 12-1.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인가요? [1~20까지 숫자 입력] ( ) 명

[12=1 응답자만 질문/12-1에서 응답한 자녀 수만큼 반복해서 질문]

12-2. 귀하의 자녀의 출생연도와 성별을 입력해주세요. [출생연도]

| 자녀번호 | 12-2a. 출생연도 | 12-2b. 성별 |
|------|-------------|-----------|
| 자녀1  | ( )년        | 1) 남 2) 여 |
| 자녀2  | ( )년        | 1) 남 2) 여 |
| 자녀3  | ( )년        | 1) 남 2) 여 |

[12=1 응답자만 질문]12-3. 귀하께서는 본인 자녀의 양육 및 보육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도움을 받지 않음 ② 친가의 도움을 받음 ③ 외가의 도움을 받음  
④ 양가 모두의 도움을 받음

[12-3=2~4 응답자만 질문]12-4.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총 얼마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받으셨나요? [숫자입력]

( )년 ( ) 개월동안, 일주일 평균 ( ) 시간

12-5. 귀하의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12-5-1] ② 아니다 → [12-5-2]

12-5-1. 귀하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면, 평균적으로 월 몇 엔  
정도 드리고 계신가요? 월 평균 ( )

12-5-2.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신가요?

① 그렇다 → [12-5-3] ② 아니다 → [12-5-4] ③ 모른다

12-5-3. 귀하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다면,  
월 평균 수급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다 → 월 평균 ( ) 엔 ② 모른다

12-5-4. 배우자의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12-5-5] ② 아니다 → [12-5-6]

12-5-5. 배우자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면, 평균적으로 월 몇 엔  
정도 드리고 계신가요? 월 평균 ( )'

12-5-6.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신가요?

① 그렇다 → [12-5-7] ② 아니다 → [12-6] ③ 모른다

12-5-7.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다면, 월 평균 수급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다 → 월 평균 ( )' ② 모른다

[12=2 응답자만 질문]12-6. 귀하께서는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  
까? [1개 선택]

① 있다 ② 없다

지금부터는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 및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A1. 다음 중 귀하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시된 보기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

[모두 선택]

- |                                     |                            |           |                    |                |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자녀      | ④ 배우자              | ⑤ 형제           |
| ⑥ 형제의 배우자                           | ⑦ 자매                       | ⑧ 자매의 배우자 | ⑨ 배우자의 아버지         | ⑩ 배우자의 어머니     |
| ⑪ 배우자의 형제                           | ⑫ 배우자의 자매                  | ⑬ 조카      | ⑭ 이모               | ⑮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 ⑯ 고모                                | ⑰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⑱ 이모부     | ⑲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
| ⑳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㉑ 고모부                      | ㉒ 할아버지    | ㉓ 할머니              |                |
| ㉔ 외할아버지                             | ㉕ 외할머니                     | ㉖ 의붓아버지   | ㉗ 의붓어머             |                |
| ㉘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㉙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                    |                |
| ㉚ 백부/숙부의 자녀                         | ㉛ 고모의 자녀                   | ㉜ 외삼촌의 자녀 | ㉝ 이모의 자녀           | ㉞ 사위           |
| ㉟ 며느리                               | ㊱ 친손자녀                     | ㊲ 외손자녀    | ㊳ 친구               | ㊴ 애인           |
| ㊵ 룸메이트                              | ㊶ 이혼한 배우자                  | ㊷ 이웃      | ㊸ 반려동물             |                |
| ㊹ 기타 혈연자(        )                  | ㊺ 기타 비혈연자(        )        |           |                    |                |



문A1-1. [A1의 응답 보기만 제시] 귀하께서 선택하신 다음 가족원들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 현재<br>살아계심<br>→A1-2로 | 2.<br>돌아가셨<br>음.<br>→(A1-2~A1-11 SKIP) | 3.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이지만<br>가족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현재<br>응답자 본인에게 손자녀는 없지만<br>손자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br>→(A1-2~A1-11 SKIP)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 3) 자녀                      | ①                       | ②                                      | ③                                                                                                              |
| 4) 배우자                     | ①                       | ②                                      | ③                                                                                                              |
| 5) 형제                      | ①                       | ②                                      | ③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 7) 자매                      | ①                       | ②                                      | ③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③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③                                                                                                              |
| 13) 조카                     | ①                       | ②                                      | ③                                                                                                              |
| 14) 이모                     | ①                       | ②                                      | ③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③                                                                                                              |
| 16) 고모                     | ①                       | ②                                      | ③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③                                                                                                              |
| 18) 이모부                    | ①                       | ②                                      | ③                                                                                                              |

|                                       |   |   |   |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③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 어머니)       | ① | ② | ③ |
| 21) 고모부                               | ① | ② | ③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③ |
| 23) 할머니                               | ① | ② | ③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③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③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③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③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③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③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③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③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 34) 사위                                | ① | ② | ③ |
| 35) 며느리                               | ① | ② | ③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③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③ |
| 38) 친구                                | ① | ② | ③ |
| 39) 애인                                | ① | ② | ③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③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③ |
| 42) 이웃                                | ① | ② | ③ |

|                |   |   |   |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③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③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③ |

문A1-2. [A1-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 선택하신 다음 가족원들과 본인의 유대 관계는 어떤 편입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매우 약함<br>1 ←-----→ 10<br>매우 강함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3)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5)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7)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13) 조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   |   |   |   |   |   |   |   |
|---------------------------------------|---|---|---|---|---|---|---|---|---|---|
| 14) 이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6) 고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8) 이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1) 고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3) 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4) 사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5) 며느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   |   |   |   |   |   |   |
|----------------|---|---|---|---|---|---|---|---|---|
| 38) 친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39) 애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2) 이웃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문A1-3. [A1-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현재 해당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 함께 살고있음<br>→(A1-4, A1-5 SKIP) | 2. 함께 살고있지<br>않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 3) 자녀       | ①                                | ②                |
| 4) 배우자      | ①                                | ②                |
| 5) 형제       | ①                                | ②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 7) 자매       | ①                                | ②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                                       |   |   |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 13) 조카                                | ① | ② |
| 14) 이모                                | ① | ②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 16) 고모                                | ① | ②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 18) 이모부                               | ① | ②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 21) 고모부                               | ① | ②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 23) 할머니                               | ① | ②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 34) 사위                                | ① | ② |
| 35) 며느리                               | ① | ②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                |   |   |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 38) 친구         | ① | ② |
| 39) 애인         | ① | ②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 42) 이웃         | ① | ②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문A1-4. [A1-1=1 & A1-3=2 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가족과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주<br>1회<br>이상 | 1개월<br>1~2회 | 2~3개<br>월에<br>1회 | 1년에<br>1~2회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 3)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4)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5) 형제      | ①              | ②           | ③                | ④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7) 자매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조카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이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고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이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고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사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35) 며느리        | ① | ② | ③ | ④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8) 친구         | ① | ② | ③ | ④ |
| 39) 애인         | ① | ② | ③ | ④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③ | ④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42) 이웃         | ① | ② | ③ | ④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③ | ④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문A1-5. [A1-1=1 & A1-3=2 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셨습니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  
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주<br>1회<br>이상 | 1개월<br>1~2회 | 2~3개<br>월에<br>1회 | 1년에<br>1~2회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 3)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4)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5)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조카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이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고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이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고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4) 사위                | ① | ② | ③ | ④ |
| 35) 며느리               | ① | ② | ③ | ④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8) 친구                | ① | ② | ③ | ④ |
| 39) 애인                | ① | ② | ③ | ④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③ | ④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42) 이웃                | ① | ② | ③ | ④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③ | ④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문A1-6. [A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으로부터 고민 상담이나 대화를 통한 정서적인 지지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 얻은 적<br>있음 | 2. 얻은 적<br>없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 3) 자녀                      | ①             | ②             |
| 4) 배우자                     | ①             | ②             |
| 5) 형제                      | ①             | ②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 7) 자매                      | ①             | ②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 13) 조카                     | ①             | ②             |
| 14) 이모                     | ①             | ②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 16) 고모                     | ①             | ②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 18) 이모부                    | ①             | ②             |

|                                       |   |   |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 21) 고모부                               | ① | ②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 23) 할머니                               | ① | ②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 34) 사위                                | ① | ② |
| 35) 며느리                               | ① | ②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 38) 친구                                | ① | ② |
| 39) 애인                                | ① | ②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 42) 이웃                                | ① | ②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문A1-7. [A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에게 고민 상담이나 대화를 통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 제공한<br>적 있음 | 2. 제공한<br>적 없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 3) 자녀                      | ①              | ②              |
| 4) 배우자                     | ①              | ②              |
| 5) 형제                      | ①              | ②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 7) 자매                      | ①              | ②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 13) 조카                     | ①              | ②              |
| 14) 이모                     | ①              | ②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 16) 고모                     | ①              | ②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 18) 이모부                    | ①              | ②              |

|                                       |   |   |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 21) 고모부                               | ① | ②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 23) 할머니                               | ① | ②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 34) 사위                                | ① | ② |
| 35) 며느리                               | ① | ②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 38) 친구                                | ① | ② |
| 39) 애인                                | ① | ②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 42) 이웃                                | ① | ②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문A1-8. [A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나 학비, 용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 얻은 적<br>있음 | 2. 얻은 적<br>없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 3) 자녀                      | ①             | ②             |
| 4) 배우자                     | ①             | ②             |
| 5) 형제                      | ①             | ②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 7) 자매                      | ①             | ②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 13) 조카                     | ①             | ②             |
| 14) 이모                     | ①             | ②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 16) 고모                     | ①             | ②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 18) 이모부                    | ①             | ②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                                       |   |   |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 21) 고모부                               | ① | ②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 23) 할머니                               | ① | ②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 34) 사위                                | ① | ② |
| 35) 며느리                               | ① | ②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 38) 친구                                | ① | ② |
| 39) 애인                                | ① | ②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 42) 이웃                                | ① | ②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문A1-9. [A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에게 생활비나 학비, 용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 제공한<br>적 있음 | 2. 제공한<br>적 없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 3) 자녀                      | ①              | ②              |
| 4) 배우자                     | ①              | ②              |
| 5) 형제                      | ①              | ②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 7) 자매                      | ①              | ②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 13) 조카                     | ①              | ②              |
| 14) 이모                     | ①              | ②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 16) 고모                     | ①              | ②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 18) 이모부                    | ①              | ②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                                       |   |   |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 21) 고모부                               | ① | ②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 23) 할머니                               | ① | ②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 34) 사위                                | ① | ② |
| 35) 며느리                               | ① | ②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 38) 친구                                | ① | ② |
| 39) 애인                                | ① | ②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 42) 이웃                                | ① | ②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문A1-10. [A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으로부터 청소, 빨래 등의 일상생활의 도움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주<br>1회<br>이상 | 1개월<br>1~2회 | 2~3개<br>월에<br>1회 | 1년에<br>1~2회 | 1년에<br>1회<br>미만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조카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이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고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이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③ | ④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1) 고모부                               | ① | ② | ③ | ④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3) 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③ | ④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③ | ④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4) 사위                                | ① | ② | ③ | ④ |
| 35) 며느리                               | ① | ② | ③ | ④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8) 친구                                | ① | ② | ③ | ④ |
| 39) 애인                                | ① | ② | ③ | ④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③ | ④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42) 이웃                                | ① | ② | ③ | ④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③ | ④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문A1-11. [A1-1의 응답보기만 제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해당 가족에게 청소, 빨래 등의 일상생활의 도움을 얼마나 제공하셨습니까?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구분                         | 1주<br>1회<br>이상 | 1개 월<br>1~2회 | 2~3개<br>월에<br>1회 | 1년에<br>1~2회 | 1년에<br>1회<br>미만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형제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자매의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배우자의 형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배우자의 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조카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이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고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이모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19)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외숙모)                  | ① | ② | ③ | ④ |
| 20)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1) 고모부                               | ① | ② | ③ | ④ |
| 22) 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3) 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4) 외할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5) 외할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6) 의붓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 27) 의붓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 28) 의붓형제(입양 혹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 형제) | ① | ② | ③ | ④ |
| 29) 이복형제(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 ① | ② | ③ | ④ |
| 30) 백부/숙부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1) 고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2) 외삼촌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3) 이모의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4) 사위                                | ① | ② | ③ | ④ |
| 35) 며느리                               | ① | ② | ③ | ④ |
| 36) 친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7) 외손자녀                              | ① | ② | ③ | ④ |
| 38) 친구                                | ① | ② | ③ | ④ |
| 39) 애인                                | ① | ② | ③ | ④ |
| 40) 룸메이트                              | ① | ② | ③ | ④ |
| 41) 이혼한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42) 이웃                                | ① | ② | ③ | ④ |
| 43) 반려동물                              | ① | ② | ③ | ④ |
| 44) 기타 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 45) 기타 비혈연자( )                        | ① | ② | ③ | ④ |

### 지금부터는 가족가치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B1. 다음부터는 가족 가치관(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체크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항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14)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평안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문B2. 다음부터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체크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 항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
| 1) 남성은 직장을 다니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 ①               | ②               | ③        | ④          |
|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7)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일을 하는 것이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8)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9)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아버지(혹은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동성인 여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B3. 다음부터는 노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

| 항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필요하다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br>(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운 보기를 체크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이제부터는 가족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C1.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들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 이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항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
| 1. 아동 돌봄(양육)  | ①               | ②               | ③        | ④          |
| 2. 자녀 교육      | ①               | ②               | ③        | ④          |
| 3. 일자리        | ①               | ②               | ③        | ④          |
| 4. 노후 소득      | ①               | ②               | ③        | ④          |
| 5. 노인 돌봄      | ①               | ②               | ③        | ④          |
| 6. 보건의료       | ①               | ②               | ③        | ④          |
| 7. 장애인 복지     | ①               | ②               | ③        | ④          |
| 8. 주거지 마련     | ①               | ②               | ③        | ④          |
| 9. 최소생활수준의 보장 | ①               | ②               | ③        | ④          |

문C2.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들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항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br>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아동 돌봄(양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녀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일자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노후 소득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노인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보건의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장애인 복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주거지 마련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최소생활수준의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감사합니다.